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朱 英 愛 教授指導
博士學位 請求論文

結婚 仲介에 대한 史的 考察 및 事例
研究

2017

誠信女子大學教 大學院
生活文化消費者學科
文 智 藝

結婚 仲介에 대한 史的 考察 및 事例
研究

朱 英 愛 教授指導

이 論文을 博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6년 10월

誠信女子大學教 大學院






生活文化消費者學科

文 智 藝

認 准 書

文智藝의 博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2016년 10월

審 查 委 員 長	최 배 영	
審 查 委 員	함 개 이	
審 查 委 員	김 선 주	
審 查 委 員	주 영 애	
審 查 委 員	안 혜 숙	

誠信女子大學教 大學院

논문개요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인 婚姻은 二姓 간의 결합이자 사회 조직을 구성하는 근간이 되는 가정을 이루는 과정으로, 개인의 심리적 안녕은 물론, 사회의 생산성과 화합을 도모하는 사회적 제도이다. 우리 선조들은 혼인을 단순히 개인 간의 화합뿐만 아니라 집안 대 집안의 결합의 의미를 부여해 人倫之大事로 가장 신성시하고 중요한 과정으로 여겨왔다.

본 연구는 결혼중개에 대한 史的 考察을 위해 문헌연구의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현대 결혼상담원의 활동사례를 알아보기 위해 질적연구로 심층면접 조사하였으며 결혼상담원의 성격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MBTI 검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로는 강옥수(2006), 고영진(1989), 이길표(1983), 장병인(1993), 최배영(2013)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婚禮를 禮의 근원으로 언급한 『禮記』와 冠婚喪祭에 관한 문헌 중 오랫동안 기본 틀이 되어온 규범적 禮書인 『朱子家禮』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저술된 『家禮輯覽』과 『四禮便覽』을 선정하여 결혼중개에 대해 史的 考察을 하고자 하였으며, 질적연구의 사례연구를 위해 현재 강남구에 등록된 결혼중개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결혼상담원 12명을 면접대상으로 선정하여 반 구조화된 면접법과 MBTI 성격유형 검사를 동시에 사용하였고, 전사 및 메모, 코딩, 주제 선정의 과정으로 결과를 현상학적으로 분석하였다.

禮書들 중 『朱子家禮』와 『家禮輯覽』·『四禮便覽』의 혼례절차를 살펴보면 결혼중개에 대한 기록은 ‘議婚’의 절차에 언급되어있다. ‘의혼’이란 혼례를 행하기 이전의 절차로 반드시 중매인을 통해 남·녀 양가를 왕래하면서 의견을 알아보고 서로 전달하여 합의하게 되는 과정으로 남자 집에서는 여자 집의 혼인 허락을 기다린 후, ‘의혼’이 성립되면 納采하는 것으로, 일제강점기와 산업화의 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그 형태를 유지해오고 있다.

『禮記』에 의하면 혼례는 아내를 맞는 禮라 했고, 아내를 맞이하는 데는 반드시 해질 때를 택하여 禮를 올렸으므로 ‘昏禮’라고도 하였다. 『禮記』에서는 婚禮節次를 納采, 問名, 納吉, 納徵, 請期, 親迎의 六禮로 說明하고 있고, 『朱子家禮』와 『家禮輯覽』·『四禮便覽』에서는 議婚, 納采, 納幣, 親迎의 四禮로 구성하고 있다.

議婚 과정에서 양가는 仲媒人를 통해 혼인조건으로 연령과 성품이나 가법 같은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중매의 과정은 生活文化와 맞물려 시대의 변화에 따른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중매쟁이 혹은 매파라 불리는 직업군이 형성되었고 현대에는 결혼상담원이라는 새로운 직업군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혼례 절차 중 결혼중개과정을 크게 傳統社會에서의 결혼중개, 開化期의 결혼중개, 光復以後의 결혼중개, 結婚仲介業 등장이후의 결혼중개로 나누어 歷史的 變化에 따른 결혼중개의 變遷過程에 관해 고찰해보고자 하였고, 현대 결혼상담원의 활동사례에 관한 연구를 통해 선조들의 삶 속에서 결혼중개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新직업군인 결혼상담원의 현황과 가능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결혼중개의 역할인 중매가 현대 사회에서 어떤 필요와 가치로 흡수되었는지 알아보고, 결혼중개 과정의 가치를 현재와 미래에서 재발견해 갈 수 있는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또한 사례연구를 통해 혼인에 있어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결혼상담원의 직무, 직무스트레스, 자질, 역할, 상담의 성공 및 실패 사례, 결혼상담원의 당면문제를 현상학적으로 탐색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상담원의 직무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직무 스트레스는 근무 시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고 평일과 주말까지 연장되는 상담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했으며, 예약 후 사전 연락도 없이 오지 않는 노쇼(No Show)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담과정에서 고객과 의사소통이 안 될 때 감정을 억누르는 과정에서 감정노동 경험을 경험한다고 했으며, 매칭을 전담으로 하는 경우 미팅이 원활하지 않아 고객으로부터 컴플레인을 받을 때 스트레스를 받고, 여성의 고학력 및 고연봉으로 인해 남성과 미팅을 잡을 수 없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다.

둘째, 결혼상담원의 자질과 역할에 관련하여 대부분의 조사자들이 인성과 따뜻한 성품, 배려심 등을 얘기했으며 정직, 책임감, 진정성, 공감, 끊임없는 자기관리, 품격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MBTI 성격유형 검사 결과 결혼상담원은 주로 외향형이며, 감각형, 판단형의 성격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결혼상담의 성공적인 사례는 나이가 많아 결혼이 안 되는 만혼자의 성혼이나 나이차가 많은 연령차를 극복한 성혼과 드라마 같은 성혼, 재혼커플의 성혼을 들었고, 실패 사례로는 고객의 요구가 맞지 않을 때 혹은 의도적으로 불량고객(Black Consumer)으로 돌변하는 경우나 고객의 높은 결혼이상형에 대한 요구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의견 불일치로 인한 상담 실패를 사례로 들었다.

넷째, 면접 조사자들은 결혼상담원의 당면한 문제로 상담원의 비전문성과 상업적 중매행위, 결혼 상담에는 소홀하고 仲媒에만 치중하는 점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에 기인하는 일반인의 낮은 신뢰도 등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기존 결혼상담의 제 문제점을 해결하고 동시에 결혼 상담을 보다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결혼상담원 교육이 필요하며, 관련 지식과 상담기술을 기르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결혼상담원들의 긍정적 활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감정노동자로서의 결혼상담원에 대한 고객들의 인식변화와 더불어 제도적인 뒷받침과 상담업무의 전문화, 정규직화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目次

論文概要

I. 序論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절차	5
3. 용어의 정의	7
II. 結婚仲介에 대한 史的 考察	10
1. 史的 考察방법	10
1) 考察내용	10
2) 자료수집 방법	10
2. 結婚중개의 변천과 현황	21
1) 전통사회에서의 結婚중개	21
2) 개화기의 結婚중개	32
3) 광복이후의 結婚중개	37
4) 結婚중개업 등장 이후의 結婚중개	46
III. 結婚相談員의 事例研究	68
1. 연구방법	68
1) 연구문제	68
2) 사례조사 도구	69
3) 사례조사 절차 및 사례특성	70
4) 사례분석 방법	73
2. 結婚상담원 직무관련 심리적 요인 고찰	76
1) 감정노동	76
2) 직무스트레스	80
3) 성격	83

3. 결혼상담원의 사례분석 결과	91
1) 결혼상담원의 직무와 직무스트레스	91
2) 결혼상담원의 자질과 역할	98
3) 결혼상담의 성공과 실패사례	101
4) 결혼상담원의 당면과제	107
IV. 結論 및 提言	114
1. 요약 및 결론	114
2.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117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II-1〉 문헌고찰에 관한 개괄	12
〈표 II-2〉 혼례에 관한 학위 및 학술지 논문	16
〈표 II-3〉 결혼중개업 관련 논문	20
〈표 II-4〉 가정의례준칙의 변화	43
〈표 II-5〉 2013년 하반기 결혼상담원 현황	53
〈표 II-6〉 결혼상담원의 자질에 대한 요구	55
〈표 II-7〉 국제결혼중개업자 대상 교육·교육방법	56
〈표 II-8〉 결혼상담사(커플매니저) 자격증 시험	57
〈표 II-9〉 결혼상담사(커플매니저) 자격증 시험 주요과목	58
〈표 II-10〉 소비자 피해 사례(2014년)	62
〈표 II-11〉 소비자피해 상담사례 및 소비자피해구제 신청건수	63
〈표 II-12〉 국내결혼중개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	63
〈표 II-13〉 전국 혼인 건수 및 증감률(2016.6.)	64
〈표 II-14〉 혼인종류별 혼인건수(2016.6.)	65
〈표 II-15〉 결혼중매의 변천과정	67
〈표 III-1〉 면접 시 질문목록	69
〈표 III-2〉 조사대상자의 사례특성	74
〈표 III-3〉 감정노동의 개념정의	79
〈표 III-4〉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	82
〈표 III-5〉 MBTI 연구논문	89
〈표 III-6〉 도출된 구성요소 및 하위구성요소	112

그림 목 차

<그림 I-1> 연구절차	6
<그림 II-1> 언론매체별 혼례에 관한 매체별 언급비중	17
<그림 II-2> 혼례에 관한 석·박사 학위논문 비중	17
<그림 II-3> 결혼중개업 관련 학위 및 학술지 논문	18
<그림 II-4> 사례편람	25
<그림 II-5> 혼서지와 연결서	29
<그림 II-6> 가정의례해설	41
<그림 II-7> 국내결혼중개업체 수(2016년 8월말)	51
<그림 II-8> 결혼중개업체 이용 시 피해 사례	61
<그림 II-9> 성·연령별 혼인율(2016.6.)	65
<그림 III-1> MBTI 4가지 선호경향	84

I. 序論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生活文化는 인간이 환경에 대해 적응하면서 생겨난 생활양식이 계승되어 온 것으로 가정생활에 관련된 가치나 태도, 의.식.주생활, 가족 관계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성숙 외, 2009)이다.

삶의 일상적 상황들이 곧 문화를 형성하게 되고, 그러한 반복적 일상에서 만들어진 문화를 生活文化라 정의(문형은, 2011) 할 수 있다. 生活文化로 전수되어 오고 있는 ‘家庭儀禮’는 가치나, 태도, 그 가정의 삶의 방식이 반영되는 함축적인 바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이중에도 婚禮는 人倫之大事로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의례로 여겨왔던 것이다.

사회변화에 따라 婚禮의 절차나 형식이 많이 변모하고 있지만, 婚姻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그 집안의 어른이 혼담을 나누고, 婚禮式을 치루고, 가정을 이루어 가는 기본적인 과정에는 변함이 없다.

人生의 또 다른 시작인 婚姻은 二姓 間의 結合이자 사회 조직을 구성하는 근간이 되는 가정을 이루는 과정으로, 개인의 심리적 안녕은 물론, 사회의 생산성과 화합을 도모하는 社會的 制度이다. 조상들은 婚姻을 단순히 개인 간의 화합뿐만 아니라 집안 대 집안의 결합이라는 의미를 부여해 신성시하고 人生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여겨왔다.

혼인은 혼담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혼인을 의논한다는 ‘議婚’, 또는 혼담을 나누는 양가를 연결한다는 ‘仲媒’, ‘仲介’ 등으로 불리었다. 또한 중매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 ‘媒婆’라고도 하였다.

결혼중개 과정인 仲媒란 혼인을 의논하는 절차로 혼인적령기가 된 남녀를 둔 집안에서 婚姻 말이 나오면 仲媒人을 써서 양가의 의견을 알아보고 서로 전달하여 합의하는(이순홍, 1992)과정을 말한다. 이는 혼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절차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매 과정은 현대와 가장 가까운 傳統社會인 조선시대에도, 일제강점기와 산업화의 시대를 거치는 시대에도 존재했다. 더욱이 자본주의적 사고가 보편화되고, 개인주의 가치관과 남녀 평등사상 등이 확산되면서 자유혼이 일반화 된 현대에도 결혼을 중매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직업사전에 ‘결혼상담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사회에서는 흔히 ‘커플매니저’라고 불리어 진다. 이들은 과거에 중매인, 매파라고 불리어 졌으나, 오늘날에는 결혼상담원이라는 新 직업군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사회문화와 역사적인 변화가 지속되어도 인간의 삶에 중요한 ‘婚禮’라는 儀禮에는 ‘仲媒’가 그 형태나 활동형식, 직업군의 명칭 등이 바뀌어 졌지만, 혼례에서 변화하지 않는 節次로서의 고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6년 8월말 기준으로 신고·등록 절차를 마친 국내 결혼중개업체는 전국 총 884개이다. 현대의 미혼남녀들이 과거 지인을 통한 중매보다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이유는 핵가족이 보편화되고 바쁜 일상으로 인한 개인주의 성향의 심화되면서, 주변 사람들의 친분에 의한 소개 문화가 쇠퇴하고 그 역할을 결혼중개업체가 대신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결혼상담원이 갖고 있는 사회적 위상이나 활동은 생각만큼 신뢰를 얻고 있는 직종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된 결혼중개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국제결혼중개업에 비해 약5배에 이르고, 점점 그 피해유형이 복잡해지고 분쟁이 뜨거워지는 양상이다(이창욱,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결혼을 중매하는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제도나, 관리 감독 등은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인생의 通過儀禮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婚禮의 시작이 ‘仲媒’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결혼상담원이 신뢰받는 직업군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결혼중개·상담에 관한 연구 1990년대에 이르러 시작되었고, 아직까지 연구가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하다. 선행연구로는 장성자(1990), 김성찬(2007), 박문기(2012), 채희영(2013), 이창욱(2016)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결혼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결혼중개업 이용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자 교육 현황과 개선방안을 제안하였고, 전문결혼상담원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향후 결혼 전·후 교육을 통한 질적 보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혼중개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다양하게 시도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중개에 관하여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파악하여 사적 연구가 되어 오지 못한 점과 실천적 연구의 부족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결혼중개에 관한 생활문화연구의 관점에서 연구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결혼중개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혼인문화 중의 하나이며, 이러한 문화는 현재에도 그 원형은 존재하고 있고, 다만, 시속에 맞추어 그 형태가 변용되어 오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결혼중개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종합적으로 정리된 바 없어 이에 대한 史的 考察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 전통사회의 결혼중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변천과정을 사적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결혼중개의 변천과정을 종합정리해 보고자 하며, 나아가 국내 결혼중개업과 결혼상담원의 활동현황을 파악하여, 앞으로 결혼상담

원의 중매 활동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결혼상담원의 活動事例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시도하여 앞으로 결혼과정의 성공적인 시작이 ‘의혼’에서부터 임을 재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결혼상담원의 활동에 대한 관심과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결혼상담원을 위한 양성과 교육적 제도적 관리적 차원에 필요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그러므로써 향후 결혼상담원의 긍정적 활동 환경을 조성해 가는 데에 일조하고자 한다.

2. 研究範圍 및 節次

본 연구는 문헌과 선행연구를 참고해 결혼중개에 대한 史的 考察과 결혼상담원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병행하고자 한다. 연구범위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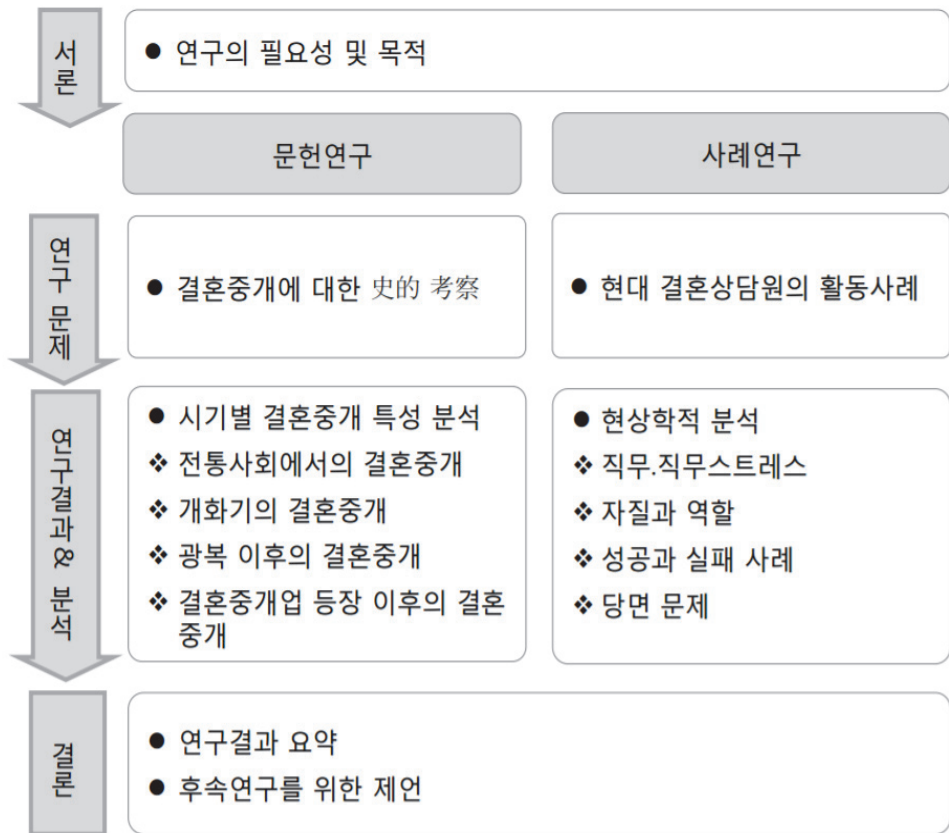
제 I 장 序論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연구 절차를 제시한다.

제 II 장에서는 結婚仲介에 대한 史的 考察로 仲媒에 대해 史的 考察을 하였다. 고문헌과 자료·선행연구 등을 토대로 첫째, 傳統社會에서의 결혼중개 둘째, 開化期의 결혼중개 셋째, 光復以後의 결혼중개 넷째, 結婚仲介業 登場이후의 결혼중개로 시기별로 범주화하여 각 시기의 사회문화 제도의 변화에 따른 仲媒의 變遷에 관해 살펴보았다.

제 III 장에서는 현대 結婚相談員의 활동에 대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각 사례의 직무·직무스트레스, 자질·역할, 성공사례 실패사례, 당면 문제 등을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질적연구를 시도하였다.

제 IV 장은 결론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결혼상담원 활동을 위한 논의와 결론을 맺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의 절차는 다음 <그림I-1>과 같다.



<그림 I-1> 연구절차

3. 用語의 定義

1) 仲媒人 : 朱子の『家禮』〈婚禮〉에는 仲媒로 議婚이 시작되고 仲媒人은 婚姻이 이루어지기까지 양가를 오가며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기록되어있다. 仲媒人은 지역에 따라 ‘중매쟁이’, ‘중신아비’, ‘仲婆’ 또는 ‘媒婆’ 등으로 불렸는데 두 집안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친척이나 知人이 주로 담당하였다. 전통사회에서는 여성이 집 밖 출입을 자유롭지 못했고 사회활동도 제약을 받았던 시대였으므로, 仲媒人 없이 혼기가 찬 남녀가 혼인하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따라서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중매인을 통해서 가능했으므로 그들의 비중은 매우 컸다. 禮書에도 혼인은 반드시 중간역할을 하는 중매인을 통해서 한다고 명시된 바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중매인이란 성혼을 위해 양가를 오가며 의견을 조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媒婆 : 婚姻을 중매하는 여인으로 ‘중매쟁이’ 라고도 한다. 대체로 중매역할을 했던 사람은 중년 이후의 노파들이었으므로 婆(할미(파)) 字를 붙여 ‘媒婆’ 라 불렀다. 이들은 혼인적령기의 자녀를 둔 집을 연줄관계로 찾아다니면서 직업적으로 仲媒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남녀 두 사람의 자유의사에 의한 결합은 野습이라 하여 배격하였으므로 媒婆라는 중매의 역할이 반드시 必要했다 (encykorea.aks.ac.kr). 媒婆는 우선 변죽이 좋고 說得力이 있어야 함은 물론, 誠實하고 信用이 있어야 했다. 또한 성혼을 시킨 경력이 많을수록 能力을 인정받았다.

3) 議婚 : 전통사회에서 ‘의혼’이란 婚禮를 앞두고 婚姻을 의논하는 것으로 중매역할을 했던 사람은 반드시 仲媒人을 통해 왕래하고 仲媒人을 통해 상대집안의 의중과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였고, 兩家가 서로 婚事를 의논한 후 婚談이 오고간 뒤 婚姻에 合意를 하고 許婚하기까지의 과정을 ‘의혼’이라 한다.

『禮記』에서는 혼례의 과정을 納采, 問名, 納吉, 納徵, 請期, 親迎의 六禮로, 『朱子家禮』와 『家禮輯覽』·『四禮便覽』에서는 議婚, 納采, 納幣, 親迎의 四禮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과정인 ‘議婚’은 納采를하기 전까지의 단계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仲媒를 통해 청혼과 허혼을 하는 것이다. 이때 혼기를 앞둔 新郎과 閨秀가 있어도 당사자 집에서 직접 중매하기 어려우므로 발이 넓은 仲媒人을 통하게 된다. 朝鮮時代에는 士大夫의 경우, 『家禮』에 근거하여 婚禮 規範을 행하였다.

4) 結婚仲介業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결혼중개업을 ‘정보화 사회에 따라 결혼을 목적으로 미혼남녀를 회원으로 모집, 최적의 배우자상을 찾아서 일정 횟수동안 만남 기회를 제공해주는 전문적인 신중업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www.ftc.go.kr).

法的 용어로는 結婚仲介業이라고 하며,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으로 나뉜다. 국내결혼중개업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수수료, 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결혼중개업은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으며,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등록 한 후 영업을 할 수 있고, 국제결혼중개업은 해당 교육을 받고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전의 결혼중개업은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이 가능한 허가제였으나 1994년 말 이후 누구든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신고제로 변경되었다. 2000년 8월부터는 결혼중개업이 자유업으로 바뀌어,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즉시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법적 용어인 ‘결혼중개업’을 사용하였으나 통상적으로는 ‘결혼정보회사’라고 한다. 따라서 두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였다.

5) **結婚相談員**; 結婚仲介業體에 소속되어 결혼을 전제로 이성과의 교제를 계획하는 남녀 고객들에게 각자의 이상에 적합한 배우자를 찾아 그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www.krivet.re.kr)으로, 다양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원만한 교제가 진행되어 성혼에 이르도록 카운슬링을 하는 전문 직업종사자이다. 結婚仲媒 市場이 성장하면서 새로 생겨난 직업이며, 최근 ‘결혼상담사’라고도 하며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커플매니저(Couple Manager)’라고 불리운다.

II. 結婚仲介에 대한 史的 考察

1. 史的 考察方法

1) 考察내용

結婚仲介에 대한 史的 考察을 위해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적고찰의 시기를 사회변화에 초점을 두어 유교중심의 傳統社會, 開化를 맞이하여 사회와 생활전반에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큰 변화를 맞이했던 시기, 일제강점기를 끝으로 광복 후 새로운 국가체계를 세워나가면서 제도를 정비했던 시기, 특히 결혼중개업이라는 새로운 직종이 등장하게 된 이후로 구분하여 각각 결혼중개는 어떠한 형태로 존재했고, 어떠한 특징을 보였는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전통사회에서의 결혼중개는 어떠한가?

둘째, 개화기의 결혼중개는 어떠한가?

셋째, 광복이후의 결혼중개는 어떠한가?

넷째, 결혼중개업 등장 이후의 결혼중개는 어떠한가?

2) 자료수집 방법

結婚仲介에 대한 史的 高찰을 위해 고서를 비롯하여, 각종 자료, 국가 통계자료, 선행연구 등을 살펴보았으며, 국회도서관, 국가전자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3곳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이용하였다. 또한 결혼중개업이 등장한 이후 現況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 일간지 기사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국내 일간지 기사

자료 수집은 포털사이트인 <http://www.bigkinds.or.kr/> 의 뉴스 라이브러리를 참고하였으며, 빅카인즈 뉴스 라이브러리에는 뉴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일간지 중 부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의 정보 검색을 토대로 하였다. 이 5곳의 일간지를 대상으로 신문 기사를 연도별로 ‘婚禮’, ‘결혼중개’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가능한 모든 기사를 참조하였으며 R Software(The R Project for Statistical Computing)를 이용하여 수치화하고 도식화 하였다.

(1) 古文獻 考察

朝鮮의 傳統婚禮를 다룬 禮書는 수없이 많이 存在하지만<부록 5>, 본 연구에서는 생활문화 연구 분야에서 주로 인용되어온 강옥수(2006), 고영진(1989), 이길표(1983), 장병인(1993), 최배영(2013)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婚禮를 禮의 根源으로 언급한 『禮記』와 오랫동안 관혼상제의 기본틀이 되어온 『朱子家禮』,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저술된 『家禮輯覽』과 『四禮便覽』을 중심으로 결혼중개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전통사회에서의 결혼중개는 일반적으로 仲媒를 말하며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文獻’과 ‘史料’에 근거 할 수밖에 없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표 II-1> 文獻考察에 관한 개괄

冊名	年度	內用
『禮記』	戴聖(미상) 中國 漢나라 때의 學者. 字는 次君.	중국 고대의 禮에 관한 기록과 그 해서를 담고 있는 책으로 유교 경전인 五經의 하나이며 “周禮”. “儀禮”와 함께 ‘古禮’ 또는 ‘三禮’로 지칭되는 禮書
『朱子家禮』	中國 宋代 朱熹 (1130~1200)	性理學을 완성한 朱熹의 저작으로 알려진 冠婚喪祭의 家禮書로 우리나라에는 고려말 충렬왕 12년(1286)에 安珦이 『朱子全書』를 수입할 때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장철수, 1995).
『家禮輯覽』	金長生 (1599년)	家禮에 관련된 여러 학자의 禮說을 취사선택하고 古禮를 참작하여 ‘家禮’의 각 조목에 註를 달고 해설한 禮書
『四禮便覽』	憲宗10년 (1844년)	조선 영조시대에 李穡가 편저하고 그의 몰후 약70여년이 지난 헌종10년에 간행된 四禮에 관한 총서로 冠婚喪祭 중 『朱子家禮』의 허점을 보완하여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엮었다.

『禮記』는 『周禮』· 『儀禮』와 함께 三禮라고 하며 五經에 포함된다. 『儀禮』가 禮의 經文이라면, 『禮記』는 그 설명서에 해당한다. 『禮記』는 戰國末期부터 前漢初期에 작성된 각종 記文의 기록들이 편집된 것이다. 따라서 『禮記』는 기존의 禮에 관련된 기록들을 수집하여 王朝政治에 맞는 禮論의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정병섭, 2013). 『禮記』의 내용은 春秋 당시에 孔子의 禮에 관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72명의 제자들의 기록으로 시작되었고, 『禮記』의 전체적 기틀을 확립한 것은 戴聖때이다(박예경, 2005).

현대에 전하는 것은 後漢 때 정현이 주석한 49편이고, 冠禮. 婚禮. 祭禮. 鄉飲酒禮. 四禮. 聘禮 등에 관한 기록은 中國의 社會的 民間的 風俗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朱子家禮』는 性理學을 집대성한 中國 南宋 孝宗 5年(1169) 때의 유학자 朱熹(1130~1200)가 일상생활의 禮節에 관해 모아 기록한 책이다. 朱熹는 무원사람으로 자는 元晦, 仲晦이며, 호는 晦庵, 晦翁, 雲谷老人 등이다. 孟子의 충지에 입각하여 周敦頤(1017~1073), 張載(1020~1077), 程頤(1033~1107)등 북송 유학자들의 학설을 계승 종합하는 한편 동시대의 불교와 도교의 이론까지 두루 섭렵함으로써 朱子學이라는 방대한 사상체계를 완성하였다. 그는 유학의 대표적인 경서인 三經과 四書 등의 집주 작업을 행하였으며, 性理의 理致를 밝힌 수많은 저작들을 남겼다. 『朱子家禮』는 冠婚喪祭라는 일생의 중대사를 치르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明示한 책으로 각 가정이 구성원을 위해 주관하는 각종 의례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實用的 禮書이다.

『朱子家禮』는 ‘家禮’, ‘文公家禮’, ‘朱文公家禮’ 등으로도 불리며,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高麗 末 忠烈王 12년(1286)에 安珦(1243~1306)이 『朱子全書』를 도입될 때 性理學과 함께 受容되었다. 朝鮮王朝가 性理學을 기본 이념으로 표방하면서 安珦을 비롯한 일부 유학자들은 실천적 이념으로서의 家禮를 생활의 준거로 삼고자 하였다. 한편, 신홍 사대부 계층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개혁과 사회질서를 추구하는 이념적 체계로서 받아들여졌다. 朝鮮이 건국된 후 家禮는 士大夫 官僚들에게 필수적으로 권장되었고 國家 典禮에도 부분적으로 사용되었다(임민혁, 2000).

『朱子家禮』가 朝鮮 시대에서 독자적으로 연구 발전되고 생활화된 것은 16세기에 性理學이 심화되고 한국화 된 이후의 일이다. 17세기에 이르러 朝鮮의 禮學은 더욱 발전하여 金長生(1548~1631), 鄭述(1543~1620), 金集(1574~1656), 許穆(1595~1682) 등의 大禮學者들이 배출되었고, 家禮研究도 한층 심화되었다.

『家禮輯覽』은 목판본, 10권 6책으로 朝鮮中期 선조 32년(1599년)에 沙溪 金長生(당시52세)이 朱子의 家禮를 증보, 해설한 책이다. 그는 『家禮』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는 事例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禮節의 내력과 후세의 여러 해석에 일관성이 있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여 집필한 것이었다. 아들 金集이 교정을 보았고, 1685년(숙종 11년)에 宋時烈(1607~1689)을 비롯한 여러 제자들의 노력으로 徐文重(1634~1709)·李師命(1647~1689)이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우리나라의 갖가지 禮節과 風俗을 첨가하고 『朱子家禮』를 해설함으로써 우리나라 禮學의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였다.

『家禮輯覽』 권1은 通禮, 권2는 冠禮, 권3은 婚禮, 권4~9는 喪禮, 권10은 祭禮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하는 한편, 圖說을 붙여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된 특징이 있다. 또한 보충한 제유의 설에 대해서는 모두 인용한 책이름을 적고 篇目を 밝혔으며, 자기의 의견일 경우에는 ‘愚’ 字나 ‘按’ 字를 써서 분명히 하였고, 현대의 연구자들에게 연구운리의 귀감으로 삼을 만하다. 이 책은 四禮에서 늘 참고해야 하는 기본 禮書이다.

『家禮輯覽』은 양에 있어서도 주자가례의 5배가량의 분량이고 책머리에 圖說과 『朱子家禮』에는 없는 三代宮廬圖, 三代器用之圖, 三代服飾之圖가 있으며, 家禮總圖라 하여 총 목차까지 제시하였다.

한편, 『家禮輯覽』은 『朱子家禮』를 祖述하여 따르기는 하였지만 禮의 常과 變을 자세히 考究하고 添削하여 당시에 맞는 禮의 確立을 위해 노력하여 우리의 文化와 정서에 맞도록 정리해서 저술되었다. 朱子의 『家禮』를 근본으로 하여 그의 禮說을 펼치되, 古今의 禮書와 諸家の 說을 참고하여 是와 非를 가렸으며, 비록 朱子의 說이라도 土俗과 人情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침삭하여 天理의 公正하고 바른 法則이 實踐의 主體인

인간에게 올바르게 행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이윤정, 2002).

『四禮便覽』은 朝鮮 英祖時代에 李緯(1680~1746)가 冠婚喪祭의 四禮에 대해 서술한 책이다. 『儀禮』 『禮記』 『家禮』 『喪禮備要』의 禮書와 司馬溫公(사마광; 1019~1086), 王通(584~617), 김장생(1548~1631), 송시열(1607~1689)등 제가의 禮說 및 당시의 예제와 시속을 보충하여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게 저술된 책이다. 이 책이 간행되고 세상에 보급된 후 편술된 家禮書들은 이것을 기준으로 삼았고 社會의 禮俗 역시 여기에 준하여 行用되었다(www.aks.ac.kr).

『四禮便覽』은 陶菴 李緯(1680~1746)가 編述한 冠婚喪祭 四禮에 관한 종합적인 참고서로 8권4책의 목판본이다. 당시 거의 맹목적으로 시행하던 朱子 『家禮』의 허점을 보완하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편하도록 엮은 책이다. 이는 朝鮮時代 冠婚喪祭에 관련된 文獻資料 중에서도 유교적 의례규범이 확고히 정립되는 17세기 이후에 등장한 대표적인 規範書라 할 수 있다.

陶菴은 禮制의 典範을 위해 申義慶의 『喪禮備要』를 중심으로 先賢의 禮說을 참작하여 儀禮의 잘잘못을 바로잡아 쉽게 詳考할 수 있게 喪祭에 冠禮와 婚禮까지 첨가해서 『四禮便覽』을 편저하여 쓰고, 이것이 필사본으로 전해지다가 손자인 華泉(李采 1745~1820)이 첩보하고 다시 그 두 아들인 文簡公(小華 李光文 1778~1828)과 文貞公(方野 李光(輝)正 1780~1849)이 각각 未審한 바를 보태고 한편 여러 기구의 圖式까지 붙여 문정공이 수원유수로 재임하던 憲宗 10년(1844), 백년 만에 雲石(趙寅永 1782~1850)의 발문을 덧붙여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그 뒤 黃泌秀·池松旭등이 『四禮便覽』에 보정을 더해서 『增補四禮便覽』이라 하여 1900년에 다시 刊行하기도 하였다.

『四禮便覽』은 『家禮』의 원칙을 지키되 時俗을 반영하여, 禮의 보편성의 추구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禮俗의 당위성을 보여주었으므로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었다고 보인다(www.aks.ac.kr).

(2) 婚禮에 관한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

婚禮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1971년부터 2016년 9월 현재까지 발간된 자료를 조사한 결과, 학위논문 69편, 학술지 76편이 출간되었다(<부록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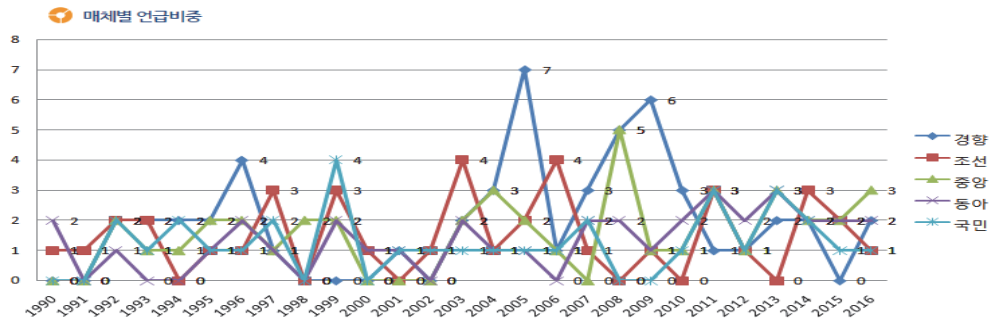
학위논문은 홍춘미(1971)의 “家庭儀禮(婚喪祭禮)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혼례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학위논문 69편의 연구는 의례(7), 혼례복(15), 가례(4), 혼례음식(10), 혼례절차(12), 혼례문화(9), 혼례용품(1), 혼속(5), 배례(2), 예서(4)연구 등으로 이루어졌다.

학술지발표 논문으로는 도병권(1967)의 “韓國의 冠婚喪祭가 農村生活에 미치는 影響”을 시작으로 76편이 연구되었고, 의례(7), 혼례복(12), 혼례절차(10), 혼례음식(8), 혼례문화(7) 혼속(10), 예서(8) 연구가 있다.

<표 II-2> 혼례에 관한 학위 및 학술지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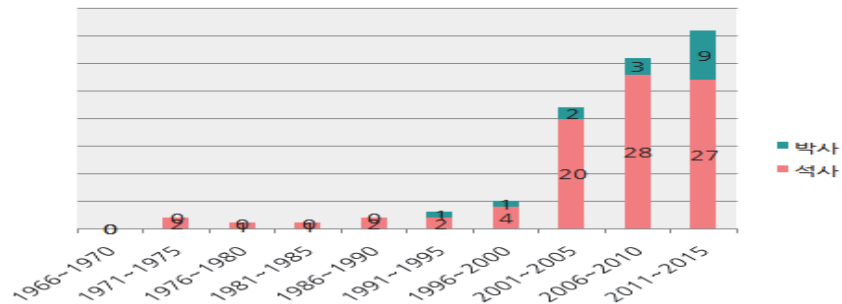
(편)

구분	의례	혼례복	가례	혼례음식	혼례절차	혼례문화	혼례용품	혼속	배례	예서	합계
학위논문	7	15	4	10	12	9	1	5	2	4	69
학술지	7	12	10	8	14	7	-	10	-	8	76



<그림 II-1> 언론매체별 혼례에 관한 매체별 언급비중

국내 일간지 포털사이트인 <http://www.bigkinds.or.kr>의 뉴스 라이브러리를 참고하여, 혼례에 관련한 매체별(경향,조선,중앙,동아,국민) 언급비중을 살펴본 바, 2003년부터 2010년까지가 가장 많았으며, 이때 한류열풍과 더불어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우리문화를 세계에 알리려는 연구가 계속되었던 결과라고 사료된다(<그림 II-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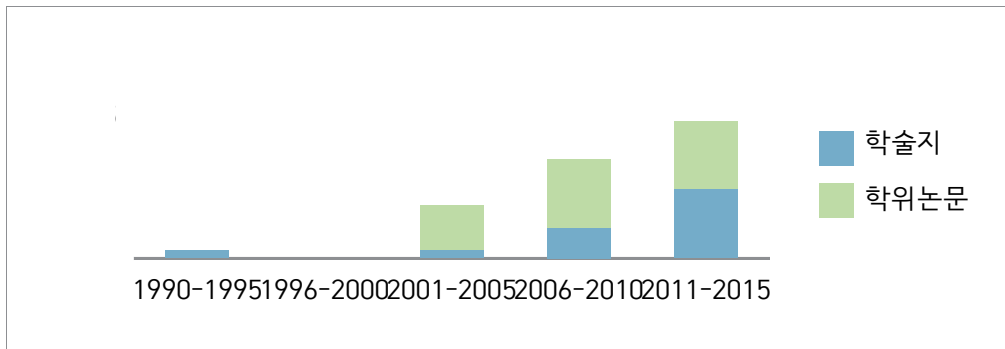


<그림 II-2> 혼례에 관한 석.박사 학위 논문 비중

혼례에 관한 학위논문은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박사학위 논문이 9편으로 이전시기에 비하여 가장 많이 발표되어 혼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학문적 관심도 고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II-2참조>).

(3) 결혼중개업 관련 학위논문과 학술지

결혼중개업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를 활용하여 살펴본 결과, 2016년 9월 현재까지 발간된 학위논문, 학술지는 모두 12편이며, 結婚仲介業이 1980년 이후부터 생겨난 직업이므로 논문도 1990년 이후부터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계에서의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2000년 이후부터 조금씩 연구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그림 II-3> 결혼중개업 관련 학위 및 학술지 논문

선행연구(장성자,1990,김성찬,2007,박문기,2012,채희영,2013,이창욱,2016)에서는 국내결혼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결혼중개업 이용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자 교육 현황과 개선방안을 제안하였고, 전문결혼상담원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향후 결혼 전·후 교육을 통한 질적 보완을 제시하고 있다.

홍경희(2006)는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 초.재혼 희망자 중 강남권역에 거주하는 자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결혼조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초혼의 경우는 학력이나 직업, 연봉 등 개인의 능력 뿐 아니라 사회적 배경까지도 중요하게 여기는 데에 반해 재혼은 개인적 능력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탁림(2014)은 결혼정보서비스 사이트의 고객가치와 구전의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 중국시장을 중심으로 연구했다. 결혼정보 사이트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독신 남녀 수가 급속히 늘어났기 때문에 연구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2009년에 ‘결혼 못한 여자’, ‘宅男, 宅女(집에 있는 남자나 여자)’ 등 결혼과 관련된 단어가 Hot Issue가 되었으며, 2003년부터 결혼정보 사이트가 생기면서 2006년에 그 수가 1000개를 넘었으나 실제 회원들의 정보와 소개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와 개인 정보 안정성 등의 문제로 인해 기업에 대한 브랜드 신뢰도는 높지 않다고 했다.

김송은(2012)은 1986년부터 2011년에 제작된 결혼중개업체의 광고를 분석하여 결혼중개업체의 광고에서 제시했는데 이상적인 배우자감의 이미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는 사회분위기와 함께 변화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특성이 광고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도현(2014)은 결혼정보업체의 기존 한계점이었던 단순 매칭 즉 성혼을 성공의 결과 치로 보는 시각을 벗어나 기혼자들의 배우자 선택 시 가장 고려했던 요소를 파악하고 그 선택요소에 따른 결혼 만족도를 측정하여 사후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 결혼정보업체의 지속가능 경영을 도모하고자 한 제안을 하였다.

이향숙(2014)은 결혼정보회사와 커플매니저의 현황분석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각 지방의 중매 풍속과 결혼정보회사의 규모나 프로그램, 운영정책, 커플매니저의 자질, 직무 등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렇듯 결혼중개업 관련 연구에서는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문제를 다룬 연구들과 결혼정보업체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기업적 관점에서 연구들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결혼중개를 하는 결혼중개상담원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악해본 연구는 없었다. 실상 결혼

정보업체의 서비스 제공이나 소비자문제 발생 등은 직접 소비자를 대면하는 결혼상담원의 직무에서의 대처와 활동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원초적인 연구과제가 수행되지 못한 관계가 엿보인다.

<표 II-3> 결혼중개업 관련 논문

No	년도	연구자	논제	출처
1	1990	장성자	『전문결혼상담원 교육프로그램개발 사업보고서』	한국여성개발원
2	2005	노은미, 박선혜, 성현주, 이유나	결혼정보회사 성장에 따른 남녀 순수관계 고찰	가톨릭대학교 성심사회학 제9집
3	2006	홍경희	결혼중개업에 가입한 초.재혼 희망자 중 강남권역에 거주하는 자들을 연구대상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2007	김성찬	결혼 정보업	한국소비자원
5	2008	최봉근	배우자 선호에 대한 실증 분석 -결혼정보회사 자료를 이용한 남녀 선호의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2012	박문기	결혼정보회사 브랜드 가치 높이기	한국마케팅 연구원
7	2013	채희영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
8	2012	김송은	결혼이라는 상품과 성별가치변화: 결혼정보회사 광고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2014	여탁립	결혼정보서비스 사이트의 고객가치와 구전의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중국시장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2014	이도현	결혼정보업체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전략연구배우자 선택요소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2014	이향숙	결혼정보회사와 커플매니저의 현황분석에 관한 연구	동부산대학교 학술지
12	2016	이창욱	결혼중개업 이용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자 교육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

자료: 연구자 재구성

2. 結婚仲介의 變遷과 현황

결혼중개란 古來의 혼인 중매의 현대적 표현으로 이하 중매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仲媒란 婚禮節次인 議婚·納采·納幣·親迎의 四禮 중 첫 번째 과정으로, 仲媒人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議婚에 대해 문헌고찰과 선행연구 등을 살펴보고, 傳統社會로부터 現在까지의 시기별 분류하였으며, ① 傳統社會에서의 결혼중개 ② 開化期의 결혼중개 ③ 光復以後의 결혼중개 ④ 結婚仲介業 등장이후의 결혼중개로 나누어 歷史的·社會的·生活文化的 變化에 따른 仲媒의 變遷過程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傳統社會에서의 결혼중개

婚禮는 민족과 지역적인 고유의 특징을 반영하며 人類文化的 보편적인 관행으로 그 기원은 매우 오래되었다. 관혼상제의 四禮중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이며 생산적인 儀禮로 인류의 歷史와 함께 변천되어 왔다. 당대의 혼례문화는 관습에 의하여 고착화 되고 마침내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가정을 형성하는 사회제도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고대 三國時代 이전의 婚禮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으나 『三國遺事』에 나타난 解慕湫說話, 東明王說話 등으로 그 기원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沃沮의 민며느리제도, 부여시대의 일부일처제, 고구려시대의 壻屋살이 동거형태 기록 등으로 보아 한국 고대 사회에서도 부족 간의 문화차이로 인한 다양한 혼인풍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권강욱, 2000).

『三國史記』 권 13, 高句麗本紀 1, 始祖 東明聖王篇에 보면 일반 민간층에서는 남녀 간의 언약이 우선적인 자유혼이 관행된다 하여도, 지배계층에서는 父母 주도의 혼인 결정이 있게 되면 자녀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仲媒人, 곧 그들 만남의 증인 역할을 하는 사람의 연결 없이 남을 따

라 간 것에 대해 부모가 질책하였다(父母責我無媒而從人)’ 는 기록이 있어 (박혜인, 2005) 仲媒의 역사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仲媒人은 자격에 제한이 없고 男女貴賤에 구애되지 않으며, 다만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할 수가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교제에 뛰어나 仲媒를 잘하였기 때문에 仲媒人으로서 일정한 직업성을 가지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먼저 婚事に 뜻이 있는 한쪽에서 仲媒人에게 부탁하였고, 婚事が 맺어지면 신랑·신부 양쪽에서 그에 따르는 사례금을 주었다(岳純之, 2005)는 기록이 있다.

婚禮文化는 학습된 행동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달되며 계승되는 사회적·역사적인 산물의 가치를 지닌 혼례행례로 정의 할 수 있다(황경애, 1994). 時代와 생활문화에 따라 변화되었던 우리나라 傳統의 婚姻 風俗은 사위가 女家에 와서 머물다 婚姻을 하고 婚姻 後에도 女家에 머물면서 자녀를 낳아 기르다가 자녀가 다 자란 후 시댁으로 돌아가는 ‘男歸女家婚’의 혼속을 나타내고 있다. ‘男歸女家’란 남자가 여자 집에 의탁한다는 의미(folkency.nfm.go.kr)이며,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들어가서 오랜 기간을 머무르는 제도로써 이와 관련하여 “삼국지 위지 동이전 고구려편”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言約으로 婚姻이 정해지면, 여자 집에서는 본체 뒤에 작은 집을 짓는데 이를 婿屋이라 한다. 날이 저물면 사윗감이 여자 집 문 앞에 와서 제 이름을 말하고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그녀와 함께 유숙할 것을 여러 번 간청한다. 그녀의 부모가 이를 듣고 婿屋에서 동숙하도록 허락한다. 곁에 돈과 비단을 놓고 자녀를 낳아 성장한 후에 부인과 더불어 남자 집으로 돌아간다

(『三國志 魏志 東夷傳』 高句麗傳

基俗作婚姻 言語既定 女家作小屋於大屋後 名婿屋 婿暮至女家戶外 自明跪拜乞 得就女宿 如是自再三 女父母及廳 使就小屋中宿 傍頓錢帛 至生子已長大及將 歸家).

이러한 風俗은 조선 초까지 계속되며, 丈家든다는 어원은 장인, 장모 집에 들어간다는 男歸女家婚에서 나온 말이다(이기숙 외6명, 2009).

『禮記』에서 婚姻이라 하지 않고 ‘昏義’ 라고 하는 이유는 저녁 ‘昏’ 字를 쓰고 해가 저물 때 혼례를 치르기 때문으로(이재은, 2009), 원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아내를 얻고 장가드는 禮는 저녁으로 하도록 했고, 반드시 昏은 陽이가고 陰이 오는 것을 취한다(『禮記』 「昏義」 “謂之昏者 娶妻之禮 以昏” “必以昏者 取陽往陰禮之義”)

또한, 『禮記』 「昏義」 편에서 ‘昏禮’ 란 天地의 理致에 順應하고 인정이 마땅함에 합하는 것이니 반드시 禮를 갖춘 儀式을 행하여야 한다(남상민, 2003)고 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昏禮라는 것은 장차 두 姓씨의 좋은 것이 합침으로써 위로는 宗廟를 섬기고 아래로는 후세를 잇는 것이다. 그러므로 君子가 이를 중히 하는데 이 때문에 婚禮에서의 納采, 問名, 納吉, 納徵, 請期는 모두 주인이 사당에 筵几를 베풀어 告하고 行하며 연후에 문밖에 나가 拜迎해 들이고 揖讓으로 들어와서는 당에 올라 사당에서 명을 받는 바 이는 敬愼으로써 婚禮를 무겁고 바르게 하려는 所以이다.

傳統社會에서 婚禮節次는 『禮記』를 근간으로 하여, 六禮인 納采, 問名, 納吉, 納徵, 請期, 親迎의 절차 형식으로 행하여졌다. 먼저 ‘納采’ 는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배우자로 채택했음을 알리는 절차로 擇婚條件을 따지는

것은 문벌·용모·성품·학식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까다롭게 할 경우 혼인 당사자의 親家와 外家の 유전병의 유무 등 여러 가지를 仲媒人을 통해 자세히 살핀 후 宮습을 보았다. 이어서 問名은 신랑 집에서 婚姻의吉凶을 맞춰보기 위해 신부가 될 규수의 어머니의 성씨(어느택의 딸인가)를 묻는 것이다. 신부집에서는 외가(어머니)가 어느택이며 규수는 몇살이고 생일은 언제라고 회답한다. 신랑 측에서 신부 측으로 신랑의 출생 연월일시를 적은 사주단자를 보내는 ‘納采’를 하면 사주를 받은 신부 집에서는 택일할 준비를 한다. 택일은 ‘納吉’ 또는 ‘날받이’라고도 하는데, 삼복이 낀 달, 농번기, 짝수의 달, 양가 부모가 혼인한 달, 6월과 12월 등은 ‘썩은 달’이라고 하여 피한다. ‘納徵’은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婚姻하겠음을 증거 하기 위해 청.홍의 비단을 보내는 절차이다. 이때에 婚書도 함께 보낸다. ‘請期’는 신랑 집에서 택일을 하여 그의 가부를 묻는 편지를 신부 집에 보내는 것으로, 혼인예식을 거행할 날짜를 청하는 절차이고, 親迎은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맞아오는 禮로 신랑의 집에서 혼인예식을 거행하는 혼례절차 중 가장 중요한 의식절차이다(최배영, 2013).

이러한 六禮는 절차가 복잡하고, 당시의 생활과는 맞지 않아 정착하지 못하였고, 『朱子家禮』를 근간으로 한 『家禮輯覽』과 『四禮便覽』이 편찬되면서 議婚, 納采, 納幣, 親迎의 四禮로 간소화된 婚禮節次가 행해지게 되었다.

結婚仲介인 仲媒는 혼례절차의 ‘議婚’에 속하는 과정으로 『朱子家禮』 <婚禮> 議婚에

반드시 먼저 중매인을 통하여 말을 주고받고 여자 집에서 허락한 후에 비로서 納采한다(必先使媒氏往來通言俟女氏許之然後納采).

라고 하였으며, 『家禮輯覽』 · 『四禮便覽』 에도

반드시 먼저 仲媒人을 보내어 兩家를 往來하면서 婚談을 통하고 여자집의 婚姻 허락을 받은 후에 納采를 한다(必先使媒氏往來通言俟女氏許之然後納采).

라고 하여 仲媒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p>『四禮便覽』 <昏禮> 議昏</p>	<p>반드시 중매를 통하도록 한 내용 (必先使媒氏往來通言俟女氏許之然後納采)</p>

자료: 김동구(2003), 국역 사례편람, 서울:명문당, pp.274.

<그림 II-4> 사례편람

傳統婚禮에서 일반적으로 중매자는 친척이나 친지들이고, ‘연줄중매’ 라 하여 아는 관계의 범위 내에서 ‘議婚’ 이 성립되었으며(장철수, 1995), 혼인의 성립은 ‘의혼’ 의 과정을 통하여 혼인당사자가 아닌 부모와 중매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때 특히 가문과 가문의 결합을 강조하였다

(박경휘, 1992).

또한, 朱子는 『家禮』 <婚禮>에서 먼저 혼인의 연령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남자의 나이 16세에서 30까지, 여자의 나이 14에서 20까지로 한다. 사마온공이 말하되 옛날에 남자는 30에 장가들고 여자는 20에 시집간다 했으나 이제 법령으로 남자 나이 15, 여자 나이 13 이상이면 모두 婚姻을 허락하였으니, 이 說은 고금의 道를 참조하고 예절과 법령의 중도를 참작한 것이고, 천지의 이치에 순응하고 인정에 합당한 바이다.

사실상 朱子에 의해 『家禮』가 저술될 당시 중국 사회에서는 早婚의 風俗이 행해져 무리를 빚고 있었다(김도기, 1981). 이로 인해 사회제도적으로 天地의 理致에 順應하고 人情에 합당한 婚姻의 연령을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지어 주자는 『小學』 <明倫篇>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夫婦는 人倫의 天綱이요, 天壽의 싹이다. 세속에 너무 일러, 미처 부모의 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녀를 갖게 된다. 이로 인하여 교화는 불명확해지고 수명이 단축된다.

즉, 부모의 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린 나이에 혼인을 하는 것은 人倫에 어긋나는 것이며 결국에는 혼인 당사자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함을 경계하였다.

또한, 『國譯 四禮便覽』 <卷之二> <昏禮> 議昏에 婚姻을 논의함에서는, 혼인연령에 대해 남자의 나이 16에서 30까지, 여자의 나이 14에서 20

까지로 정하고 있다(男子,年十六至三十,女子,年十四至二十).

사마온공이 말하되, 옛날에 남자는 30에 장가들고, 여자는 20에 시집간다 했으나, 이제 법령으로 남자 나이 15, 여자 나이 13 이상이면, 모두 장가와 시집을 허락하였으니, 지금 이 말은 예전과 지금의 법도를 참조해서 禮節과 法令의 中道를 참작하였으니, 天地의 理致에 順應하고 人情의 마땅함에 合致된 것이다.

또 말하기를, 세속에 품 안의 어린 시절을 사랑하여 가벼이 혼인을 허락하거나, 또는 태중에 있을 때 혼인할 것으로 지목해 놓았다가, 장성함에 이르러서 혹 불초 무퇴하다거나, 혹 몸에 고약한 병이 있다거나, 혹 집이 가난해서 굶어 죽게 되었다거나, 혹은 喪服이 계속 되어, 마침내 신의를 버리거나, 약속을 어기는 이가 많았으니, 우리 집안의 아들딸은 반드시 성장을 기다린 연후에 婚姻을 논의하기 때문에 평생에 이런 후회는 없어졌다. **반드시 중매를 시켜서 왕래하여 통하게 하고, 여자 집의 허락을 기다린 뒤에 采綴을 보낸다**(司馬溫公曰古者,男三十而娶,女二十而嫁,今令文,男年十五女年十三以上,并聽昏嫁,今爲此說,所以參古今之道,酌禮令之中,順天地之理,合人情之宜也。○又曰世俗,好於糶褻童幼之時,輕許爲昏,亦有指腹爲昏者,及其既長,或不肖無賴,或身有惡疾,或家貧凍餒,或喪服相仍,遂至果信負約者多矣,吾家男女必俟既長然後議昏,故終身無此悔也,必先使媒氏往來通言俟女氏許之然後納采).

또한, 婚談이 오갈 때 상대 집안의 경제적 富를 보고 혼인을 결정하지 말라고 경계하였다. 『家禮』〈婚禮〉 議婚편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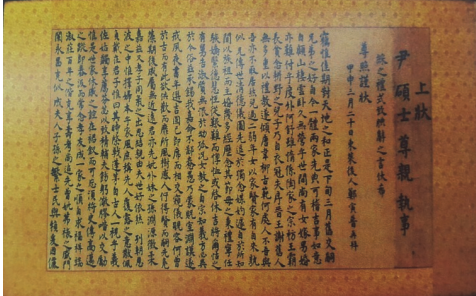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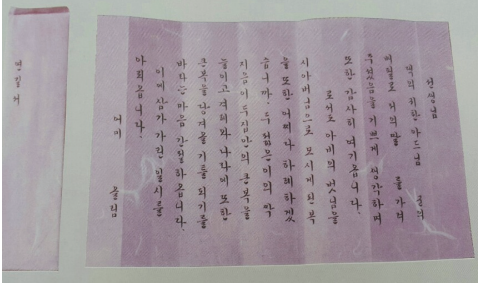
반드시 仲媒를 시켜 왕래하여 말을 통하게 하고, 신부집의 허락을 기다린 뒤에 納采를 한다. 사마온공이 말하되, 무릇 혼인을 의논함에는 마땅히 먼저 신랑 신부의 성행과 가정의 법도가 어떠한가를 살펴야 하지 富貴를 흠모해서는 안된다. 신랑이 진실로 현명하다면 지금은 비록 빈천하지만 어찌 장차 부귀롭게 될지를 알겠는가, 진실로 불초하면서도 지금은 비록 부자로 넉넉하나 어찌 장차 빈천하게 될지를 알겠는가, 한 집안의 흥망성쇠는 부인에게 달려 있다. 진실로 한때의 부귀만

을 흠모해서 장가를 들면 그 처는 자기의 부귀에 힘입어 남편을 업신여기고 시부모에게도 오만불손하여 교활하고 질투하지 않을 자가 드물 것이니 후일에 환난이 심할 것이나, 설사 신부 집의 재산으로 부자가 되거나 신부 집의 세도에 힘입어 귀인이 된다 하더라도 진실로 대장부의 기개를 가진 사람이면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必先使媒氏往來通言媿女氏許之然後納采. 司馬溫公曰凡議昏姻, 當先察其壻與婦之性行及家法何如, 勿苟慕其富貴, 壻苟賢矣, 今雖貧賤, 安知異時不富貴乎, 苟爲不肖, 今雖富盛, 安知異時不貧賤乎, 婦者, 家之所由盛衰也, 苟慕其一時之富貴而娶之, 彼挾其富貴, 鮮有不輕其夫而傲其舅姑, 養成驕妒之性, 異日爲患, 庸有極乎, 借使因婦財以致富, 依婦勢以致貴, 苟有丈夫之志氣者, 能無愧乎).

이상에서 朱子는 『家禮』 <婚禮>의 議婚 부분에서 婚姻을 의논할 時의 몇 가지 요건을 언급하고 있다. 婚姻은 仲媒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때 富貴를 헤아리는 것은 경솔한 것이니 婚姻當事者의 性行과 家法の 여하를 살펴야 할 것을 당부하였다. 즉 빈부와 귀천 보다는 혼인당사자들의 연령과 덕행 그리고 兩家의 法道와 길흉사의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것이다 (이길표, 1983). 이 외에도 『家禮』 <婚禮> 議婚에서는 [婚姻當事者와 主婚者는 碁年이상의 喪이 없어야 成婚할 수 있다.] 고 하였다. 즉 4촌이내 近親이 喪服을 입는 기간에는 婚姻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文獻 資料에 의하면 高麗 初에 이르기까지도 婚姻은 남녀의 자유로운 교제에 의하여 맺어지는 自由婚이 성행하였다. 그러나 고려 중기로부터 원(元, 몽골)에 의한 貢女政策으로 인하여 고려사회에 조혼풍이 성행하게 됨에 따라 재래의 자유혼은 부모의 의사에 의하여 仲媒를 통하여 진행되는 이른바 仲媒婚으로 변화되어 갔다. 그리고 유교의 영향으로 가부장권이 확고하게 강화되면서 朝鮮朝에 와서는 가부장이 주혼자로 되었으며 전통적인 혼인형식은 仲媒婚을 본위로 삼았다(김명나, 1998).

仲媒는 혼인을 의논하는 절차의 첫 번째 과정인 ‘議婚’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과정으로, 仲媒人을 통해 상대의 의증과 조건을 알아보고 청혼서와 사주단자, 허혼서와 연결단자 등을 주고받았다.

	
<p>혼서(동래 정씨 家) -동래 정씨 가의 혼서이다. 혼서는 일정한 양식에 맞추어 쓰는 것이 보통이나 동래 정씨 가에서는 신랑의 아버지가 정중한 마음과 공경의 자세로 쓴 서신을 보냈다.</p>	<p>연길서(동래 정씨 家) -연길을 신랑집으로 보낼 때 함께 가져갔던 연길서이다.</p>

자료: 이길표(2000), 朝鮮後期 서울 班家の 昏禮, 서울: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 p.142.

<그림 II-5> 혼서지와 연결서

다음은 議婚 과정에서 婚主가 仲媒할 사람에게 자식의 婚談을 부탁하는 글이다.

伏惟 辰下 尊體候 以時萬重 仰素區區之至.

弟家兒 親事 年及加冠 尙無指合處 近聞

00洞 0氏が 閨養 淑哲云 能其 勸誘 使結秦晋之誼 如何.

餘不備禮 謹拜上狀.

앞드려 생각건대 日下에 존체후가 시절 따라 만중하시기를 늘 구구함이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르고 있습니다. 아우의 집아이 친사(혼사)이운데 나이가 관례를 더 하기에 이르렀으되 아직 指合處(손가락이 합쳐질 만큼 마땅한 곳)가 없습니다. 근자에 듣자오니 00동의 0씨 집안에서 기른 규수(딸)가 밝고 현숙하다 하는데 능히 권유하시어 그로 하여금 秦晉之誼(춘추시대 진나라와 진나라 군주 집안끼리 대대로 혼인을 한 데서 그와 같은 사돈의 우의를 이름)를 맺게 하여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의를 갖추지 못한 것을 남긴 채 삼가 절하며 글을 올립니다.

이 같은 편지를 받은 중매인이 규수의 집에 가서 말을 전하며 혼담을 진행시키면 여자 집에서 좋을 경우 다음과 같이 허락하는 서신을 중매인에게 보낸다(권광욱, 1994).

伏惟 [春元] 尊體 動止候萬重 仰慰區區之至.

弟女兒 親事 不鄙寒陋 如是勤權 敢不聽從.

餘不備 伏惟尊照 謹拜上狀.

앞드려 사뢰건대 [이른 봄날에] 존체의 動止候가 만중하심을 위안드리며 구구함이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르웁니다. 아우의 女兒 혼사는 寒微하고 비루한 것을 개의치 않고 이처럼 힘써 권하시니 감히 듣고 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갖추지 못한 것을 남긴 채 앞드려 높이 비취주심을 생각하며 삼가 절하며 글월을 올립니다.

이러한 의혼과정에서 양가는 仲媒人을 통해 혼인당사자의 연령, 동성동본 여부, 집안의 사정과 가풍, 유전적 질병, 喪事의 유무 등을 논의하였으며, 혼인에 필요한 자격, 조건, 의리 등에 관한 것을 말하며, 여기서 혼인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모의 뜻에 따라 혼인이 의논되고 청혼이 이루어졌다(김옥희 외, 1995)

고려시대부터 이루어져왔던 가족제도에 의하면, 男歸女家婚은 사위와 외손자를 아들 또는 친손자와 동일시하며 대등한 위치에 간주하도록 하였다(김정규, 2009). 그러나 유교가 들어오면서 새롭게 도입된 가부장적 가족제도는 가장과 가족 성원의 관계를 부자관계 중심으로 하는 유교적인 윤리인 孝가 근간이 되어, 부자간의 주종관계를 절대시하였고, 五倫이 모든 사회관계의 기준이 되었다. 유교의 사상이 생활에 기본이념이 되어, 신분의 계급차이가 뚜렷이 나타났고, 의식과 절차를 중요시 하는 풍토가 이루어졌으며(노주현, 2001), 이는 혼례문화에 있어 부모의 의견이 중시되는 혼속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는 바다.

조선시대에는 유학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유교적 지배질서를 확립하고자 혼인 풍속을 시정하려고 노력하였으며, 太祖가 건국 당초부터 冠婚喪祭의 예를 강조한데 이어, 太宗과 世宗의 노력에 의하여 15세기에 五禮儀가 선정된 것을 비롯하여 법전에도 「혼가」에 관한 항목이 정해지면서 혼례의 법제상 규정도 구비되어 갔다(장병인, 1997). 우리나라에서 혼례가 체계화되고 형식을 갖추게 된 시기는 지배계층은 조선 초기에 학맥에 의한 중매를 하였고 사대부가에서는 이 과정을 ‘의혼’이라 칭하였으며, 일반서민은 조선 말기부터 확산되었으며 주변에 인맥이 많은 媒婆를 통한 중매를 하였다(folkency.nfm.go.kr).

이때부터 혼인은 고려시대의 자유연애에 의한 것이 아닌 중매결혼이 일반적이었고 婚期를 맞은 신랑·신붓감을 둔 집안에서는 먼저 仲媒人을 보내 상대에 관한 여러 정보를 입수 한 후, 양가의 의견을 알아보고 집안 어른들끼리의 협의에 의하여 혼인을 결정(장철수, 1995)하였으며, 혼인 당사자의 의사보다는 부모의 의사가 중요했고, 반드시 仲媒人이 있는 것이 禮였다.

2) 開化期의 결혼중개

開化期라는 명칭과 시기는 논란이 될 수 있으나 본 장에서는 장철수(1995)의 연구를 바탕으로, 1840년대 朝鮮王朝가 붕괴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나 자주독립을 되찾기 이전까지로 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시기는 천주교, 동학, 그리고 개신교 등과 같은 신종교 및 외래종교의 영향으로 한국사회는 종전의 유교적 가치관에서 탈피, 새로운 세계관 및 가치관을 형성하였으며, 이것은 곧 婚禮·喪禮·祭禮와 같은 生活樣式에 영향을 미쳤다(장철수, 1995).

개항 이후 西歐 문화의 유입과 신교육의 발달로 인해 傳統婚禮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된 것이 바로 婚姻類型이다. 傳統社會에서의 婚姻이란 부모의 뜻대로 배우자가 정해지고, 혼인 당사자의 의견보다 집안의 가장을 중심으로 한 가족과 문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혼례과정에서 정작 혼인 당사자들의 역할은 전무하거나 미미하였다.

선보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면 양가에서는 모두 仲媒人을 통해 상대방의 사주를 알아내어 궁합을 보고, 지방에 따라서는 선보기에 앞서 궁합을 먼저 맞춰보았고, 궁합 결과가 좋으면 양가가 혼인에 합의했다. 결국 혼인이 성사되기 전에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에 혼인 당사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채, 주로 仲媒人을 통해 혼담이 오고 가고 양가의 어른들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당시의 풍속이었으며, 혼인은 仲媒人을 중심으로 한 중매혼이 성행하였고, 혼례 시에는 동네잔치가 벌어졌고 십시일반 각 가정에서 잔치를 위해 물품이나 축의금을 보태기도 하였다(이향숙, 2012).

그러나 이러한 혼인은 1894년 갑오경장 이후로 朝鮮에 자유주의의 사조가 들어오면서 婚姻에 대한 관념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부모가 정해

준 배우자를 거부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사랑을 기반으로 한 연애혼인을 주장하기 시작한다. 1910년대 중반까지는 전통적인 혼인 관행인 仲媒에 새로운 형태의 戀愛가 접목되는 시기였다면, 1910년대 중후반부터 1920년대 중반까지는 자유연애라는 근대적 사조의 유입으로 연애의 비중이 높아지는 시기로, 사회적 분위기가 仲媒에서 戀愛로 넘어오는 시기이다. 그러다 1930년대에 이르면 혼인 유형이 연애와 중매를 절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이영수, 2012).

戀愛는 서구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번역어로서, 기존의 사랑과 구별되는 새로운 사랑의 표현 방식이었으며, 우리사회에서 ‘戀愛’라는 어휘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12년 ‘매일신보에 발표된 조일제의’ 쌍옥루이다(김지영, 2007). 戀愛를 선호하는 경향은 여성에게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이러한 경향은 신여성의 등장과 함께 그들이 주장했던 自由戀愛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진보적인 분위기와 근대적 여성교육이 도입되면서, 傳統的인 여성상을 대체할 대안적 여성상으로 등장한 것이 新女性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아의 발견과 자유연애에 의한 婚姻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서 自由戀愛 관념과 근대적 의미의 혼인 개념이 수용되기 시작했다.

1929년 9월 12일 동아일보 <며느리구하는 마음>의 기사를 보면 “며느리를 구할 때 그 부모의 편의를 많이 생각하여 온 것이 조선재래가정의 일반적인 사실이다. 이것은 재래대가족제도의 한 폐단으로 며느리를 시부모의 봉양 분위로 고르는 경향이 없지 않았고, 자유결혼이나 자유연애가 일반사회에 이해 되지 못하였으며, 중매결혼이 의연히 유행하는 조선의 현상이니 부모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어서 부모를 위한 결혼인지 결혼당사자를 위한 결혼인지 그 동기와 의미를 해석하기 어렵다. 그러나 세상의 형편이 전과 다른 까닭에 子婦를 얻어 재물을 보겠다는 썩어 먹은 생각은 애초에 불가하다. 현대의 젊은이들

은 그러한 것으로써 자기의 행복을 희생하기 싫어할 만큼 개성이 발달된 것을 알아야 된다.”

고 하여 당시의 유행에 결혼이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사화하고 있다.

전통혼례절차는 西洋 종교와 새로운 사조의 영향으로 점차 새로운 양상으로 변해갔다. 절차의 간소함 때문에 이른바 新式 결혼식이 舊式 혼례를 물리치고 조금씩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박영숙, 2011).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입되는 서구의 신사조의 영향에 의해 ‘新式婚禮’가 유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자유혼의 형식, 약혼식이라는 절차, 함팔기, 청첩장, 예식장, 주례와 사회자, 혼인서약, 주례사, 피로연, 신혼여행 같은 새로운 내용의 혼인과정을 포함하였다. 도시에서는 ‘新式’이 농촌에서는 ‘舊式’ 혼례가 하는 傳統의 婚禮가 지배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新式’ 結婚式은 “西洋의 婚禮式”을 말하는 것으로 1888년 3월에 처음으로 아펜젤러가 貞洞禮拜堂에서 감리교 신자인 한용경과 과부 박씨의 주례를 맡아 혼례를 이끌고(이이화, 2005), 1890년 2월에 그의 부인인 盧씨가 남신도와 여신도의 주례를 맡아 혼례를 올린다. 이 때 신랑의 복장은 사모관대였고 신부는 족두리를 쓰고 활옷을 입었으며 얼굴에는 연지곤지를 찍었다(고부자, 2003). 당시 전통혼례의 경우 신부의 집에서 혼인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그 절차나 혼례복도 전통의례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기독교 전파에 따른 교회 설립으로 新式 結婚式이 점차 늘어 갔으며 1915년 최활란의 경우 新式婚禮의 사례로 유명한데, 그 당시 희귀한 물건이었던 면사포를 쓰고 서양식 드레스를 입은 것으로 화제가 되었다. 이후, 1920년 4월 15일 西洋式의 모닝코트와 면사포를 쓰고 한 나혜석과 김우영이 서울의 貞洞禮拜堂에서 結婚式을 올렸는데, 이를 계기로 結婚式場은 매우 다변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테면, 禮拜堂으로 불린 교회와 절,

부민관, 동아일보사와 조선일보사 강당 등 공공기관이나 명월 관 같은 대형 요리 집까지 식장으로 이용되었다(숙명여대 아세아 여성 연구소, 2004).

新式 婚禮式이 들어와 민간에 정착되기에는 많은 저항이 있었으며, 관습에 의해 만들어진 혼례가 쉽게 변하지 않았다. 전통혼례는 하나의 과정으로 중매를 통한 청혼에서 시작되어 허혼에 이르기까지 禮를 다해 감사 인사를 올리고, 이에 대해 다시 답례를 하고 날짜를 잡아, 醮禮를 치르고, 신부 집에 머물다가 신랑 집으로 돌아가 시부모께 인사를 드리고, 시집에 들어간 신부가 다시 친정부모에게 와서 인사를 드려야만 혼인의 모든 절차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신식 혼인은 ‘結婚’이라 하여 혼인을 맺는다는 의미의 맺을 ‘결(結)’字를 사용하는데, 전통혼례의 ‘혼인을 치른다’는 표현은 한번 치른 것이므로 되돌리거나 물릴 수 없다는 뜻으로 쓰였고, 결혼의 맺는다는 것은 묶은 것이므로 풀릴 수도 있다는 의미를 가진 말이다(박정숙, 2004). 따라서 전통혼례를 고수하려는 집안에서는 신식혼례를 반대하여 중매인을 통해 婚談이 오갈 때 예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議婚’의 전체 조건이 되기도 하였다(권광욱, 1994).

일제강점기에는 처음에는 전통적인 혼례가 극히 간소화되었다가 ‘新式 結婚式’이라는 형식으로 바뀌면서 ‘新式’과 ‘舊式’의 혼합 형식으로 변하고 이때에는 ‘천도교식’이나 ‘기독교식’과 같은 종교적 의례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

開化期 이전에는 婚姻이 친인척과 이웃 또는 중매쟁이의 仲媒로 양가 부모의 合意하에 성립되었으나, 개화기 이후엔 서서히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였다. 대개 고모가 仲媒를 서면 잘 산다고 하며, ‘잘하면 옷이 한 벌, 잘못되면 뺨이 석 대’라는 말이 있었고, 성사되면 대개 옷 한 벌 해주는 것이 관례로 정착되었다(송재용, 2007).

1934년 7월 16일 동아일보 ‘중매하고 매맞어 생명이 위독’

“황해도 송화군 운유면에서 과부 중매하고 얻어맞은 일이 있다. -중략-

중매인 이씨는 남자 김모씨와 과부 이모라는 여자를 중매하였는데 둘이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김모씨는 중매인에게 돈 삼십전을 주었다는데 중매한 이양순은 돈 삼십전 주는 것을 還送하고 김씨댁에 가서 보수를 달라는 뜻을 전하자 김씨 첩이라는 여자가 중매한 이씨를 고무신으로 구타하여 귀고막이 상하고 그 외 중상하여 중매한 이씨 부인은 생명이 위독하다 한다”

는 기사를 보면 당시에 중매 이후에 성혼이 되었을 경우 사례비 문제로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39년 3월 9일 동아일보 ‘엄처시하의 졸장부 살 수 없어 이혼소송’

“아내의 무지폭행에 동거할 수 없으니 살 수 없다는 졸장부의 이혼소송이 경성지방법원 민사부에 날라들었다. 소장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중매결혼으로 정식 결혼은 하였으나 동거하는 중에 점점 아내의 素性이 드러나 시모에게 불효극한 행동을 할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장소를 불문하고 폭언 폭행을 하고 덤비어 그간 오랫동안 은인자중하다 못하여 할 수 업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라는 기사를 보면 당시에 중매로 결혼을 했으나 시모에게 불효하는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통사회에서는 結婚의 의미가 개인의 결합이라기보다는 兩家의 결합이라는 성격이 강하였으며, 따라서 가족의 의사가 結婚決定에 중요한 要因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근대화 과정에서 출현한 남녀평등 사상의 지향은 사회제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결혼생활에서의 여성의 역할도 변화하게 되었다(장하경, 1996). 즉, 사회변동이 결혼 가치관 및 결혼의례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결혼

가치관의 태도 변화는 결국 결혼의례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結婚 풍습은 1930년대에 또 한 차례 큰 변화가 있었다. 1934년 조선 총독부가 “儀禮準則”을 제정 공포하여 우리 혼인의 생활문화를 무시한婚禮 전반에서의 인위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朱子家禮』에 따른禮의 기준을 적용시킨 것으로 傳統婚禮의 과정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신식혼례를 실행하도록 하였다. 이는 명백하게 傳統的인 冠婚喪祭문화를 바꾸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한 것이었다. 自由婚의 형식으로 약혼식이란 절차의 도입, 함 팔기, 청첩장, 예식장, 주례, 혼인서약, 피로연, 신혼여행 같은 새로운 내용의 혼인과정을 탄생시켰다. 또한 이때부터 婚姻이란 말 대신 結婚이란 용어가 쓰였는데 結婚은 ‘婚姻을 맺는다(結)’는 의미이다(이병도, 2014). 1934년 ‘儀禮準則’은 전통 관혼상제의 풍습을 대폭 간소화한 것이나 우리나라의 전통성을 상실시키고자 함이었다고 사료된다.

3) 光復以後의 결혼중개

1945년 8월 15일 일제 식민통치로 벗어난 광복이후부터 사회 구조의 변화가 큰 폭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데올로기에 의해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전쟁 후 혼란한 사회상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통사회의 근간을 이루었던 농촌사회는 와해되었으며, 도시로 인구이동이 본격화되면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의례에 영향을 미쳤고, 혼례문화도 변화되었다.

혼례의 의의 및 절차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 변천과정과 의미의 변화에 대한 고찰(박혜인, 1987; 박혜인, 1991; 황경애·이길표, 1994)을 보면 전통혼례 절차에서부터 지속되고 있는 부분과 변화된 부분, 그리고 새로 도입된 혼례양태를 찾아볼 수 있다. 박혜인(1991)의 조사에 따르면, 광복직후(1945년)까지도 대부분 仲媒人을 통하여 부모의 의사로 혼인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배우자 선택 유형에 많은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시기까지도 혼인 전에 궁합을 보고 사주단자를 주고받으며, 길일을 혼례일로 잡는 등의 혼속은 계속되었다. 한편 광복 후 직접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한 서구의 문물은 우리의 생활문화를 크게 바꾸어 놓기 시작하였고, 생활양식의 변화와 더불어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까지 가져오게 되었다. 이후 자유연애, 신혼여행 등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된 시기로 볼 수 있다.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미국의 경제원조는 한국인들에게 미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서양의 生活樣式을 수용하도록 하여 일반적인 개인의 사고와 가치관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하였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 婚姻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관이 변화되어 결혼식 자체도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하였으며, 婚禮 節次도 점차 西洋의 형식으로 변하기 시작하여 급기야 1950년 후반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의 婚禮 형식이 완전한 서양식으로 일반화되기에 이르렀다(최선진, 2007).

1956년 국민재건운동본부에서는 “標準儀禮”를 제정하여 약혼식 등의 혼인잔치는 폐지하고, 혼례식은 주례를 중심으로 예식장에서 진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한국사회는 근대화 이후 일본문화를 비롯한 서구문화가 유입되면서 1960년대부터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고, 이와 함께 급속한 산업화 및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을 이루어왔다. 이와 더불어 사회의 전 부분에 커다란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여 산업, 경제구조의 변화는 물론, 가족구조에 있어서도 핵가족화가 가속되었으며,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와 더불어 개인이 갖는 생활양상 및 인간관계, 그리고 가치관도 많이 달라져 우리의 생활문화는 점점 서구화 되어가는 일면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구조 속에서 가족형성의 출발점이 되는 결혼에 관련된 법이 몇

차례 개정되었으며 이에 의해서 실제 혼인 의례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강정립, 2001).

1961년, 5.16혁명 이후 가정의례의 실태를 바로잡고, 생활을 실질적이고 건실하게 하여 국가 재건을 위해 정부 주도의 국민운동 형식으로 보건사회부에서 ‘標準儀禮’가 공포되었으며, 기존의 가정의례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면서 전통적 가정의례를 시대 변화에 맞추어 표준화하여 범국민적 생활 규범으로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그를 위해서 기존 전통사회의 가정의례의 개념을 크게 탈피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주었다.

1968년 6월 13일 경향신문 “仲媒婚姻이 77%나”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의 인구센서스결과에 따른 인구動態조사에서 평균 결혼 연령은 남 27.9세, 여 23.7세로 중매혼인이 77%로서 압도적이며 그 다음이 절충 방법 12%로 나타났으며 시도별로 보면 중매결혼을 가장 많이 하는 도는 전남 84%인 것으로 나타났다.”

는 기사를 통해 당시에 연애혼 보다 중매혼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69년 1월 16일 법률 제 2079호로 ‘家庭儀禮準則에 關한 法律과 施行令’을 公布하여 法律化되었고, 이를 근거로 ‘家庭儀禮準則’(1969년 3월 5일 대통령 고시 제15호)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의례의 상업화와 과시 소비적 의례문화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가정의례에 있어 허례허식의 일소와 의식절차의 합리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하였다.婚禮에서 약혼식과 잔치, 사주 및 혼서지의 교환, 청첩장, 화환, 축사, 답례품 및 피로연을 폐지하였다. 검소와 간소화를 장려하는 ‘家庭儀禮準則’은 오히려 고유성과 지방특성마저도 점차 소

멀하게 (장하경, 1996)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家庭儀禮準則의 체계 구성을 보면 4개 4障, 71개 條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장은 總則 婚禮 喪禮 祭禮로 이루어져 있다. 각 장속에는 하위 조항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제1장 總則은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제2장 婚禮는 약혼, 혼인, 혼인초청, 혼례식장소, 주례, 혼례복장, 혼례 꽃, 혼례식순, 혼인서약, 성혼선언문, 혼인신고, 신행을, 제3장에서는 喪禮를 제4장에서는 祭禮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준칙의 조항들은 가정의례의 의식 절차에 관한 기준과 양식들을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 중 婚禮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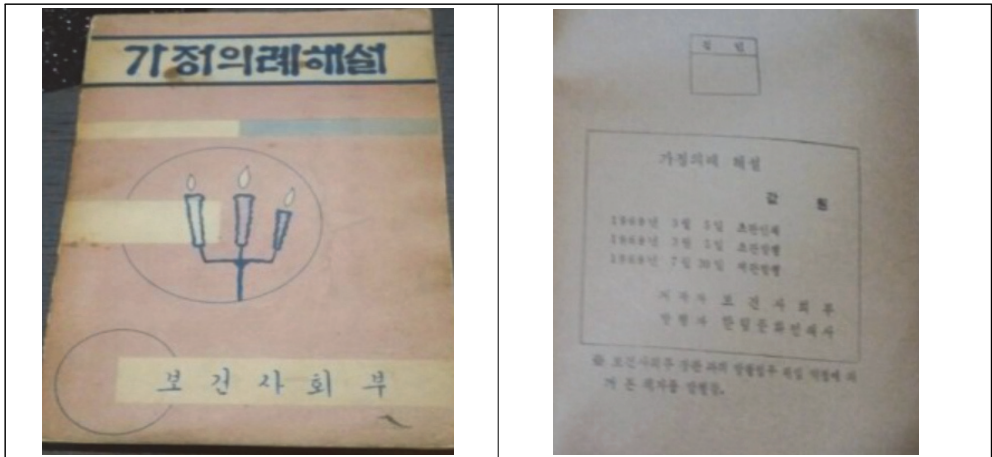
婚禮는 ①호적등본과 건강진단서를 첨부한 약혼서를 교환하고 약혼식은 하지 아니한다. ②혼례식 청첩장은 내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혼례 답례품과 피로연은 하지 아니한다.

「家庭儀禮解說」에는

“첫째, 복잡하고 허례허식으로 치우친 가정의례를 국민 모두가 쉽게 알고 실행하게 하여 어느 사람도 어색한 느낌이 없으면서 간편하고 정중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 기준의 설정을 기하고자 하며, 둘째, 지역이나 씨족에 따라 각양각색이던 지금까지의 가정의례를 통일된 기준에 따라 종파별로 시행되고 있는 종교의 예식까지도 그 기본교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이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범국민적 생활규범을 도출하고, 셋째, 합리성과 능률 위주의 현대적인 생활에서 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엄숙하고 경건하여야 할 가정의례가 지나치게 간소화 되거나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최저 선을 제시하는 것” 이라고 하였다.

1973년에는 허례허식 행위를 법적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家庭儀禮準則에 관한 法律’ (1973.3.13. 법률 제2604호)을 근거하여 ‘家庭儀禮準則’ (1973.5.17. 대통령령 제6680호)을 마련하였고, 기준

儀禮(婚禮·喪禮·祭禮)의 범위에 회갑연을 추가하여 가정의례의 간소화 범위를 더 강화하고 기존의 4장 71조에서 5장 24조로 대폭 단순하게 규정하였다.



자료: <http://blog.naver.com/kth1296>

<그림 II-6> 가정의례해설

1973년 12월 12일 경향신문 ‘歐美서 수지맞는 결혼상담소’

“결혼상담소는 이미 18세기 때부터 유럽각지에서 성업을 이루어왔다. 결혼상담소를 찾아오는 고객은 대부분 묘령의 따님을 둔 부모들인데 이들은 「결려든」 신랑감의 사회적 지위와 장래성에 따라 두둑한 수수료를 낸다. 이제 舊式의 중매결혼은 사라지고 결혼상담소 이용이 일반화되고 있다. 실천적인 것이 숭상되는 미국에서는 자동세탁소들이 열렬한 애인수색작전의 중심지를 이루고 있다.”

이 기사를 보면 유럽에는 이미 결혼상담소가 성업 중이므로, 앞으로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舊式의 중매결혼은 사라지고 결혼상담소의 이용이 일반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고 있다.

1993년, ‘家庭儀禮에 관한 法律’ 로 개명하였다(장철수, 1995). 이때부

터 혼인의 주도권이 혼주에서 婚姻當事者로 대폭 이양되었고, 婚姻節次는 간소화 되었으며, 사회일각에서 전통 혼인과정의 재현을 시도하였으나 서구식 혼인문화가 공공연히 정착되었다(이병도, 2014)

1994년 11월 3일 경향신문 “중매도 PC 통신시대”

“컴퓨터통신을 통해 맞선상대를 만나는 배우자정보서비스가 등장, 결혼풍속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잘되면 술이 석잔, 못되면 뺨이 석대」라는 중매쟁이 역할을 컴퓨터가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데이콤은 전국적으로 6만여명의 미혼남녀를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는 결혼정보전문회사인 (주)에코러스와 계약을 맺고 종합정보통신망인 천리안을 통해 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다. 신세대 취향에 들어맞는 컴퓨터 중매쟁이의 등장으로 가족·친지 등의 소개나 결혼상담소를 통해 이루어지던 지금까지의 결혼 풍속도가 크게 바뀌리라는 것이 데이콤측의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천리안이용자가 컴퓨터를 통해 제공되는 에코러스회원의 자료를 검색, 자신의 조건과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상대와 만날 수 있도록 중매역할을 해준다. 성격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 정보는 과학기술처에 특허 등록된 「킬러도형 심리테스트」 등을 통해 성장배경과 사회적 환경이 다른 두 남녀의 성격을 조화시켜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후보를 연결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 기사를 통해 기존의 결혼중개업이 본격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하여 고객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9년, ‘健全家庭儀禮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法律’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家庭儀禮準則’은 폐지되고, ‘健全家庭儀禮準則’이 새로 제정되었다(이문희, 2014). 家庭儀禮로서 婚禮·喪禮·祭禮 및 壽筵禮 등의 내용과 그 儀式節次를 정하였으며, 1999년 새로이 제정된 ‘健全家庭儀禮準則’에서는 이전의 ‘家庭儀禮準則’에서 정한 가정의례범위에 成年禮를 포함하였다.

‘健全家庭儀禮準則’ 제2조 제1항 “婚禮” 라 함은 약혼 또는 혼인에서 진행까지의 의식 절차를 말하며, 관행에서는 婚姻이나 婚禮라는 용어보다 結婚과 結婚式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婚禮에서는 예식은 간소하게, 약혼식은 부모 등 직계가족만 참석하여 건강진단서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5조 각1항 각호의 증명서 일부 또는 전부(당사자합의로 필요한 것만)를 첨부한 약혼서를 교환하도록 하였다.

<표II-4> 가정의례준칙의 변화

년도	명칭	의미
1934	儀禮準則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公布
1956	標準儀禮	婚姻殘置를 폐지하고, 婚禮式은 主禮에 의해서 예식장에서 거행
1961	標準儀禮	정부 주도의 정책인 국민운동으로 전개 보건사회부에서 公布
1969	家庭儀禮準則	‘家庭儀禮準則’ ‘家庭儀禮準則에 관한 法律’ 과 施行令을 공포하여 법률화
1973	家庭儀禮에 관한 法律로 改名	婚姻節次는 간소화 됨
1999	健全家庭儀禮準則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

해방 후 미군정을 통해 유입된 미국문화는 자유주의, 합리주의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생활양식을 크게 변화시켰다. 혼인의 형식은 크게 간소화되고 혼인과정은 보다 더 실리를 추구하게 되었고, 혼인과정은 대폭 생략되고 혼례절차의 見舅姑禮는 예식장에서 하는 폐백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근대 민주사상이 전파되어 여권이 확장됨에 따라 남녀평등 사상이

고취됨으로써 婚禮에도 변화가 일어나 혼인에서 부모가 주혼자로 되었던 중매혼은 줄어들었으며, 혼인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자유혼이 본격적으로 유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현대에도 여전히 仲媒婚이 행해지고 있으며, 자유혼과 함께 절충 혼도 새로운 혼인 성립 유형으로 나타났다(황경애, 1994). 배우자선택의 조건도 과거의 가문이나 문벌 등이 아닌 혼인 당사자 간의 애정이나 성격, 건강 등이 강조됨을 알 수 있어 배우자의 가정 배경보다는 개인적 배경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생활 모든 부분에 깊숙이 침투된 상업주의는 사회 구성원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면서 전통적 성격이 잔존해 있던 각종 의례의 형식과 성격의 변화를 촉진시켰고, 90년대 이후는 서양식 결혼 풍습이 보편화되어 전통적 혼례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는 급속하게 도시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결과이며 생활문화 전반을 무비판적으로 흡수하고 서양식 생활 양식과 제도를 따른 결과이다.

선보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면 양가에서는 모두 仲媒人을 통해 상대방의 사주를 알아내어 궁합을 보고, 지방에 따라서는 선보기에 앞서 궁합을 먼저 맞춰보는 곳도 있었다. 궁합 결과가 좋으면 양가가 혼인을 합의했다. 결국 혼인할 당사자의 의견은 고려되지 않고, 양가의 어른들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당시의 풍속이었다.(조효순, 1988)

혼인은 사회의 제도적 측면에서부터 관행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관계되어 있기에 법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인문과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혼인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에 주로 기.미혼 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로부터 시작하여 1980년대에 이르러 이길표(1982)의 “가례를 통해 본 한국인의 의식구조 연구” 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필두로 하여 혼인행사 및 절차상의 의식과 행동에 관련된 일련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옛날 혼례절차는 번거로운 면이 있었으나 그 근본은 무조건 성대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간결하면서도 정중하게 하는 것이었으며, 신식 혼인에 있어서도 절차를 다소 간소화하고 방법을 달리 하지만, 그 본래의 참뜻은 변하지 않아서 정중하고 소홀하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혼례의 식순은 보편적으로 1920년대 의례의 간소화 이후 시작된 서구식 혼례를 따르고 있으며, 예식업의 상품화 전략과 의례의 간소화가 맞물려 정부의 권장 안에 전통혼례의 폐백이 결합된 구조를 갖고 있고, 혼례에서 폐백과 피로연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본예식->폐백->피로연->신혼여행) 21세기 한국인들이 하고 있는 공통적인 독특한 혼례로서 자리 잡고 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소비자가 가지는 소비지향의 변화는 '삶'의 질에 관한 욕구와 그 맥락을 함께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생활문화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혼례문화도 古來의 男歸女家婚에서 조선시대의 가부장적 혼례문화로, 혼인의 주체가 당사자보다 부모와 중매인에 의해 주도되는 변화를 거쳐 현대에는 다시 처가 중심의 장가드는 혼례문화로 회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향숙(2012)의 연구에 의하면 경주최씨 중부의 인터뷰에서 幣帛을 생략하고 단, “혼례하면 장모님이 애들을 돌봐주고 장모님 사랑이라도 많이 주면 좋겠다”고 한 예를 보더라도 현대의 결혼문화가 처가 중심의 문화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結婚仲介業 등장 이후의 결혼중개

(1) 結婚仲介業

결혼중개업은 과거부터 존재했던 결혼 중매업에 첨단 컴퓨터 정보 시스템과 맞춤형 서비스 시스템 개념이 도입되어 발달한 새로운 형태의 결혼 상담업이다.

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신고·등록한 후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등록요건, 결혼중개업 운영자 및 종사자의 결격여부, 겸업금지 여부 등에 대해 서류심사, 조회 및 현장 확인 후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발급하게 된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관할구역 내 결혼중개업의 불법여부를 감독, 단속하게 되며, 해당 행정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국내결혼중개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결혼중개업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등록, 신고한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만 피해보상 등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중개사무소 안에 해당 지자체장이 발행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결혼중개업 이용자들이 등록, 신고업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받는 중개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www.mw.go.kr) 각 지자체에서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결혼중개업체는 일반적으로 結婚 仲媒人의 역할을 대신하는 회사로, 가입회원의 회비로 운영되고, 회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상대 이상형을 찾아 仲媒하는 일을 하며, 미혼·재혼 남녀들의 합리적인 만남을 주선한다.

과거 60년대~80년대에는 남녀 간 자연스러운 만남과 미팅, 소개팅도 있었지만, 소위 ‘마담뚜’ 라는 전문적인 중매쟁이들이 만남을 주선 하였다. 고객은 마담뚜가 새로운 사람을 소개해 줄때마다 중매쟁이에게 사례금을

지불했고, 만약 성혼이 되면, 그에 대한 고액의 성혼 비로 보통 예단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일부 전문 중매쟁이들은 상류층 및 전문직 남성들을 중매해주고 높은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거짓정보로 당사자들을 현혹시키고 턱없이 높은 사례금을 부르기도 하고, 충분한 데이터베이스 없이 개인의 인맥에 의존하여 중매를 하는 등 중매인이 갖고 있는 한계점도 많았다.

이후 70년대가 되면서 개인 단위로 이루어지던 중매는 '결혼상담소' 라는 사업자 형태로 발전하였고 마담뚜 체제에 비해 비교적 확장된 범위 내에서 만남이 주선되었다. 이들은 가입비 체제를 도입하여 회원이 되면 일정 횟수의 만남을 주선해주고 결혼이 성사되면 성혼 사례비를 추가로 지불하는 식으로 운영되었다(이웅희, 2016).

결혼상담소는 대부분 소규모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결혼상담원에 있어서도 관련법인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로 정해져 있어 그 자격기준이 모호하며,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등 관련학문 전공자가 상담원의 37%에 불과하며, 상담훈련경험의 부족 등으로 전문적인 결혼 상담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김성찬, 2007).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일반인들은 결혼상담소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될 수밖에 없고, 결혼상담소의 부작용과 문제점은 빈번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에 들어 컴퓨터를 통한 중매가 나타나게 되고 중매는 비로소 현대적인 결혼 정보 산업으로 발전하게 된다. 하지만 이 시기에다 전통적 '중매쟁이' (마담뚜)가 활동하는 시장은 상류층을 중심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2016.10.25. 이웅희, www.mediapen.com).

이후 고도의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결혼문화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

다. 전통사회에서는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한 소개나 소규모로 운영되었던 결혼중매업이 결혼상담원이라는 新직업군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8년 9월16일 기준으로 신고·등록절차를 마친 전국 결혼중개업체 현황을 보면, 전국 총 1,254개의 결혼중개업체가 각 지자체에 신고 또는 등록을 신청하여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 받아 영업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結婚仲介業體는 1957년 7월 서울시내 동화백화점에 문을 연 중앙결혼상담소였다(강준만, 2007). 1962년 서울시경은 결혼상담소에서 접수하고 있는 결혼중매를 희망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지, 또는 영리만을 위주로 한 운영을 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경향신문, 1962년 11월 14일자). 결혼을 상품으로 취급하고 돈을 거래하는 것은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아야할 이상 현상이었던 것만큼 각종 사기 등 범죄의 온상으로 간주되며 ‘사회악’ 으로까지 불린 결혼상담소의 난립을 막기 위해 보건사회부는 결혼상담소를 단속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1973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결혼상담소가 의례업소 직종의 하나로 규정된 것이다(조선일보, 1973년 5월 18일자).

이후 ‘중매’ 대신 ‘결혼상담’ 이라는 말이 사용되다 80년대 이후에는 ‘결혼정보산업’ 이라는 이름의 산업이 그 맥을 이어갔다. 영세한 업체가 주를 이루던 결혼상담소와는 달리 1985년 알트만이 창업되고, 1986년에 법인회사의 형태로 ‘에코러스’ , 1991년 에 '좋은 만남 선우', 1995년에 '듀오정보'(박영숙, 2011)등이 설립되었다. 이때 등장한 결혼정보회사에서는 결혼에 필요한 ‘정보’ 를 교환하고 최적의 상대를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결혼정보회사가 배우자의 정보를 얼마나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에 관한 능력이 경쟁력의 척도가 되었다. 이에 따라 결혼중개업체들

은 인간관계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인간관계를 상품화하는데 더욱 힘을 쏟기 시작했다.

이후에 여러 업체가 생겨서 현재는 국내에 수많은 회사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업체별로 성혼을 위한 고객을 기준으로 하여 일부 업체는 '재혼 위주', '만혼 위주' 와 같이 특정 분야를 전문으로 내세우며 해당 분야에 집중하는 유형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결혼중개 업체에서는 특정 분야만을 다루지 않고, 모든 유형의 결혼성사를 다룬다.

업체의 규모를 보면, 자본금이나 소속 매니저 숫자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가입회원수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가입회원수가 많을수록 성혼을 원하는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업체입장에서는 가입 회원수 확보여부를 회사의 위상과 홍보를 위한 중요한 지표로 삼고, 고객을 유치할 때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내 결혼정보 업체들은 불과 10여년 사이에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업계의 추산에 따르면 2004년부터 해마다 20% 이상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www.doopedia.co.kr). 짧은 기간에 비약적인 성장을 기록한 결혼중개업은 타 산업에서도 그 전례를 찾기 힘들다.

이처럼 결혼중개업체가 급성장한 이유는 핵가족의 보편화, 바쁜 일상,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심화를 들 수 있고, 이에 따라 주변 사람들의 친분에 의한 소개 문화는 자연 쇠퇴하게 되었으며 그 역할을 결혼중개업체가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결혼중개업으로 가장 규모가 큰 듀오의 경우 성혼 회원 수가 30,000명이(박수경,2016) 넘을 정도이다. 오늘날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중개업체' 를 이용하는 것이 하나의 웨딩트렌드가 되어가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배우자감을 소개받는 경우 10여 차례의 만남이 보

장되어 있고,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소개받는 데서 오는 부담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어서 젊은 세대의 독립적이고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결혼중개업체를 찾게 된다고 본다.

결혼중개업체 ‘듀오’의 한 관계자는 ‘기성세대와 달리 요즘 20~30대는 막연한 느낌보다 정보를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엠브레인 이지서베이’에서 2012년 5월에 조사한 결혼정보회사 가입 경험 및 전반적 인식 평가에 의하면 전체응답자 10명중 8명 정도는 결혼정보회사 광고를 들어(본) 경험이 있었고, 특히 <여성>의 광고 인지율이 <남성>에 비해 높았으며, 대체로 연령대가 높고 연애행험이 많을수록 인지 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결혼중개업체 가입을 통한 <연애>나, <결혼>에 대한 호감도는 모두 낮은 수준이었으나, 연애행험이 많을수록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연애> 호감도가 높았고, ‘전문직’ 종사자의 호감도는 타 응답자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결혼정보회사 가입 이유는 ‘원하는 이상형을 골라서 만날 수 있어서’가 51.2%로 가장 많았고, 가입 당시 중요하게 고려했던 상대방의 조건은 ‘성격’이 45.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외모(37.2%)’, ‘능력(36.0%)’, ‘직업(34.9%)’ 순으로 많았다. 응답자 특성별로 남성은 여성의 성격과 외모를, 여성은 남성의 능력과 직업을 주로 고려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www.asiae.co.kr

<그림II-7> 국내 결혼중개업체 수 (2016년 8월말)

그러나, 양적으로 팽창을 거듭하던 결혼중개업체는 2016년 8월말 884개로 감소하고 있다. 2016년 10월 여성가족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마친 국내결혼중개업체는 2009년 671개에서 2012년 1,180개로 급증했으나, 이후 하향세로 돌아서며 2014년 965개에서 2016년 8월말 884개로 감소해 2012년 대비 1/4이 폐점한 상황이다. 이는 결혼 적령기에 있는 미혼남녀들이 연애, 결혼, 출산 세가지를 포기하며 삼포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지는 시대에 결혼기피 현상으로 나타난 혼인을 저하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결혼정보업체를 이용하는 빈도 또한 감소할 수밖에 없고, 또한,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불만족 피해 사례의 증가가 원인이 되기도 한다.

2016년 10월 27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는 “결혼은 미친 짓? 중매업체 찬바람...4년 새 300개가량 문닫아”의 기사에서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미혼남녀들의 결혼정보회사 이용경험은 1%대에 불과하고 그 중 남성 1.5%, 여성 1.3%로 나타났다고 한다(www.asiae.co.kr).

仲媒에는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중매쟁이와 결혼상담소를 통하는 방법이 있는데, 중매쟁이에 의한 중매에서도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한 것은 전통사회에서부터 자연스러운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직업적인 ‘중매쟁이’, 소위 ‘마담뚜’에 의한 중매는 조건을 전제로 한 만남으로서의 결혼 관행을 더욱 부추겼다.

또한 가정의례에 관한 시행규칙에 의해 수수료를 받고 결혼 상담과 중매 행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결혼상담소의 경우도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장성자 외(1990) 『전문결혼상담원 교육프로그램개발사업보고서』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결혼상담소는 거의 대부분 결혼준비교육이나 결혼 전·후 상담을 통하여 행복한 결혼으로의 ‘성혼’에 주안점을 두기 보다는 영리를 위주로 한 중매행위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결혼 중개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업체의 감소와도 무관하지 않게 된다.

(2) 新 職業으로서의 結婚相談員

結婚相談員은 결혼 중개업 종사자로 결혼 예정자 또는 재혼, 만혼, 국제 결혼 등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상대에게 적합한 이성 대상을 추천하고 인간관계의 모든 것을 다양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도움으로 만남 절차를 카운슬링하고 연결대행해주는 사람으로, 그 직무는 고객의 문의에 응대하고,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 회원 가입을 신청한 사람의 조건을 검토하여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회원과의 상담을 통해 그가 원하는 배우자의 조건을 파악하고, 전문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상대 배우자를 찾는 일을 하며,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와의 만남을 주선하며, 만남 후의 반응을 체크하여 다음 매칭에 참고한다. 만남을 거친 회원들이 성혼이

될 때까지 미팅 일정을 잡아주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상담 및 조언을 해주는 것도 이들이 하는 업무이다. 최근 각 협회와 자격증과정에서 ‘결혼상담사’ (커플매니저, 웨딩매니저)라고도 한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2004년 이후 결혼중개업체들이 급성장하면서 동시에 결혼상담원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직업의 분류로 보면, 그들은 결혼상담원(코드 122100)이라고 하며, 전국에 약26,000명이 종사하고, 평균연령39.3세, 여성비율 75%, 평균근속년수 4.2년, 근로자수 4.6명, 월평균소득 223.5만원, 평균 근속년수 4.2년,남성:25%,여성:75%의 성비를 가지고 있다 (www.work.go.kr).

<표 II-5> 2013년 하반기 결혼상담원 현황

직업세 분류 (KECO)	전체종사자					임금근로자	
	종사 자수 (천명)	평균 학력 (년)	평균 연령 (세)	여성 비율 (%)	평균 근속 년수(년)	근로 자수 (천명)	월평균소득 (만원)
결혼 상담원	7.3	14.8	39.3	75.0	4.2	4.6	223.5

자료; 통계청자료 재구성

1985년 3월 7일 서울특별시 가정의레업소 허가처리지침에 따른 ‘결혼상담소’ 허가기준에 의하면 결혼상담원자격(시장방침 제 374호)은 i) 초급대학이상 소지자로 심리학, 사회학, 사회사업학, 교육학 전공자 ii) 공무원 경력 5년 이상자 iii)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iv) 고졸이상으로 사회복지, 종교기관의 상담관련분야 5년이상 종사한 40세 이상 자이며, 결혼상담원 결격사유는 i) 35세 미만인 자 ii) 파산선고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2016년 12월 28일 강남구청 보육지원과 결혼

중개업체 및 결혼상담원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현재 강남구에 결혼상담원으로 등록된 종사자는 대략 600~700명이며, 결격사유만 없다면 자격기준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한다.

최근 들어 다양한 배우자 선택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를 통해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으며, 결혼중개업체도 고객의 필요에 따라서 가격, 서비스 수준 등이 달라지고 있다.

현대사회가 익명의 사회로 진전되고 인간관계가 수단화 되어감에 따라 결혼에 이르는 과정이나 결혼생활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이 점차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결혼과 관련된 제반문제들도 개인의 개별적인 노력으로 해결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마담뚜나 결혼상담소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조력으로 성혼을 하고자 하는 요구는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결혼상담의 필요성은 먼저 결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전문적 조력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결혼상담은 평등한 부부관계의 유지와 가정생활을 통해 서로의 발전을 돕고, 결혼으로 생겨난 새로운 가족 관계와 역할 수행 등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일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결혼상담원의 자질에 대한 요구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연구한 전문결혼상담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김인순 외 3명, 1992)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이후 결혼상담원의 자격조건이나 자질에 대해 추가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상담원에 대해 가장 많은 요구는 따뜻하고 수용적인 성품(38.6%)과 학문적 소양과 여성학적 시각(36.8%)이 높게 나타났고, 그 밖에 인간에 대한 이해와 철학적 사고(13.9%), 윤리 책임의식(8.9%) 등으로 나타났다<표 II-6>.

<표 II-6> 결혼상담원의 자질에 대한 요구

결혼상담원의 자질 요구	명(%)
따뜻하고 수용적인 성품	108(38.6)
학문적 소양과 여성학적 시각	103(36.8)
인간에 대한 이해와 철학적사고	39(13.9)
윤리 책임의식	25(8.9)
기타	5(1.8)
계	280(100.0)

자료:한국여성개발원

결혼상담원이 받아야 할 교육에 대한 의견은 자질향상과 이에 따른 상담업무의 전문화, 그리고 상담소 시설향상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바른 결혼관, 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가치관 교육에 역점을 둘 것과 결혼상담원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공인된 자격증제 도입이 요구된다고 한 바 있다.

(3) 결혼상담원 양성과정

결혼중개업법 제24조에 의거하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2015년도까지는 국제결혼중개업자 만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의 위탁으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교육을 실시하였고, 총15회, 517명이 이수하였다. 신규교육은 5개 교과목, 보수교육은 4개 교과목으로 각 1시간씩 교과목 관련 기관, 전문가가 강의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고, 여기에 소비자피해 예방 교과목 1개가 포함되었으며, 교육내용과 방법은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시간 규정에 따른 것으로 <표II-7>과 같다.

<표II-7> 국제결혼중개업자 대상 교육내용·교육방법

교육내용·교육방법 등(제16조제2항 관련)			
교육과목	교육내용	방법	시간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해설	강의	1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결혼중개업의 사회적 책임 및 인권보호	강의	1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보호 방안	-소비자보호 관계 법규 해설 -소비자보호 및 구제방안	강의	1
결혼중개업 실무	-상담이론 및 실무	강의	1

2016년 결혼중개업 교육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두 가지가 변경되었다. 첫째는, 국제·국내결혼중개업자를 통합하여 연간 총8회의 교육이 실시되며, 둘째는, 결혼중개업자를 현장 지도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위한 교육이 연간 총4회 실시되었다.

교육내용은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결혼중개업자의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결혼중개업 실무”의 3개 교과목과, 2015년도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보호” 교과목이 1시간 포함돼 모두 4개 교과목으로 되어있다.

최근 결혼상담사 자격증 혹은 커플매니저 자격증이라고 하여 결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전문가로서 자격기본법에 근거하여 (주)한국자격증양협회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등록번호, 제2013-0812호) 비공인 민간 자격으로 시행하고 있다(www.dball.co.kr).

또한, (사)한국심리상담협회(www.kpcs.or.kr)는 2003년 12월 제1회 시험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민간자격증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검정방법은 1차는 필기시험, 2차는 직무교육으로 진행된다<표 II-8>.

<표 II-8> 결혼상담사(커플매니저) 자격증 시험

구분	시험과목	합격기준
제1차 필기시험 (객관식 4지 택일형)	1. 인간관계론 2. 매너학 3. 상담학 4. 직업윤리	과목당 100점 만점에 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직무교육	1차 필기시험 합격후 6시간	직무 연수교육 수료 후 자격증 수여

자료: www.kpcs.or.kr

시험과목은 모두 4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목은 인간관계론, 매너학, 상담학, 직업윤리이다. 인간관계론은 인간관계와 관련한 인간관계 전반에 관한 내용이며 매너학은 매너의 개념, 에티켓, 예절, 이미지, 국제화시대의 비즈니스매너, 테이블 매너, 에티켓, 공공장소 매너, 음주와 흡연매너, 이성, 동성 간의 매너, 경조사매너 등에 관한 지식으로 구성된다. 상담학은 상담의 개념, 상담자의 자질과 윤리, 지시적 상담, 인간중심상담, 합리적 정서적 상담, 정신분석학적 상담, 현실상담, 의미상담, 의사교류 분석상담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직업윤리는 커플매니저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직업 윤리적 사명 등 사회전반에 있어서 인간관계, 사회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된다<표 II-9참조>.

<표 II-9> 결혼상담사(커플매니저) 자격증 시험 주요과목

시험과목	출제 문항	평가주요항목
인간관계론	25	인간관계와 관련한 인간관계 전반에 관한 내용
매너학	25	매너의 개념, 에티켓, 예절, 이미지, 국제화시대의 비즈니스 매너, 테이블 매너, 에티켓, 공공장소 매너, 음주와 흡연매너, 이성, 동성 간의 매너, 경조사매너 등에 관한 지식
상담학	25	상담의 개념, 상담자의 자질과 윤리, 지시적 상담, 인간중심 상담, 합리적 정서적 상담, 정신분석학적 상담, 현실상담, 의미상담, 의사교류 분석상담 등에 관한 내용
직업윤리	25	커플 매니저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직업 윤리적 사명 등 사회전반에 있어서 인간관계, 사회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자료: www.kpcs.or.kr

최근 NCS(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에 결혼서비스로 결혼상담사과정을 추가하였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으로 결혼상담 계획 수립에서 결혼확정 고객의 성혼까지에 필요한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 능력을 포함한 문서관리 및 상담 경영 관리에 대한 교육을 체계화하였고, 결혼상담원으로서 업무 능력을 충분히 쌓은 후, 관리자 혹은 경영자의 직위에서 담당하게 되는 업무를 익혀 회사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에 적용하고자 하였다(ncs.go.kr). 이러한 표준화를 통한 교육은 결혼상담원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에 연구이기는 하나 장성자의 연구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결혼중개업체에서는 거의 결혼준비교육이나 결혼 전·후 상담보다는 영리를 위주로 한 중매행위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으로 인해 생성되는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조직이다. 따라서 결혼 및 가정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구조적 문제와도 관련

되므로 이를 공동의 관심영역으로 끌어내어 해결하는 지원체제가 요구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결혼상담의 필요성은 결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전문적 조력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의 안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흔들리고 있다. 혼인율의 감소나 저 출산의 문제, 이혼율의 증가는 그러한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예방책 중의 하나가 결혼준비교육과 결혼 전.후 상담을 통해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영애(2013)는 혼인준비자들의 혼례예절교육 요구도 연구에서 우리사회에서 혼례는 다양한 사회현상 및 가치관의 변화 등과 맞물려서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는 부분이 있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요청된다고 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비롯한 혼례와 관련된 각 기관과 웨딩컨설팅업체들의 연계를 통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혼례예절교육 프로그램이 구성, 도입되고, 정책적으로도 지원되어 교육이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박문기(2012)는 결혼준비교육과 결혼 전.후 상담을 통하여 결혼중개업체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결혼상담의 활성화·전문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도해 나갈 전문결혼상담원의 양성이 요청된다고 하였다.

전문결혼상담원은 기존 결혼상담원과 구분하기 위한 명칭으로 그 기능이 다르다. 기존 결혼상담원이 상업성 추구에 중점을 두고 주로 중매행위에만 치중하는 반면, 전문결혼상담원은 중매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성혼을 원하는 고객에게 평등한 결혼관, 인간관 확립을 돕는 교육의 기능과 배우자 선택 및 결혼 후 적응과정을 돕고 문제발생을 예방하는 결혼 전.후 상담을 주요 과업으로 삼는다(장성자, 1990)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앞으로 사회에서는 전문화된 결혼상담원의 역할이 더욱 중시되어야 할 환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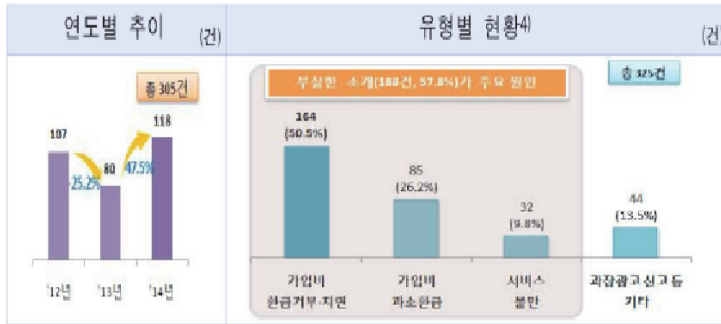
결혼상담원 교육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길러주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서 미국의 경우는 최소 2년간 석사학위 과정에서 32~36학점 정도의 전문교육을 받은 후에 소정의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상담자 자격증이 부여되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의 결혼상담원 교육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결혼생활 만족은 결혼 생활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으로 결혼생활 전반에 걸쳐 만족스럽고 행복한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반면 현실적인 불만족 등으로 인해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가족의 불안정성은 이혼, 별거 등의 가족해체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유옥, 2010). 이러한 현상에 대한 예방책 중의 하나가 결혼준비교육과 결혼 전·후 상담을 통해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결혼중개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결혼상담의 활성화, 전문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도해 나갈 전문결혼상담원의 양성이 요청된다.

(4) 결혼정보회사 이용 소비자피해 실태

2015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하면, 2012년 1월~2015년 2월 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 접수 민원 958건의 분석결과,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할 때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계약해지 요구에 따른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50.5%) 및 가입비 과소 환급(26.2%)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6.6%로 가장 많았고, 소개 등에 대한 서비스 불만(9.8%) 순이었는데, 계약해지 및 서비스 불만은 대부분 부실한 소개(188건, 57.8%)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II-8 참조>.



자료:국민권익위원회

<그림 II-8> 결혼중개업체 이용 시 피해 사례

결혼중개와 관련된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사례 자료를 보면 <표II-10>과 같다. 결혼중개업으로 인한 이와 같은 소비자피해 상황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미혼남녀들의 결혼 포기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혼정보회사는 불합리하게 높은 가격, 불량 매칭 서비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구제의 어려움 등 당면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II-10> 소비자 피해 사례(2014년)

사례 1	'13년 8월에 595만원을 주고 1년가 최소 15회 만남 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4회 소개 이후 만남을 주선하지 않는 등 관리 소홀로 인해 계약 해지를 요구함.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608,000원 및 이에 대해 2014. 3.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함('14년 3월 공정위).
사례 2	'13년 9월에 330만원을 주고 총15회(서비스 3회 포함) 만남을 조건으로 가입했음. 희망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을 1주일에 2회씩 4명을 소개받고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 달라고 했지만, 업체에서는 기본횟수 4회를 소개받았고 나머지 11회는 서비스이므로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함
	계약 해지 시 약정 횟수를 기준으로 환급하는 조항이 총 횟수(약정 횟수+서비스 횟수)를 기준으로 환급되도록 시정됨('14년 6월 공정위)
사례 3	결혼 성사 시까지 횟수제한 없는 무제한 매칭 회원이라는 설명을 듣고 1,000만원의 가입비를 주고 가입했지만, 계약서에는 12개월 간 총 5회 매칭으로 되어 있었음. 3명의 남성을 소개 받았으나 희망조건(키, 나이, 학력, 직장 등)이 맞지 않는 등 부실한 서비스 때문에 계약의 해지와 가입비 환급을 요구하자, 가입비 중 320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함('14년 10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는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 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 업체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비의 환급 및 가입비의 20% 등을 배상하도록 되어 시정됨('14년 10월 공정위)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 재구성

결혼중개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내용은 결혼중개업자에게 교육을 통하여 전수해야 할 전문지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결혼정보회사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최근 3년간 약 3,000건대의 수준으로 국제결혼중개업에 비해 약 5배에 이르고, 피해유형이 복잡해지고 분쟁이 뜨거워지는 양상이다(이창욱, 2016). 국내결혼중개업과 관련하여 접수된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상담사례 및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건수는 최근 3년간 매년 약 200건대 수준이며 <표 II-11>과 같다.

<표 II-11> 소비자피해 상담사례 및 소비자피해구제 신청건수

(건수)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담사례 건수	2,835	3,095	3,060	3,804	3,284
피해구제사 건 건수	189	229	197	296	260

자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피해구제를 신청한 사유는 “계약해제·해지” 98.0%, “청약철회” 2.0% 피해 때문이고, 국내결혼정보회사로 인한 소비자 피해 유형은 “사업자의 불성실한 소개”가 50.7%,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27.1%, “과다한 위약금 청구” 15.3%, “회원관리 소홀 3.9%, 계약 불이행 3.0%”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II-12>.

<표II-12> 국내결혼중개업체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2014년 1월~8월)

피해유형	건수	비율(%)
불성실한 소개 (소개지연, 소개횟수 부족, 소개조건 미준수 등)	103	50.7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55	27.1
과다한 위약금 청구	31	15.3
회원관리 소홀	8	3.9
계약 불이행	6	3.0
계	203	100.0

자료: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한건표 원장은 2016년 9월 30일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개최된 「2016 작은결혼 박람회」에 참석하여 합리적인 결혼문화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여성가족부는 2012년부터 국내 결혼중개업자 교육 등 공동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6년 2월에는 업무협약을 통해 결혼 등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함께하고 있으며, 12월까지 관련 자료 제작 및 공동교육을 시행할 것이라 하였다(한국소비자원).

2016년 6월 조사된 통계청 인구동향 자료에 의하면 혼인 건수는 2만4천3백 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2천4백건(-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표 II-13>, 혼인연령은 남녀 모두 25~29세에서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8>. 이는 결혼이 점차 사회적 당위적인 필수사항이 아니라 개인적 선택사항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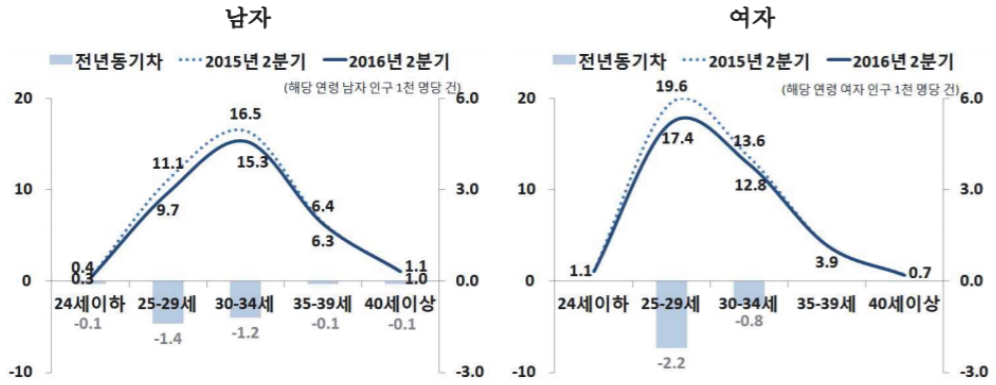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2006년의 한 보고서를 보면 여성 응답자의 29.9%는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 결혼을 미룬다고 말했다. 이어 ‘결혼에 따른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14.8%),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 (12.7%) 등이 뒤를 이었다.

<표II-13> 전국 혼인 건수 및 증감률(2016.6)

	2014년	2015년	2015년		2016년p		
			6월	1~6월	5월	6월	1~6월
혼인 건수(천 건)	305.5	302.8	26.7	155.9	25.5	24.3	144.0
전년(동월) 증감률(%)	-5.4	-0.9	7.9	1.3	-8.6	-9.0	-7.6

자료:http://kostat.go.kr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혼인종류별 혼인 건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남자 초혼은 5천 3백 건(-7.8%), 재혼은 1천 5백 건(-12.7%) 감소하였으며, 여자 초혼은 4천 9백 건(-7.4%), 재혼은 2천 건(-14.9%) 감소하였다.



자료:http://kostat.go.kr

<그림 II-9> 성·연령별 혼인율(2016.6.)

<표 II-14> 혼인종류별 혼인 건수(2016.6.)

(단위: 천 건, %)

		2014년	2015년	2015년				2016년p		전년 동기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남자	초혼	257.9	256.4	64.5	67.6	53.7	70.6	60.3	62.3	-7.8
	재혼	47.5	46.4	12.0	11.8	10.6	12.0	11.0	10.3	-12.7
여자	초혼	251.5	250.0	62.9	66.0	52.2	68.9	59.0	61.1	-7.4
	재혼	53.9	52.7	13.6	13.4	12.1	13.6	12.3	11.4	-14.9

자료:http://kostat.go.kr

우리나라 미혼남녀들이 혼인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살펴보면, 미혼남녀들은 근대화 과정에서 성인의 通過儀禮로 여겨졌던 과거의 결혼이, 현대에 와서 개인들의 욕구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교육기회 및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결혼이외의 선택할 대안이 있고, 결혼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고 여기면서 혼인에 대한 경향이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결혼비용의 증가나

취업 등의 사회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많아짐에 따라 남녀 모두 경제적인 기반 부족과 자기개발을 중요시하는 것도 결혼태도를 변화시킨 요인 중 하나이다(김지유·조희선, 2014; 고선강·어성연, 2013; 문선희, 2012)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가 미혼남녀들 사이에서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어 가고 있지만, 결혼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결혼중개업체가 없을 때에는 중매쟁이가 그 역할을 하였다. 중매쟁이가 일반인들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이러한 중매역할을 현대사회에서는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하여 결혼정보회사가 대신하고 있다(박문기, 2012).

이렇듯 혼례문화는 시대의 정치.사회.경제 문제와 밀접하게 연동하여 변화하고 있고 現代 미혼남녀의 혼례의식에 있어서 仲媒婚이 당사자의 의지를 배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기회의 경험을 위해 婚姻 當事者가 주도적으로 結婚仲介業體를 찾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조선시대 결혼중개부터 現代 結婚相談員의 出現에 따른 결혼중개의 變遷을 史的 高찰한 내용은 다음의 <표 II-10>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II-15> 결혼중개의 변천과정

過程	形態	役割	成婚謝禮
傳統社會에서의 결혼중개	『朱子家禮』 · 『家禮輯覽』 · 『四禮便覽』에 반드시 仲媒人이 필요하다고 언급	士大夫등의 지배계층은 학맥에 의한 결혼중개였 고, 일반인들은 媒婆라 하여 주변에 인맥이 많 은 할머니를 통한 중매 를 했으며, 배우자는 부 모에 의해 정해짐	고 무 신 등 을 받았으나 서로 협의가 안 돼 싸움이 나기도 했음.
開化期の 결혼중개	仲媒婚, 自由婚, 折衷 婚 혼재	주변인, 고모	양복 한 벌 정도
光復以後의 결혼중개	PC통신을 활용한 결혼중개 시작	결혼상담소 운영	예단의 10%
結婚仲介業 登場이후의 결혼중개	가입한 회원의 만남을 주선했 주는 사람	신고업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각 회사별 내규에 따름.

Ⅲ. 結婚相談員의 事例研究

1. 研究方法

1) 研究문제

傳統社會에서 婚姻의 과정에서 반드시 중요한 역할을 했던 仲媒人이 현대에 結婚相談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중매의 변천과정에서 고찰했듯이 결혼중개업이 갖고 있는 제반 문제점과 중개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 전반적인 결혼상담원의 필요성과 인성교육의 활성화 요구 등 다양한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혼중개 과정에서 그 핵심적 역할은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결혼상담원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결혼중개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혼상담원의 직무상 어려움을 해결하고,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방안 모색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結婚相談員의 직무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역할과 자질, 당면 문제 등을 분석하여 향후 仲媒업 종사자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結婚相談員의 직무와 직무스트레스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結婚相談員의 자질과 역할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結婚相談員의 성공과 실패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연구문제 4. 結婚相談員의 당면 문제는 무엇인가?

2) 사례조사도구

<표 III-1> 면접 시 질문 목록

구성	질문내용
I. 일반적사항	연령, 나이, 학력, 종교, 월 평균 소득, 결혼 유무, 결혼상담원의 경력, 역할
II. 직무특성, 직무 스트레스, 직무 만족	<p>1. 직무특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혼인에 있어서 결혼상담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결혼상담원의 직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이 일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이 일은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결혼상담원 직무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p>2. 직무스트레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결혼상담원 직무 스트레스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어느 정도입니까? 2) 직무수행 중에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것은 무엇입니까? 3) 일에 대한 의욕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느끼십니까? 4) 스트레스 해소는 어떻게 하십니까? <p>3. 직무만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결혼상담원이라는 직업이 본인에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2) 일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만족한다면 어떤 면에서 만족하십니까? 3)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앞으로 평생 동안 하실 생각이십니까?
III. 자질과 역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격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업무에 학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어떤 호칭으로 불리는 게 좋으십니까?
IV. 성공 및 실패 사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장 성공적인 상담 사례는 언제입니까? 2) 가장 실패했던 상담 사례는 언제입니까?
V. 결혼상담원 의 당면문제	이 일을 하면서 당면하고 있는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p>• 성격특성 파악을 위한 MBTI 성격유형 검사는 ASSESTA에서 보급하고 있는 표준화된 GS형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p>	

본 연구는 결혼상담원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기본으로 한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졌다. 결혼상담 현장 경력이 2년 이상부터 19년까지인 현직 결혼상담원 1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면접 내용은 <표Ⅲ-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개인에 관련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직무와 직무스트레스 및 만족, 자질과 역할, 결혼상담의 성공 및 실패 사례, 결혼상담원의 당면 문제 등의 5개 부분으로 나누어 구분 하여 구성하였다.

개인의 일반적 사항에는 조사대상자의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심층면접을 위한 질문 내용 구성은 구숙희(2010), 이향숙(2012), 김선주(2014), 임은혜(2015)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지도교수와의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구성하였다. 심층면접은 반 구조화된 면접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연구자가 결혼상담원의 활동사례에 대해 조사 할 질문 내용을 정해놓고 그 내용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질문한 후, 조사자들의 경험이나 견해를 그들의 말로 직접 표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적용한 까닭은 질적 연구방법이 결혼상담자들이 겪고 있는 직무상의 경험 실제(reality)를 충분히 기술하고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김현경, 2011) 개방된 질문 방식을 취했다. 그리고 MBTI 성격유형 검사는 ASSESTA에서 보급하고 있는 표준화된 GS형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3) 사례조사 절차 및 사례특성

(1) 사례조사 절차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연구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결혼상담원 사례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정(김영천, 2014)하고 그들

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의 한 방법인 현상학적 연구를 적용하여 면접 질문지를 활용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現象學은 상황 속에 던져진 대상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연구하는 것이다. 즉 대상자들의 감정, 지각, 의미, 태도, 사건에 대한 그들의 개인적 반응을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언어를 통하여 이해하려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이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간 경험의 본질을 발견하는데 있기 때문에 특정주제인 결혼상담 직무와 관련하여 깊이 있고 풍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한 상담자를 의도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연구자와 친분이 있는 5명으로 시작하여, 그 대상자가 또 다른 대상자를 추천하여 연구자에게 소개해주는 스노우볼링(snowballing) 형식으로 12명의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김선주, 2013). 서울 강남구청에 등록·신고 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결혼중개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결혼상담원이었으며,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 참여 의지를 지니고 심층면접을 응대한 사람들이었다.

연구자와 친분이 있는 조사대상자를 제외한 처음 대면하게 된 조사대상자의 경우는 면접초기에 라포(rapport) 형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 이때 연구자는 조사대상자와 결혼상담원의 활동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이를 통해 업무에 대한 이해와 지향하는 방향에 관련된 견해 등을 공감하고 나누면서 친밀감을 형성한 후 면접을 실시하게 되었다.

본 조사를 위한 면접 동의서(부록 1)를 받은 후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2016년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연구대상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약하여 진행되었으며, 주로 조사대상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나 근처의 커피숍 등에서 이루어졌다. 사례별로 면접 횟수는 1회였으며, 공식적인 면담 시간은 평균 40분~5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면담의 모든 내용은 연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고,

면담자의 구술내용 뿐만 아니라 태도, 표정, 비언어적 메시지 등도 메모하였다. 조사 후 모은 조사 내용은 전자 작업을 통하여 자료화하였으며,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추가로 전화 통화나 문자로 주고받으며, 자료를 보완하였다.

또한 심리적 특성 파악을 위해 MBTI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는 MBTI 전문강사 자격을 갖춘 지도교수의 지도아래 ASSESTA (www.assesta.com) 에서 제시하는 MBTI 검사절차에 따라 검사의 의의, 검사의 목적 등을 설명하고, 검사 시 유의사항을 고지하였으며, 검사지와 프로파일을 제공하여, 약 20분간 검사를 실시하였다.

결혼상담원은 업무특성상 고객과의 접점에서의 활동이 주된 업무가 되며, 감정노동의 특성을 갖고 있다. 선행연구(김경아, 2016; 최지환, 김증인, 2014; 진민정, 조민호, 2016)를 볼 때, 결혼상담원의 성격은 직무 몰입, 직무만족, 고객지향행동 등과 관련이 있으므로, 결혼상담원 활동 시 성격이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되어, 사례별로 MBTI 성격검사를 포함하였다.

(2) 事例특성

본 연구의 사례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IV-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비는 여성이 11명, 남성이 1명으로 여성이 월등히 많았고, 연령은 40대가 1명, 50대가 6명, 60대가 5명으로 평균 연령은 55세였다. 학력에 있어서는 고졸 4명, 대졸 이상이 8명이고, 종교는 기독교가 5명, 불교가 2명, 천주교 2명, 무교 3명이었다. 월 평균소득은 100만원이 3명, 200만원이 5명, 400만원이 2명, 500만원이 2명이었으며, 결혼상담원의 경력이 오래될수록 2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유무에 있어서는 기혼이 10명이고, 미혼이 2명으로 평균

연령이 높은 것과 더불어 기혼여성이 많아 古來에 ‘媒婆’라 하여 婚姻한 나이든 할머니가 仲媒를 했던 기록이 현대에도 통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결혼상담원의 경력은 2년~19년까지로 다양한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역할은 CEO, 상담, 매칭으로 구분되며, CEO는 마케팅과 경영을, 상담은 재혼과 초혼으로 담당하는 역할이 구분되어 있었고, 맡은 직무는 회원 상담과 가입을, 매칭은 가입된 회원을 중심으로 남녀를 연결해주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 12명 중 재혼상담은 3명, 초혼상담은 7명, 매칭담당 2명, CEO는 2명이었다.

MBTI 검사결과 성격은 에너지의 방향을 기준으로 볼 때, 8명이 외향형(E)이며, 4명은 내향형(I)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보 수집을 기준으로 보면, 감각형(S)이 10명이며, 직관형(N)은 2명이었다. 판단기능을 기준으로 보면, 사고형(T)은 9명, 감정형(F)은 3명이었고, 생활양식을 기준으로 보면, 판단형(J)이 7명, 인식형(P)이 5명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혼상담원 사례들의 4가지 선호경향은 주로 외향형이며, 감각형, 판단형의 성격이며, 4가지 심리기능은 ST가 8명으로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유형의 상담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4) 사례분석 방법

심층면접은 연구자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해내기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결혼상담원의 직무·직무스트레스, 자질·역량, 성공 및 실패 사례, 당면한 문제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또한 MBTI 성격유형 검사를 병행함으로써 결혼상담원들의 내면적인 성격특성이 어떻게 그 활동에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표 III-2> 조사대상자의 사례 특성

No	면담자	성별	나이 (세)	학력	종교	월평균 소득 (만원)	결혼 유무	경력 (년)	역할	MBTI
1	사례자 1	여성	60	고졸	기독교	200	기혼	9	재혼 상담	INTJ
2	사례자 2	여성	60	대졸	무교	200	기혼	11	재혼 상담	ISFP
3	사례자 3	여성	63	대졸	불교	200	기혼	8	재혼 상담	ESTP
4	사례자 4	여성	51	고졸	기독교	100	기혼	3	초혼 상담	ISTP
5	사례자 5	여성	51	대졸	기독교	100	기혼	2	초혼 상담	ESTJ
6	사례자 6	여성	51	대졸	천주교	400	기혼	7	초혼 상담	ESTJ
7	사례자 7	여성	50	대졸	무교	100	미혼	6	초혼 상담	ISTJ
8	사례자 8	여성	64	고졸	불교	400	기혼	8	초혼 상담	ESFP
9	사례자 9	여성	41	대졸	기독교	500	미혼	14	CEO	ESTJ
10	사례자 10	여성	53	대졸	무교	500	기혼	9	매칭	ESTJ
11	사례자 11	여성	51	대졸	기독교	200	기혼	6	매칭	ENFP
12	사례자 12	남성	65	고졸	천주교	200	기혼	19	CEO	ESTJ

질적 연구 분석은 수집된 자료에 일련의 질서, 체계,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자료 속에서 유형과 주제를 발견하는 작업이다(김영천, 2012). 질적 자료를 분석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과 절차가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필수적인 4단계를 적용하여 ‘전체에 대한 느낌(sens)을 파악-의미 단위 구분-학문적 용어로의 변형-변형된 의미 단위를 구조로 통합’ 하는 과정(신경림 외, 2004)을 통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결혼상담원들의 사례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을 파악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전사하였고, 전사 자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별도로 메모 하였다.

두 번째는 전사된 자료의 내용 속에서 핵심내용을 찾는 작업으로 진행하였다. 코딩은 수집되고 전사된 자료들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자료 속에 내재된 핵심내용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텍스트가 담고 있는 메시지와 의도 그리고 의미가 무엇인가를 최초로 개념화 시키는 작업이다(김영천, 2016).

세 번째로 범주화된 자료를 토대로 주제를 선정하고 학문적 용어로 변형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전사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자료들 중에서 그 자료들이 나타내려고 하는 중요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좀 더 분석적으로 범주화되고 연결되고 선별되는 과정을 거쳐 학문적 표현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기술된 내용에 대해 적합한 학문적 용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Giorgi가 제안한 대로 상식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마지막 단계로 변형된 의미 단위를 기초로 하여 구성요소들을 도출해 내고 상관관계를 포함하여 경험의 구조로 일관성 있게 통합해 나가는 ‘변형된 의미단위들의 구조적 통합주제’ 과정을 진행하였다. 주제별로

각 사례와는 어떤 특징과 관련이 있는지, 어떤 공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지를 추론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새롭게 범주화시킬 수 있었다.

2. 결혼상담원 직무관련 심리적 요인 고찰

1) 감정노동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은 직장인이 사람을 대하는 일을 수행할 때에 조직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감정을 자신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행하는 노동을 의미한다(임용준, 2015).

Ashforth & Humphrey(1993)에 따르면 감정노동은 ‘서비스 거래 제공 동안에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라고 정의하며 이는 감정노동의 구성 개념을 더욱 확장시킨 것으로 종사원들의 내적 감정보다 외적 표면행위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관리자들과 고객들이 종사원의 외적 표현행위를 보고 표현규범에 준수하고 순응하는지를 쉽게 파악하여 관리나 통제가 용이하도록 감정노동을 개념화한 것이다. 즉, 감정은 개인 및 조직적(사회적) 관계 안에서 타인과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간주 될 수 있다. 감정노동은 표면행동(surface acting)과 내면행동(deep acting)이라는 두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느끼는 감정과 다른 감정을 표현해야 할 때,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느끼지 않지만 미소와 같은 표현 규칙을 따르는 것을 표면행동이라 하고, 내면행동은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고객에게 긍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적인 감정 상태까지도 바람직한 행동을 나타내기 위한 의식적

표현규범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Hochschild, 1983). 감정노동으로 생긴 감정적 부조화는 감정노동을 행하는 조직 구성원을 힘들게 하며 감정노동으로 생긴 문제가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엔 심한 스트레스(좌절이나 분노, 적대감, 감정적 소진)를 보이게 된다.

Arlie Russell Hochschild(1983)는 충동적이고, 자연발생적인 관점으로 바라봤던 감정이라는 개념을 노동 중에 하나의 요소나 유형으로 분리한 최초의 미국 사회학자이다. 또한 ‘통제된 마음(The Managed Heart)’이라는 저서에서 실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무관하게 이성적으로 직무를 행해야 하는 노동을 설명하였다.

Morris & Feldman(1996)은 감정표현의 빈도(frequency of emotional display), 감정표현에 요구되어지는 주의 정도(attentiveness to required display rules), 감정표현의 다양성(variety of emotional expression), 감정 부조화(emotional dissonance)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첫 번째 감정표현의 빈도는 직원과 고객과의 상호작용의 빈도에 중점을 두는 것이며, 두 번째는 감정표현의 지속시간 및 감정표현의 강도로 구분하였고, 세 번째 감정표현의 다양성은 조직이 요구하는 목적에 따라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감정표현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시간 안에 많은 감정을 표현할수록 감정노동의 강도는 더욱 높아진다. 네 번째 감정 부조화는 조직과 종사원 개인 간에 느끼는 감정의 갈등을 의미하며 감정노동을 직무에 행하는 종사원의 감정과 조직에서 요구하는 정직한 감정과의 부조화를 느끼는 것이다(임용준, 2016).

감정노동의 개념은 국내에서도 유사하게 정의되고 있다. 감정노동은(Emotional Labor) 서비스 노동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으로 종업원과 서비스 수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질(quality)’ 그 자체가

고객에게 전달되는 서비스로서 제품의 일부분을 구성한다(김상표, 2000).

정명숙, 김광점(2006),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실제 감정을 통제하려는 노력과 특정한 감정을 표현하려는 노력이라고 하였고, 강재호(2007)는 서비스 업종의 종사자가 고객과의 접점에서 조직과 고객이 기대하는 감정 표현 규정을 지키려는 노력과 행위로 정의하였다. 우영희(2008)는 종사자와 고객 간의 상호 관계를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종사자가 자기감정과 표현을 규제하는 행동으로, 최항, 임효삼, 정무관(2008)은 조직에서 직무상 자신이 느끼는 감정표현과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표현에 차이가 존재할 경우, 조직 내 적응을 위하여 개인의 효과적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조직의 표현규범에 맞도록 감정을 조절하는 개인적인 노력이라고 하였다. 김종진(2008)은배우가 연기하듯이 타인의 감정을 맞추기 위하여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로 정의하였고, 임용준(2015)은 직장인이 사람을 대하는 일을 수행할 때에 조직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감정을 자신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행하는 노동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本 연구에서는 감정 노동을 “직무 수행에 있어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표현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3> 감정노동의 개념정의

연구자	년도	내용
Hochschild	1983	외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표정이나 행동의 느낌을 관리하는 것
Ashforth & Humphrey	1993	서비스 거래가 진행되는 시간동안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감정을 적절히 표현 하고자 하는 행위
Morris & Feldman	1996	서비스를 수행하는 동안 조직에서 요구하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개인의 노력, 계획, 이러한 표현을 통제하는 정도
김상표	2000	서비스 노동에서는 종업원과 서비스 수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질(quality)' 그 자체가 고객에게 전달되는 서비스로서 제품의 일부분을 구성
정명숙, 김광점	2006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실제 감정을 통제하려는 노력과 특정한 감정을 표현하려는 노력
강재호	2007	서비스 업종의 종사자가 고객과의 접점에서 조직과 고객이 기대하는 감정표현 규정을 지키려는 노력과 행위
우영희	2008	종사자와 고객 간의 상호 관계를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종사자가 자기감정과 표현을 규제하는 행동
최향, 임효참, 정무관	2008	조직에서 직무상 자신이 느끼는 감정표현과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표현에 차이가 존재할 경우, 조직 내 적응을 위하여 개인의 효과적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조직의 표현규범에 맞도록 감정을 조절하는 개인적인 노력
김종진	2008	배우가 연기하듯이 타인의 감정을 맞추기 위하여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
김상호, 이지영, 최향석, 김오현	2009	직무 수행 중의 대인관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조직의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실제 감정과는 상관없이 조직에 의해 바람직하다고 규정된 감정으로 표현하려는 노력
이유라, 홍성화	2010	조직 내에서 자신이 경험하는 감정과 조직의 감정표현규범에 의해 요구 되는 감정표현에 차이가 존재할 때, 조직 종사자가 효과적인 업무 수행 또는 조직 내 적응을 위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조직의 표현규칙에 맞추는 행동
김구, 한기민	2012	직무수행하는데 있어서 고객과의 상호과정에서 종업원의 내면적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거나 표출하지 않고 수정하거나 조절하기 위해 투입되는 노력의 총합
김종욱	2015	항공객실승무원의 감정노동이 사회적 교환관계(LMX, TMX)의 질이 높아 질 때 직업윤리도 함께 높아지는 조절 효과를 입증
임용준	2016	호텔 종사원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고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직원의 감정노동활동을 축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서비스 품질의 개선은 보이지 않는다.

자료: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논자 재구성

2) 직무스트레스(Job stress)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한 연구는 1970년대 들어 조직적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행동과학, 산업심리학, 경영학과 같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연구되었고 해석 또한 여러 가지 의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직무스트레스는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이동영 · 노희연, 2014). 직무스트레스는 조직에 특정한 것으로서 잠재적으로 긴장상태를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스트레스 원인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개념이다(Greenhouse & Parasuraman, 1996). Hall & Mansfield(1971)는 ‘조직이나 사람과 같은 시스템에 작용하는 외부적인 힘’이라고 정의하였고, Cooper & Marshall(1976)은 ‘직무와 관련 있는 부정적인 환경요소로서 직무과정, 역할 갈등 성, 역할 모호성과 열악한 작업조건 등이 라고 하였다. 미국 심리학자 Freudenberger & Cobb(1974)의 직무스트레스는 개인의 능력과 기술이 직무의 규정에 부적합하고, 조직(부서)이 제공하는 직무환경과 개인의 요구가 부적합한 상태라고 하였으며, Harold & James(1981)는 직무스트레스를 조직이나 사람 같은 시스템에 작용하는 외부적인 힘이라고 하였다.

Schuler(1980)도 역시 직무스트레스를 기술, 능력, 직무요구의 부적합 그리고 직무순환에 의해 제공되는 개인욕구와의 부적합이라고 하였다.

Luthans(1989)는 직무스트레스를 조직구성원과 환경사이의 순응적으로 교류하는 관계 혹은 상호 거래적인 입장에서 파악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직무스트레스를 조직구성원과 환경사이의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하였다.

미국의 국립산업 안전보건연구소(NIOSH, 1999)는 직무스트레스를 직무에서 요구하는 근로자의 자원이나 능력과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

해한 정서적, 신체적 반응이라고 정의하였고,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발표한 업무관련스트레스 안내서(박정선, 2005)에서는 작업환경, 업무조직, 업무내용의 불건전한 측면이나 해로운 측면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생리적, 행동적 반응의 패턴이라고 하였다. 한국산업안전공단(2005)에서는 직무요건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바램, 자원과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유해한 정서적, 신체적 반응이 직무스트레스라고 정의하였다.

직무스트레스는 개인적 차원에서 우울, 불안, 불면, 두통, 소화장애와 같은 스트레스성 질병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도 각종 안전사고와 노사관계의 악화, 결근율과 이직률의 증가, 직무만족도와 생산성 저하, 조직몰입 감소 등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직무스트레스가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직무만족도와 생산성 저하, 조직몰입 감소 등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비용을 발생시키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서 조직과 학계에서는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완화하는 조절요인과 인사관리적 요소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장애리, 2016).

또한 김성은(2011)은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직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스트레스로 근로자와 직무조건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생하게 되는 스트레스의 한 영역이며 어느 정도의 긴장으로 알맞게 작용하여 좋은 성과를 유도하는 순기능적 스트레스와 조직원의 능력 한계를 느끼게 하여 심리적, 신체적 불균형을 초래하는 역기능적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자별로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를 정리해보면 다음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

연구자	년도	내용
Freudenberger & Cobb	1974	직무스트레스는 개인의 능력과 기술이 직무의 규정에 부적합하고, 조직(부서)이 제공하는 직무환경과 개인의 요구가 부적합한 상태
Schuler	1980	기술, 능력, 직무요구의 부적합 그리고 직무순환에 의해 제공되는 개인요구와의 부적합
Harold & James	1981	조직이나 사람 같은 시스템에 작용하는 외부적인 힘
Luthans	1989	조직구성원과 환경사이의 순응적으로 교류하는 관계 혹은 상호 거래적인 입장에서 파악하여야 한다고 강조
Greenhouse & Parasuraman	1996	조직에 특정한 것으로서 잠재적으로 긴장상태를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스트레스 원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개념
박정선	2005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작업환경, 업무조직, 업무내용의 불건전한 측면이나 해로운 측면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생리적, 행동적 반응의 패턴
한국산업안전공단	2005	직무요건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바램, 자원과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유해한 정서적, 신체적 반응
김성은	2011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의 긴장으로 좋은 성과를 유도하는 순기능과 심리적, 신체적 불균형을 초래하는 역기능적 스트레스로 구분
장애리	2016	반응개념(response definition)으로서의 직무 및 직무환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과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

자료 :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연구자가 재구성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를 “직무에 있어서 개인의 내재된 성격과 부적합이 일어날 때 생기는 스트레스 현상으로 정신적, 심리적 불균형상태” 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3) 성격

성격(性格, Personality)이란 개념은 근대화 과정을 통해서 집단주의 문화가 약해지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 등은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되었다(홍숙기, 2005).

Allport(1961)는 성격을 환경에 대한 개인의 특유한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는 심리 신체적 체계인 개인내의 역동적 조직이라고 하였고 H.S. Sullivan은 인간 상호 관계 속에서 개인의 행동을 특징지어 주는 지속적인 심리적 특성으로 성격을 묘사하였고(신명희, 2014), Catell(1965)은 개인이 어떤 환경에 주어졌을 때 그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해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Mischel & Mischel(1976)은 보통 한 개인이 그가 처한 생활 상황에 어떻게 적응하는가를 특징짓는 사고와 감정을 포함한 구별되는 행동 양식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Pervin과 그의 동료들(2005)은 개인의 감정과 사고와 행동을 일관된 방식으로 지속시키는 개인의 특성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이용남(2004)은 성격은 한자어로 성품(性)과 격식(格)이 합해져서 이루어진 말로서 내면의 품성이 격식을 차려서 나타나는 심리와 행동의 패턴을 의미하고 개인의 행동과 사고를 규정하는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상담원의 성격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MBTI 성격검사를 적용하였다.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는 심리학자 융의 심리유형론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차이점과 갈등을 이해하고자 하는 Katharine Cook Briggs와 Isabel Briggs Myers 모녀에 의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인식과 판단에 대한 G.G. Jung의 태도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개인이 쉽게 응

답할 수 있는 자기보고(self report) 문항을 통해 인식하고 판단할 때의 각자 선호하는 경향을 찾고, 이러한 선호경향들이 하나하나 또는 여러 개가 합쳐져서 인간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서갑주, 2016).

MBTI의 성격유형은 외향형(E)과 내향형(I), 감각형(S)과 직관형(N), 사고형(T)과 감정형(F), 판단형(J)과 인식형(P) 4가지의 양극적 선호경향에 의해 총 16가지의 성격유형이 나타나며 <그림 III-1>과 같다.

외향(Extraversion)	에너지방향, 주의초점	내향(Introversion)
감각(Sensing)	인식기능(정보수집)	직관(iNtuition)
사고(Thinking)	판단기능(판단, 결정)	감정(Feeling)
판단(Judging)	이행양식/생활양식	인식(Perceiving)

자료: 한국MBTI연구소, <http://www.mbti.co.kr>

<그림 III-1> MBTI의 4가지 선호경향

(1) MBTI의 4가지 선호경향

외향(E)-내향(I): 태도 또는 에너지의 방향을 의미한다. 외향적 태도(E)를 가진 사람은 에너지의 방향이 주로 외부세계의 사람이나 대상을 향한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나 외부적 사건에 더 관심이 많으며 밖으로 나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함으로 활력을 얻는다. 그에 반해 내향적 태도(I)를 가진 사람은 에너지 방향이 주로 내부세계의 경험이나 생각으로 향한다. 소수의 사람을 깊이 있게 사귀는 것을 선호하며 조용하

고 신중하여 이해한 후에 행동하는 경향을 가진다. 때때로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고 생각이나 사색을 통해서 에너지를 비축한다.

감각(S)-직관(N): 인식기능 또는 인식과정을 의미한다. 이 두 기능은 세상을 어떻게 지각하고 정보를 수집할 때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지에 대한 선호 경향이다. 감각형(Sensing)은 오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정보에 관심을 두며 실제의 경험이나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며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다. 세부적인 사실을 잘 기억하고 실용적이며 일처리를 정확하게 하지만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을 보는 경향이 있어 전체를 조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직관형(Intuition)은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육감이나 통찰을 통해서 즉각 번역(제석봉, 1998)하여 그 이면의 가능성이나 의미를 보려고 한다. 직관을 선호하는 사람은 상상을 하고 미래지향적이며 추상적이고 개념적이다. 또 이들은 현재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려고 하며 관습적인 것보다는 창조적이고 독자적인 것을 선호한다. 전체를 보는 눈이 있으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을 간과할 수 있다.

사고(T)-감정(F): 판단기능 또는 판단과정을 의미한다. 이 두 기능은 의사결정과 판단의 선호경향이다. 사고형의 관심의 주제는 사실과 진리이다. 사고형(Thinking)은 객관적인 사실과 원리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판단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려고 한다. 결정을 내릴 때 이성을 적용하고 개인적 가치와 욕구에 중립을 유지하려고 하고, 분석적이며 논리적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감정형(Feeling)의 관심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논리적인 분석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에 있다. 개인의 가치나 집단의 가치, 이상, 이해, 의미 등을 중요시하며 따뜻하고 우호적인 인간관계에 초점을 두고 상황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을 하며 좋다, 나쁘다로 판단한다.

판단(J)-인식(P): 외부세계에 대한 태도나 적응에 있어서 어떤 과정을 선호하는가를 말한다. 판단과 인식은 개인이 외부세계에 대응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 판단을 선호하는 사람은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보다는 신속한 결론을 내리기를 선호한다. 판단(Judging)이란 개념은 어떤 것을 평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받아들이기보다 이를 토대로 하여 결론을 내리고 종결을 짓고 활동을 계획하고, 어떤 일이든 조직적·체계적으로 추진하며 모든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여 정한 시간에 끝을 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성향을 말하며 외부로 표현되는 행동도 단호하고 빈틈없고 생산적이며 목적의식이 뚜렷하다(최정윤, 2010). 반면, 인식형(P)은 삶을 통제하고 조절하기 보다는 상황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또한 자발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적응력이 높으며, 새로운 사건이나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상황에 놓여지는 모험을 즐기며 자유를 좋아한다(www.career4u.net).

(2) MBTI의 4가지 심리기능

ST형(ISTJ, ISTP, ESTP, ESTJ):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유형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주로 감각을, 판단은 사고에 의존한다. 이들의 관심사는 오감에 의해서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를 맡아보는 것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원인과 결과에 이르기까지 논리적인 추론과 객관적인 분석으로 사실에 근거한 결정을 한다.

SF형(ISFJ, ISFP, ESFP, ESFJ): 동정적이고 우호적인 유형으로 정보 수집을 주로 감각에 의존하지만 판단을 할 때는 감정을 선호한다. 감각을 통해서 직접 모을 수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개인의 가치체계에 기

초한 주관적인 결정을 한다. 이들은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물보다는 사람에게 더 관심이 많으며 구체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우호적이고 따뜻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다.

NF형(INFJ, INFP, ENFP, ENFJ): 열정적이고 통찰적인 유형이다. NF형도 SF형과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따뜻함을 지니고 있다. SF형의 관심이 구체적인 상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직관을 인식기능으로 사용하는 NF형은 앞으로의 가능성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람들의 가능성에 관련된 일에 관심이 많으며 인간적인 따뜻함과 통찰력으로 타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헌신이 가능한 유형이다.

NT형(INTJ, INTP, ENTP, ENTJ):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유형으로 직관을 인식기능으로 사용하지만 NF형처럼 인간의 가능성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것에 대한 관계성에 관심을 가진다. 인간의 문제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측면에 더 관심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로 과학적인 연구나 수학 등 복잡하고 추상적인 분야에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김균원, 2016).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활용하여 MBTI 성격유형을 적용하여 발표된 학위논문 중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직무와 관련된 연구를 고찰해 참고하였으며 <표 III-5>와 같다.

김민희(2002)는 해외브랜드 프랜차이즈 패밀리레스토랑 중 서울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4개 업체의 정규직 종사원을 대상으로 하여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직무만족도와 요인별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성격검사를 실시한 결과 16가지 성격유형별에서는 ESTJ가 가장 많았고, 선호지표별로는 외향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격유형에 따른

요인별 직무만족의 결과 외향형, 감정형이 만족도가 높았다.

박정(2008)은 학생상담 봉사자의 성격유형과 직무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ISTJ가 가장 많았고(31.9%), 기능별로는 SF유형(61.4%)이, 기질별로는 에피메테우스적 기질인 SJ유형(64.5%)이 높게 나타났다.

임명수(2009)는 사립 D대학교 사무직원의 경력개발제도 내용 중 하나인 성격유형을 개인의 성격적인 차원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써 MBTI를 사용하여 그들의 성격 유형을 알아보고 그들의 성격유형에 따른 선호 직종과 직무만족간의 관계성을 밝히고자 하였고, 사립 D대학교 사무직원들은 내향형(I)과 사고형(T)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능별 성향에서는 대부분이 감각형(S)이고, 판단형(J)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별 유형에서는 ST가 가장 많고, 성격유형 분포는 ISTJ가 가장 많은 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영(2011)은 미용 서비스업 종사자의 성격유형과 서비스 지향성, 고객 지향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MBTI를 이용하여 16개의 성격유형과 4개의 선호 경향으로 구성되어 잠재되어 있는 선천적 심리 경향을 찾은 후, 미용 서비스업 종사자의 일반화 되어 있는 성격유형을 도출해내었으며, 이러한 성격유형에 따른 서비스 지향성과 고객 지향성의 차이를 분석하여 서비스 지향성 교육에 유효한 기초자료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이한나(2011)는 MBTI 성격유형을 통하여 직원의 성향을 분석 후 이 유형들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고, 직무만족과 조직몰입도가 높은 MBTI 기능유형은 논리적 창의적 유형(NT)이었고, 기질유형에선 프로메티안적 기질(NT)과 에피메테우스적 기질(SJ)이 우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희(2013)는 H보험회사 고객 접점에서 근무하는 여성 종사자의 성격유형을 파악하고 유형별 직무만족과 그 결과를 도출하여 성격유형과 직무만족간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MBTI 성격유형을 진단하는 도구로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E(외향), S(감각), F(감정), P(인식)형이 직무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화영(2014)은 감성노동 강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직무만족의 지각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회복탄력성과 직무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직무관련 스트레스 관리를 통한 직무만족도 향상 및 코칭.교육 프로그램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표 III-5> MBTI 연구논문

연구자	년도	내용	학위
김민희	2002	패밀리레스토랑 종사원의 MBTI 성격유형과 직무만족과의 관계-해외브랜드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석사
박정	2008	학생상담 봉사자의 성격유형과 직무 만족도와와의 관계	석사
임명수	2009	MBTI 성격유형과 선호직종 및 직무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사립 D대학교 사무직원을 중심으로-	석사
박선영	2011	미용 서비스 종사자(헤어)의 성격유형별 서비스 지향성과 고객 지향성의 관계-MBTI를 중심으로-	석사
이한나	2011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	석사
정진희	2013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접접직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H 보험회사 여성 종사원을 대상으로	석사
성화영	2014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NLP선호감각유형, MBTI성격특성과 회복탄력성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에 관한 연구	석사
김균원	2016	유아특수교사의 MBTI성격유형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수준 및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석사

본 연구에서는 결혼상담원의 감정노동자로서 직무수행에서 느끼는 감정을 알아보고, 직무에 있어서 개인의 내재된 성격과 부적합이 일어날 때 생기는 스트레스를 MBTI 성격유형을 적용하여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 연구를 통해 결혼상담원의 긍정적 활동환경을 조성해 가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3. 결혼상담원의 사례분석 결과

1) 결혼상담원의 직무와 직무스트레스

(1) 근무시간에 대한 스트레스

직장인들은 근무 요건이나 자신의 능력과 바램, 자원과 일치 하지 않을 때, 정서적 신체적 반응이 나타나는 직무스트레스(한국산업안전공단, 2005)를 겪게 된다. 결혼상담원의 직무는 고객인 신랑신부를 직접 대면하고, 성혼까지 이끌어 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과거에도 ‘중매는 잘못하면 뺨이 석대, 잘해도 본전’ 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서로 다른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서로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남녀가 평생 해로할 수 있도록 맺어주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직무특성 상 매우 신중해야하는 일이며, 고도의 직무 스트레스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중개 상담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소한 일이 크게 비화되어 성혼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호간에 호의를 가질 수 있도록 했던 상담원의 말이 오해를 일으켜, 성혼이 거의 이루어질 상황에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도 겪게 된다. 따라서 결혼상담원 직무는 매우 세밀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고객인 신랑신부에 대한 배려와 더불어,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등 매우 감정적인 노력을 수반하는 일이다.

사례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결혼상담원의 업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평균 8시간이다. 그러나 결혼상담원 직무특성상 근무시간이 끝난 후 야간까지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신랑신부 고객들은 직장 퇴근 후나 주말을 이용해 방문하거나 상담을 의뢰하기 때문에 주중 야간이나 주말도 결혼상담원들에게는 직무시간이다. 사람들은 일과 휴식을 적절히 병행해야 하나, 퇴근도, 휴일도 없는 직무특성 상 결혼상담원

들이 겪게 되는 직무스트레스는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사례 (3,4,5,6,7,8,)). 특히 사례자 8은 일주일에 3~4회 하는 야근으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경험하였고, 직무특성상 야근이 많아 개인시간을 갖기 어렵다고 했다.

저희 업무가 직장이 있는 일반사무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상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객들은 보통은 회사 퇴근 후나 주말을 이용해 방문하거든요. 그렇다고 출근시간이 늦는 것도 아니고, 보통 10시 출근하잖아요. 근데 퇴근은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고객이 10시에 방문하겠다고 하면 기다려야죠. 다음에 오랄 수도 없잖아요. 그런 날이 계속되면 피곤하죠. 더러는 야근수당을 주는데도 있다고 해요. 그런 재미라도 있으면 야근을 해도 덜 피곤하겠죠?(사례자 8).

일반직장에서는 야근이나 주말근무에는 수당이 책정된다. 그러나 결혼상담원에게는 야근수당도 주말근무수당도 없는 상황에서 직무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된다. 물론 성혼이 된다면, 그 성과에 대한 자부심으로 성혼과정에서 겪었던 직무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는 길이 되겠지만, 혹여 성혼도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들이 겪는 직무 스트레스는 매우 증폭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 예약 후 사전 연락도 없이 안 오는 경우

노쇼(No Show), 예약부도란 고객이 예약을 해놓고 예약 취소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원래 항공사의 업무 용어였으나 현재는 항공사, 호텔, 외식, 의료 등의 업계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항공사나 호텔의 경우 신용카드 가승인 상태로 보증금을 걸었다가 노쇼

했을 때 남은 날짜에 따라 해당 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수수료로 떼고 환불이 된다. 그러나 국내 결혼중개업에서는 이와 관련한 방침이 없어 예약 시간에 기다리고 있던 결혼상담원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예약부도 근절 캠페인 (noshowno.modoo.at)’ 을 벌이고 (www.essen.co.kr) 있을 정도이다. 사례 4의 경우는 전형적인 노쇼 고객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경험을 말하고 있다. 특히 주말시간에 예약된 고객상담이 무산이 될 때 상담원들이 겪는 직무스트레스는 ‘자신의 시간에 대한 투자에 대한 허탈함’ ‘예약을 지키지 않는 고객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등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쇼 고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예약문화의 확산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을 토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결혼상담원은 노쇼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다.(사례 1,2,3,4,5,6,7,8,9,12)

주말에만 시간이 된다고 해서 토요일에 1시간 넘게 걸려서 출근했어요. 예약 시간이 다돼서 연락하면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보는 거예요. 주말까지 힘들게 출근했는데 연락도 없이 안 오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우리도 주말엔 쉬고 싶거든요. 외국의 경우에는 미리 보증금을 받아 놔다 노쇼를 내면 일정 금액을 차감한다고 들었어요. 우리도 그런 예약 문화가 정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담원들은 오직 그 한 사람 만을 위해 시간을 내서 기다리거든요(사례자 4).

온다고 하고 안 올 때가 제일 스트레스 받죠. 특히 주말이요. 사람들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나 봐요. 연락이라도 해주면 좋겠어요. 차라리 안온다고 해주면 포기하는데 연락이 없으면 혹시라도 올까봐 아무 일도 못하고 기다리잖아요. 그런 건 서로 지켜야 하는 매너 아니에요?(사례자 6).

(3) 의사소통이 안 될 때 느끼는 감정피로

결혼상담원들은 고객과의 상담 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회원가입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사례3,4,5,7,11). 이는 대부분 고객과의 상담과정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로, 고객의 요구와 결혼상담원의 이해가 다를 때 감정을 억누르고 응대하는 과정에서 감정 노동을 경험한다고 밝혔다.

우리가 하는 일이 사실 고객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저희도 회원가입이 목적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고객의 입장에서 상담을 하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과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성은 전문대 졸업한 간호사인데 나이가 36세예요. 그런데 남성 전문직만 소개해 달라는 거예요. 연애면 모를까 결혼시장에서 나이가 어린것도 아니고 전문직만 고집하면 결혼이 힘들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해준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절대 결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때 확 올라오는 감정을 누르고 상담을 계속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 받아요(사례자 5).

우리도 영업적이잖아요. 회원가입이 많이 안 되면 스트레스 받죠. 저는 회원이 아니라 회사와 의사소통이 안돼서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는 월급이 아니라 인센티브제고 자영업으로 분류돼서 별다른 복리후생이 없어요. 회사에 얘기하면 전혀 먹히질 않아요. 매번 얘기 할 때마다 감정을 억누르는데 스트레스 받죠. 저희는 한 달 내내 출근해도 실적이 없으면 수입이 없어요. 대기업들이 이런 업종에 들어와서 매니저들 처우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본 복리후생도 좀 해주고. 우린 4대 보험도 안 되잖아요. 매니저들 수입이 안정되면 고객에 대한 서비스도 좋아지지 않겠어요?(사례자 7).

사례4의 경우는 성격이 ISTP로 사고(T)를 주 기능으로 사용하는 상담원으로, 상담 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고객에 대해 감정의 피로를 경험한다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였다. 사례7의 경우는 ISTJ로 회원가입이 안 된 경우, 인센티브의 기회가 상실되므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상담원들의 처우를 개선해 준다면,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임을 제안하여, 직무스트레스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언급하였다. 특히 사례 7은 기질상 SJ 로 소속집단에서의 안정적인 제도 욕구가 다른 유형보다는 뚜렷한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이 결국에는 결혼상담 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4) 미팅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

매칭을 전문으로 하는 상담자는 매주말이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사례10). 스트레스 상황은 일상적인 자극도 과도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전화벨이 울릴 때의 놀람이나 고객의 전화 화풀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을 감내하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례는 상담원을 배려하지 않는 고객으로 인하여 마음을 상처를 받는 전형적인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다.

성혼 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미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스트레스를 겪는데, 무조건 예쁜 여성을 찾는 전문직 남성들의 거절(사례11), 가봐도 부러울만한 경제력을 요구하는 여성(사례6)의 경우는 미팅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결혼상담원들을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만든다.

저는 아무래도 매칭이 잘 안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주말에 미팅 잡아 놓고 전화벨이 울리면 깜짝깜짝 놀라기도 많이 했었어요. 미팅 상대방이 맘에 들지 않으면 전화로 화풀이를 하거든요. 예전에는 소리고 지르고 욕설을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구요. 저도 지금은 경력도 쌓이고 요령이 생겼지만 그래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한동안 이 일을 그만 둘까도 생각했어요(사례자 10).

또한, 이성을 볼 때 남성은 여전히 외모 위주로 보는 경향이 있고 여성은 다른 조건보다 경제력을 우선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문직에 있는 남성들은 거절이 많아요. 무조건 예쁜 여성으로만 해달라고 하니 매칭이 어렵죠. 사실 우리나라에 예쁜 여성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10번 넘게 소개를 해도 다 거절하면 정말 일하기 힘들죠. 전문직 남성들은 원하는 여성상이 정해져 있는 편이에요. 저희끼리 하는 말인데요. 의사는 고양이상의 여성을 좋아하구요. 법조인들은 강아지상의 여성을 좋아한다고 해요. 정확한건 아니구요(사례자 11).

요즘은 회원가입이 쉽지 않아요. 사회가 시끄러워서 그런지 결혼하겠다는 미혼 남녀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어떤 배우자 찾고 있냐고 물어보면 여성은 무조건 경제력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방송에도 나오는 유명한 플로리스트라며 37세인데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안 본다면 100억 이상만 해달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성혼이 잘 안돼요. 너무 터무니 없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얘기하면 소개하기가 어렵거든요. 내가 가진 조건이랑 비슷해야 성혼이 되고 잘살더라구요(사례자 6).

(5) 여성의 고학력 및 고 연봉으로 인해 매칭이 안 되는 경우

개화기 이후 자유주의의 사조가 들어오면서 여성의 교육수준과 지위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현대 여성은 고학력에 따른 고연봉자가 많고 이는 혼인율의 감소와 초혼 연령이 늦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혼중개업에 가장 많이 분포돼 있는 여성이 고학력과 고연봉인 경우가 이를 뒷받침 한다. 고학력인 여성의 매칭은 조건이 까다로워 결혼상담원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이다. 특히 나이가 높은 전문직 고학력 고연봉 여성은 상대의 학벌, 경제력, 집안 모든 것이 마음에 드는 조건을 맞춰주길 원하므로 상담원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사례11은 ENFP 성격유형으로 매우 상세하게 스트레스 상황을 표현하였다.

우리 같은 결혼중개업을 찾는 여성들은 주로 30대가 많아요. 30대 여성들은 20대보다 고학력자나 고연봉자가 많은데다 보통 자신보다 좋은 조건의 남성을 찾기 때문에 맞는 배우자를 찾아주기 어려워요. 다른 건 안본대요. 그냥 본인이랑 비슷한 환경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게 맞추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 여성이 37세고 명문대 졸업한 변호사예요. 외모도 아나운서 시험 봤을 정도로 예뻐요. 본인은 많이 내려놨다며 밥 먹고 살만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올해에 꼭 결혼하고 싶다고 얼마나 절실하게 얘기하는지 정말 좋은 배필을 구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막상 소개 들어가니까 이 남성은 이래서 싫고, 저 남성은 저래서 싫다는 거예요. 결국엔 본인과 맞는 학교·집안·경제력 다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남성은 20대나 30대 초반 보거든요. 여성이 본인 나이는 생각 안하는 거죠. 회원이 본인의 처지를 모르고 갈팡질팡 할 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사례자 11).

2) 結婚相談員의 자질과 역할

(1) 인성과 품성을 갖춘 상담원

결혼상담원의 자질에 대해 대부분의 상담자들은 인성과 품성을 갖춘 상담원이어야 한다(사례자 1,2,3,4,5,6,7,8,9,10,11)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직, 책임감, 진정성, 공감, 끊임없는 자기관리, 품격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인성과 품성은 결국 결혼상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으며, 보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진정성 있는 가치로운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해야 한다는 자기각오와 같은 바를 표현한 것이다.

특히 사례 1과 사례 6 그리고 사례9는 성격상 TJ 기능을 갖고 있어, 타인의 비난이나 부정 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상담원의 업무로 인하여 고객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는 것을 못 참아 내는 성향을 갖고 있으므로 더욱 자신의 업무를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상담원의 모습을 보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인다.

부풀리고 사기 치는 사람은 이 일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은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바르고 정직하고 책임감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사기꾼 밖에 안돼요. 고객을 받아 놓고 책임감 없이 사라지면 피해는 고객에게 돌아가고 결국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거든요(사례자 1).

인성이 좋아야 돼요. 고객을 대할 때 진심을 다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고객의 문제를 같이 공감하고 들어주고 조언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주는 일도 우리 상담자의 일이거든요. 평생의 배필을 만나게 하는 일인데 절대 가벼운 마음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사례자 2).

우리가 하는 일은 미혼남녀의 가교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진정성있게 해야 하구요. 저는 이 친구 정말 내가 결혼 잘 시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해야돼요. 어떻게 보면 저희도 영업직이구요. 영업직원들 보면 머리도 2:8로 깔끔하게 하잖아요. 저는 결혼상담원 교육시킬 때 구두 굽이 까져 있는지도 확인하라고 해요. 자기관리가 정말 필요해요. 저는 라식수술 할 때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의사인지 확신을 가지는 곳에서 해요. 하물며 일생을 같이 살아야 하는 배우자를 소개시키는 일인데 고객이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사례자 6).

이 일은 진정성을 갖고 해야 돼요. 너무 장사꾼처럼 하면 고객들이 거부감을 느껴요. 그리고 상담원 자신을 위해 끊임없이 관리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외모만 가꾸라는게 아니라 인격도 가꾸고 품격도 가꾸고요. 고객이 정작 상담원과 대화가 안 된다는 말을 하면 안 되죠. 저도 이 일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어요(사례자 9).

(2) 활달하고 배려심있는 상담원

MBTI 성격유형 검사에 나타난 결과, 12명의 사례자 중에 외향의 성격유형이 8명이고 내향이 4명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활달하고 배려심있는 상담원이 업무에 더 적합하게 보인다. 외향의 성격의 상담원은 사람만나는 일을 좋아하고 명랑하며, 활동에 적극적이고, 말로 표현을 잘한다.

좀 외향적이고 명랑한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요. 가끔 고객하고 트러블이 생겨도 밝은 사람은 바로 털어버리는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며칠 동안 힘들어 하는 걸 봤어요. 이 일이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 고객도 엄청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 냈다 이거죠 뭐. 그런 일이 생겨도 금방 잊어버리는 성

격이 좋은 것 같아요(사례자 2).

이 일은 활달하고 사람만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잘해요. 아무래도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보다는 좀 서글서글하니 말도 잘하고 붙임성 있는 성격이 오래 하더라구요.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있으면 더 좋구요. 그런 사람들이 동료하고도 관계가 좋고 일도 재미있어하고 그래서 오래하나 봐요(사례자 8).

(3) 경청하고 공감하는 상담원

상담원들은 고객의 반응에 경청하는 것이 기본이다. 잘 듣고 그에 따른 적절한 반응을 하여, 고객이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은 결혼상담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임을 알 수 있다. 사례 6의 경우는 이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상담의 기본은 경청하고 공감하는 일이지요. 고객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줘야 돼요. 가끔 자질이 안 되는 상담원이 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로 상담에 들어가서 본인의 생각대로 고객을 가르치려 들고 고객을 혼계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고객은 너무 피곤하죠. 고객이 상담원한테 배우러 온건 아니니까요. 당연히 관계는 멀어지구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서 저는 무엇보다 상담원의 첫 번째 자질은 경청하고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사례자 6).

(4) 이성적인 상담원

면접대상자 중에는 MBTI 성격유형 중 심리기능 상 ST유형이 8명으로, 다른 유형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상담원의 자질 면에서 구체적, 사실적 정보를 바탕으로 논리적, 분석적,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감각사고형의 결혼상담원이 고객을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하여 고객의 Needs를 분별해 내고 보이지 않는 잠재된 요구까지도 이끌어 낼

줄 알아야 하는 상담자의 역할에 부응할 수 있다.

상담자는 좀 냉정할 필요도 있어요. 안 그러면 고객 이야기에 빠져들어가거든요. 그러다보면 내가 상담자가 아니라 고객이 된 것 같은 주객전도 되는 일이 생겨요. 가끔 상담자들이 신나서 본인 이야기만 하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본인은 상담 잘했다고 하는데 고객은 한마디도 못하고 듣기만 하다가는 형국이죠. 그런 상담은 좋은 상담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 고객이 회사에 전화해서 상담자를 바꿔달라는 컴플레인을 많이 해요. 고객하고 수다 떨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객하고 거리를 좀 두고 고객이 원하는 이상형을 빨리 분석해서 제시해 줘야 해요. 그게 능력이기도 하구요(사례자 1).

3) 결혼상담의 성공 및 실패 사례

(1) 성공사례

① 만혼자의 성혼

초혼의 연령이 점차 늦어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서울 남성과 여성의 초혼연령은 33세, 여자 30.8세로 모두 30세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증하듯 결혼상담원들은 만혼자의 성혼을 성공사례로 들었다(사례3, 사례8).

40대 남성인데 본인은 소위 말하는 스펙은 좋지 않지만 여성 보는 눈이 너무 높아서 결혼을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비용이 들어도 예쁜 여성만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예쁘지 않으면 여성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본인 스스로가 흥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예쁜 여성은 남성을 볼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따지거든요. 이 사람은 어렵겠다고 생각했는데, 예쁜 간호사 일을 하는 여성이 남성을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잘 됐다 싶어서 얼른 연락을 했죠. 다행히 남성도 좋다

고 하구요. 여성은 38세였는데 사실 여성도 급하긴 했었죠. 몇 달 안 있으면 39세니까요. 결혼에서 여성은 무엇보다 나이가 중요하거든요. 서울대 나온 의사 · 변호사도 30대 후반 되면 결혼이 힘들어지거든요. 어찌됐든 40대 만혼의 남성 이랑 30대 후반의 여성이 만나서 성혼이 되면 서로 좋은 일이지요. 지금은 교제중 인데 금방 상견례 한다고 할 것 같아요(사례자 3) .

남성이 연대 졸업한 연구원이었는데 40이 넘는 만혼이었어요. 어머니가 와서 상담을 했는데 아들에 대한 걱정이 많았어요. 공부는 좋아하는데 연애를 잘 못 해서 걱정이라며 다른 건 몰라도 아들이 착하다고는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성품이 너무 좋으신거예요. 이 일을 오래 해보면 아무래도 성품이 좋은 분들은 성혼이 잘되더라구요. 내가 그랬지. 아드님 걱정하지 말라구. 어머니 보니 아드님 걱정 안 해도 되겠다구요. 이후로도 어머니가 나한테 참 잘하더라구요. 뭘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을 써주시는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고대 졸업하구 모교에서 강의하는 예쁜 여성이 있어서 소개했는데, 이 여성도 어머니가 미용실해서 공부시켰다는데 엄청 생각하는 마음도 기특하고 둘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만나보라고 했어요. 만나서 첫 만남에 바로 성혼이 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아직도 가끔 연락하시고 주변에 소개도 해주고 그래요(사례자 8).

② 커플의 연령차를 극복한 성혼

90년대를 풍미했던 서태지가 16살 연하의 배우 이은성과 결혼을 발표하면서 세간에 화제가 됐다는 기사가 있었다(2013.5.15. 조선일보 “서태지와 아이들은 도둑들?”). 이는 2012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미혼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상적인 부부의 연령차의 조사 결과라고 밝힌 ‘3~4살’ 과는 큰 차이가 난다. 때문에 띠 동갑 이상의 나이 차이가 나는 성혼의 경우 남성을 도둑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남자가 나이가 많았어요. 소위 말하는 결혼조건이 좋다보니 떠돌이 이상의 여성을 찾았어요. 근데 요즘 여성들은 옛날 같지 않아서 조건보다 나이차이 없는 친구 같은 남성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인연을 못 만나고 있었는데 하루는 예쁘고 나이도 어린 여성이 나이 차이는 떠돌이도 상관없으니 경제력만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혹시 하는 마음에 남성을 소개시켰는데 만나자마자 서로 좋다고 하더니 6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남성이 기분이 좋으니까 성혼비도 바로 주더라고요. 그때 좋았지요(사례자 12).

③ 드라마 같은 성혼

결혼에 있어서 미혼남녀는 드라마 같은 성혼을 꿈꾼다. 대부분의 상담자들은 주변에서 비슷한 사람을 만나려면 굳이 비용 들여가며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주변에서 만날 수 없는 이상형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심리에 의해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남성은 34세 서울 명문대 출신 법조인이었어요. 아시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전문직이 인기 있는 신랑감이잖아요. 정말 집안 좋고 예쁜 여성들을 많이 소개했는데 다 거절했어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얼굴보고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주말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대놓고 물어봤어요. 결혼할 생각이 있냐구요. 그랬더니 본인은 집도 사냈고 필요한 결혼준비는 다 해냈다고요. 정말 결혼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소개해 준분들이 본인한테는 너무 과분해서 부담된다는 거예요. 아니 남성분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조건이신데 뭐가 부담되냐고 했더니 그제 서야 본인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다시 재혼하면서 가족이 많아졌다고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소개를 많이 받았는데 결혼까지는 안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접었다고요. 다른 조건은 안보고 예쁘면 된다더라고요. 마침 전문대를 졸업하고 20대에 연예인 활동을 하다, 30대가 되면서 결혼이 하고 싶어서 쉬고 있다는 여성이 있어 소개했더니 좋

다고 하더라고요. 여성도 당연히 좋다고 하구요. 여성이 외모는 정말 예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대학교를 못 다닐 정도로 힘들게 살았거든요. 게다가 어린 나이에 연예활동하면서 상처가 많았어요. 제가 중간에서 매개역할을 많이 했죠. 둘이 만나자마자 첫눈에 서로 좋아서 바로 교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혼중개업체를 찾나 봐요. 가끔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나거든요(사례자 11).

④ 재혼 커플의 성혼

2016년 8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6월 인구동향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6년 6월 이혼 건수는 9천 2백 건으로 나타났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2016 재혼 통계보고서’ 발표에 의하면 평균재혼연령은 남성 43.2세, 여성 39세로 조사되었고, 연령대별로 확인해보면, 30대가 전체의 47.3%(남 36%, 여 58.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나이 차이는 4.2세로 통계청의 자료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uoepisode.tistory.com).

난 재혼 전문이잖아요. 재혼은 성혼이 되기 정말 힘들어요..그래도 마음에 남는 성혼이 있는데 40대 후반 남자였어요. 대전에 살고 부인하고는 사별하고 애가 3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상담하면서 보니 남성이 성실하고 착한게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미팅만 나가면 안 되는 거야. 애가 셋이라고 여성들이 다 싫다고 했대요. 그래서 누구 해줄 사람 없나 찾고 있었는데, 마침 딸하나 데리고 사는 여성이 오랫동안 미용실을 하다 보니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온 거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둘이 어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미팅을 잡아 줬는데..이게 웬일이야..첫미팅에 서로 맘에 든다며 만나더니 몇 달 안 있다 재혼을 했어.. 나도 진짜 마음으로 기뻐더라고요.. 그게 내가 제일 기억에 남는 성공사례야(사례자 2)

성혼은 매우 어려운 과정인데, 특히 커플의 연령차를 극복(사례12) 하거나 드라마 같은 성혼(사례11), 재혼 커플의 성혼(사례2) 등 일반적인 조건의 남녀의 성혼이 아니라, 예상하기 어려운 성혼에 대해 결혼상담원들은 성공사례로 이야기 하고 있다.

(2) 실패사례

① 불량고객(Black Consumer)으로 돌변

결혼상담원들은 상담 시와 다른 소비자의 요구로 힘들었던 경험을 얘기했다(사례2,3,7,8). 상담 현장에서 고객을 너무 믿지 말라는 얘기를 한다. 고객은 자신들의 요구와 맞지 않을 때 언제든지 불량고객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 평범한 여성이었어요. 상담할 때 자기는 대단한 이성을 원하지 않는다며 평범하고 소박한 것처럼 얘기해서 가입비도 저렴하게 받고 회원등록을 했어요. 근데 막상 매칭에 들어가니까 너무 요구조건이 많은 거예요. 학교는 서울대 연대 고대만 보겠다고 하고 재산, 집안 다 좋아야 하구 직업은 전문직만 보겠다고 하니까 누굴 소개하기가 엄청 어려웠어요..그러다 보니 소개가 늦어지고 소개해도 안보겠다고 거절이 많으니까 매칭을 담당하는 결혼상담원도 좀 지쳐있었죠. 1달가량 소개가 없었나봐요. 고객이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소리지르고 막말하고 결혼상담원을 신고하겠다고 하고 오빠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환불 안 해주면 가만히 안 있겠다며 횡포를 부렸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떨려요(사례자 2).

② 미혼남녀의 높은 결혼이상형에 대한 요구

결혼에 있어서 너무 큰 환상을 가지면 성혼이 힘들다고 한다. 사례자 2는 고객이 너무 큰 환상을 가지고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면 배우자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유명연예인을 찾거나 현실감이 떨어진 이상형에 대한 성혼은 결국 성혼실패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사실 고객이 상담할 때부터 이 사람은 결혼이 되겠구나. 이 사람은 절대 안 되겠구나 하는 감이 와요. 결혼도 현실이에요.. 비용을 지불하고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한다고 해서 결혼에 대해 너무 큰 환상을 가지면 성혼이 안돼요. 가끔 유명 연예인 누구를 해달라거나 아나운서 누구를 지목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이유는 언제인지도 모를 주변의 소개보다, 확실하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현실적인 인식이 있어야 돼요. 본인의 처지는 무시하고 터무니없는 이상형을 얘기하면 저희도 힘들죠(사례자 3).

③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의견 불일치

부모세대들이 가지는 중매 혹은 결혼중개업에 대한 인식에 비해 자녀세대들은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이는 결혼중개업체에 가입했다 성혼이 안 된 주변의 사례로 인함일 수도 있고, 일생의 중요한 배우자를 만나는 일이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은 조건만남이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결혼시장에 나왔다는 것이 본인이 상품화 된 것 같고 등급화 된 것 같다는 개인적 불편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상담 잘하고 가서 다음날 탈퇴한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엄마는 친구랑 같이 와서 본인의 딸 좀 올해 안에 꼭 시집을 보내달라며 예쁘지 않아서 그런지 연애를 못하고 있다며 부탁한다고 하고 갔어요. 다음날 점심시간 지나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딸이 자기를 팔려고 그러냐며 당장 환불하라고 난리난리 쳤다며 탈퇴를 하겠다는 거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되더라구요(사례자 7).

엄마들이 문의를 많이 하세요. 미혼의 자녀들이 30세를 넘어가면 불안한가 봐요. 아들을 둔 엄마들 보다 딸을 가진 엄마들이 더 애가 타죠. 뭐가 못나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결혼상담원을 붙들고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찌됐든 주변 소개보다는 더 많은 회원들을 소개 받을 수 있다니까 와봤다는 거죠. 딸한테 얘기하면 싫다고 한다며 좋은 방법 없겠냐고 물어보세요. 어머니는 너무 하고 싶은데 딸이 반대를 하니 이리저리도 저러지도 못하겠다고요(사례자 8).

4) 결혼상담원의 당면 문제

(1) 상담원 자체의 비전문성

1985년 3월 7일 서울시의 결혼상담소 허가기준에 의하면 결혼상담원의 자격을 초급대학이상 소지자로 심리학, 사회학, 사회사업학, 교육학 전공자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2016년 12월 28일 서울시 강남구청 보육지원과에 확인한 결과 강남구 종사부에 등록된 결혼상담원은 대략 600~700명이며, 자격에 제한 없이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현황은 결혼상담원 자체의 비전문성으로 인한 신뢰감 하락으로 이어지며, 결혼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결혼상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는 이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사)한국심리상담협회에서 주는 결혼상담사에 대한 자격증도 가지고 있구요(꺼내서 보여준다). 자격증 딸려구 공부도 엄청 많이 했어요. 시험과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별로 활용이 되지 않아서 안타까워요. 이 일을 하다보면 상담에 대한 기본도 안 돼 있는 매니저들이 많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옆에서 가르쳐주고 싶을 때가 많아요. 이 업종도 빨리 자격증이 제도화됐으면 좋겠어요(사례자 1).

요즘은 고객들도 정보가 많아 대중회사보다는 노블회사를 더 많이 찾아요. 그런데 정작 결혼상담원이 노블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인성이나 성품이 상류층의 고객들을 상대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죠. 어머니들도 연세가 있으셔서 딱 보면 아세요. 결혼중개업체들이 결혼상담원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매너교육이나 상담교육을 해서 진짜 상담원 자체가 누구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결혼전문가일 필요가 있어요(사례자 7)

(2) 상업적 중매행위

결혼중개업체의 ‘상업적 중매’가 늘면서 소비자원에 피해상담 건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면 가입할 때와 다른 불성실한 회원관리로 인한 피해와 가입비 환급 거부와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처음 상담할 때는 고객이 요구하는 모든 이상형을 만나게 해줄 것처럼 하고 가입이후에는 관리가 안 되는데서 오는 불편함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질적인 면에서 결혼 전·후 상담 및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결혼상담원의 배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仲媒라는 일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소중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결혼상담원들이 너무 물질적인 부분만 앞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무조건 고객을 받아야 상담을 잘하는 줄 아는데 정말 그렇지 않아요. 고객을 받고 미팅을 못해주면 그게 다 빛이에요. 그 보다는 진정성 있게 관계를 하다보면 좋은 인연도 소개 시켜주고 그렇게 그렇게 넓혀가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상업적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해요(사례자 4).

매칭을 하다보면 결혼조건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남성의 경우 연봉이 낮거나 졸업한 학교가 서울이 아니거나 집안이 안 좋거나 하는 경우고 여성의 경우 외모가 많이 안 예쁘거나 하는 경우죠. 우리 일이 상담이랑 매칭이 분리돼 있잖아요. 상담은 무조건 가입을 시켜야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매칭 신경 안 쓰고 받아요. 근데 매칭에선 그런 경우 죽을 맛이죠. 소개를 해도 거절이 많으니까요. 그렇다고 소개를 안 할 수도 없구요. 이 일의 딜레마 인 것 같아요(사례자 10).

(3) 결혼상담원 양성을 통한 전문성 필요

면접 시 업무에 학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이 학력은 필요 없지만 전문교육은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고객에 대한 접점 교육, 에티켓, 상담의 기본 교육은 꼭 받아야 하고 전문가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고 반응하고 있다. 사례자 6은 과거에 K항공 승무원이었고 결혼한 이후에는 CS교육을 했고, 상담원 일을 하면서 과거의 직종 경험들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한다. 상담원들에게 필요한 기본교육에서 친절 서비스, CS 교육이 매우 유용함을 알 수 있는 바다.

요즘은 결혼중개업을 하는 회사들도 많이 생겨나고 시장규모는 커지고 있는데 정작 결혼상담원의 수준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상대하는 고객층이 전문직이나 해외 유학 다녀온 고객들이 많고, 문화적으로도 상위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결혼상담원이 너무 품격 없이 말하고 행동하면 고객들은 회사를 신뢰하지 않아요. 이 일을 오래하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사람 마음을 얻는 일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상담에 대한 전문지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사례자 3).

이 일을 하려면 교육을 좀 받아야 돼요. 6년 전에 정말 이 일이 호황일 때가 있었어요. 전화통에서 붙이 날 정도였어요. 그 때는 의무 교육이 있어서 결혼상담원들도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됐어요. 요즘은 자격증도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고객응대나 상담방법, 고객접점교육, 에티켓에 대한 교육은 꼭 필요해요(사례자 6).

(4) 정보의 불확실성

매일경제 기사(2016.9.12.)를 보면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한 40대 남성(의사)이 나이를 무려11살이나 속이고 이혼한 사실도 숨긴 채 가입을 한 후 초혼의 여성들과 만남을 한 사실이 밝혀져 징역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고 한다. 고객의 입장에서 결혼중개업체를 선택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관할구청에 등록·신고한 업체인지 알아보고, 신고된 중개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만 피해보상 등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고객이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았을 때 회사에 안전장치가 없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가죠. 예를 들면 요즘은 사실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서류상에는 깨끗한 거죠. 본인이 말을 안 하면 회사에서는 모르거든요. 그 상태로 미팅을 진행했고 결혼하려고 부모 상견례까지 했는데 그 때 안거죠. 회사에 배상을 요구하고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까지 들어가서 난리가 났었죠. 그런 경우 100% 환불해줘야 돼요. 다행히 우리 회사는 책임보험에 가입돼있어서 안전하지만 규모가 작은 회사라면 문제가 커지죠(사례자 9).

이 일을 하다보면 가끔 중독 증상을 보이는 분이 있어요. 한 남성은 다른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만남을 한 후 결혼까지 했는데 매칭 팀에서는 아직 호적정리가 안돼있으니까 미혼인줄 알고 소개가 들어갔어요. 보통은 결혼했으면 연락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 남성은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계속 미팅을 한거

에요. 그러다 소개받은 여성이 몇 달이 지난 사내 신문에 청첩장이 올라와 있는 걸 보고 난리가 난거죠. 전문직도 범위가 넓지 않아서 알아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여성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회사는 남성에게 개인정보를 속인 걸 문제 삼아 배상 받았어요. 남성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다른 여성을 만날 수 있으니까 재미와 호기심이 있었나봐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서도 신원을 속이고 계속 미팅을 하면 문제가 커져요. 그래서 요즘은 회사에서도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책임보험에 꼭 가입하더라고요. 고객입장에서나 회사입장에서 서로 안전한 게 좋죠. (사례자 11).

결혼상담원의 직무는 결혼을 희망하는 미혼남녀나 그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배우자를 찾아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 과정에서 결혼상담원들은 고객과 직접 만나면서 전형적인 감정노동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 업무 추진에서 감정 부조화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공적인 성혼에 대한 자부심과 보상 등에 대해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불량고객으로의 돌변이나 지나친 이상형을 의망하여 성혼이 되지 않는 실패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담원이 갖고 있는 당면문제로는 상담원으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이며, 이를 위한 각종 교육과 자격증, 직업윤리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II-6> 도출된 구성요소 및 하위구성요소

구분	구성요소	하위구성요소
1	직무스트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시간에 대한 스트레스 - 예약 후 사전 연락도 없이 안 오는 경우 - 의사소통이 안 될 때 느끼는 감정피로 - 미팅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 - 여성의 고 학력 · 고 연봉으로 인해 매칭이 안 되는 경우
2	자질,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성과 품성을 갖춘 상담원 - 활달하고 배려심 있는 상담원 - 경청하고 공감하는 상담원 - 이성적인 상담원
3	성공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혼자의 성혼 - 커플의 연령차를 극복한 성혼 - 드라마 같은 성혼 - 재혼 커플의 성혼
	실패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량고객으로 돌변 - 미혼남녀의 높은 결혼 이상형에 대한 요구 -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의견 불일치
4	당면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원 자체의 비전문성 - 상업적 중매행위 - 결혼상담원 양성을 통한 전문성 필요 - 정보의 불확실성

V. 結論 및 提言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결혼중개에 대한 사적고찰과 현재 결혼상담원을 중심으로 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결혼중개에 대한 사적 고찰은 문헌과 각종 자료를 중심으로 시대변화에 따라 결혼중개의 형식과 특징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결혼상담원이 직무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비롯하여 상담의 성공과 실패사례, 당면 문제 등에 관하여 심층면접조사를 통하여 질적연구를 시도하였다.

먼저 결혼중개에 대해 사적 고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사회에서의 결혼중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통의 혼속은 男歸女家婚으로 볼 수 있으며 ‘丈家든다’의 어원은 장인·장모 집에 들어간다는 혼인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선시대 이후에 이러한 혼속을 바꿔보려고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결혼중개는 『朱子家禮』를 포함한 『家禮輯覽』, 『四禮便覽』의 ‘議婚’ 편에서 ‘반드시 중매를 통하여 혼담을 주고받고 여자 집에서 허락한 후에 비로서 納采한다(必先使媒氏往來通言埃女氏許之然後納采)’고 명시하여 중매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朱子는婚禮의 議婚 부분에서 중매를 통해 혼인을 의논할 때에 빈부와 귀천보다는 혼인당사자의 연령과 덕행 그리고 양가의 법도와 길흉사의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하였고, 혼인당사자와 주혼자는 기년이상의 상이 없어야 성혼할 수 있었다.

둘째, 개화기의 결혼중개는 장철수(1995)의 연구를 바탕으로 조선후기 1840년부터 1945년 광복이전까지로 정하여 살펴보았다. 개항 이후 서구

문화의 유입과 신교육의 발달로 인해 전통혼례도 변화가 있었다. 전통사회에서의 혼인이 부모의 뜻대로 배우자가 정해지는데 반해 갑오 이후로 자유주의의 사조가 들어오면서 부모가 정해준 배우자를 거부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인생의 반려자를 찾고자 하는 자유혼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대개 고모가 중매를 서면 잘 산다고 하며, ‘잘하면 옷이 한 벌, 잘 못되면 뺨이 석 대’ 라는 말이 있었고, 성사되면 대개 옷 한 벌 해주는 것이 관례로 정착되었다.

셋째, 1945년 광복을 맞이한 시기부터 사회구조는 큰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시대변화는 혼례문화의 변화로 이어졌다. 6.25 민족상잔의 비극과 혼란시기를 거쳐 1961년 5.16혁명 이후 모든 제도가 재정비되었는데, 특히 가정의례를 실패를 바로 잡고자 '표준의례'가 공포되었다. 이는 전통사회의 가정의례를 시대변화에 맞추어 표준화하고 범국민적으로 생활 규범화하여 정착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이후 1993년, ‘家庭儀禮에 관한 法律’로 개명하였고, 이때부터 혼인의 주도권이 婚主에서 혼인 당사자로 대폭 이양되었고, 혼인절차는 간소화 되었으며, 사회일각에서 전통 혼인과정의 재현을 시도하였으나 서구식 혼인문화가 공공연히 정착되었다. 또한, 1994년 11월 3일 경향신문 “중매도 PC 통신시대”의 기사를 보면, 당시 종합정보통신망이었던 천리안을 통한 결혼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컴퓨터를 활용한 고객관리 및 매칭이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결혼중개업의 등장 이후의 결혼중개에서는 1980년대 이후 고도의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결혼문화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고, 개인적 친분 관계에 의한 소개나 소규모로 운영되었던 결혼중개업이 법인회사의 형태로 생겨나기 시작해 2012년 1,180개로 급증했다. 그러나 2016년 8월말 현재 884개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미혼남녀들은 근대화 과정에서 成人의 通

過儀禮로 여겨졌던 결혼이, 현대에 와서 개인들의 욕구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 변화되었고, 또한 여성의 교육기회 및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혼인 이외의 선택할 대안이 있으며, 미혼남녀에게 결혼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고 여기면서 혼인에 대한 경향이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혼례문화는 시대의 정치.사회.경제 문제와 밀접하게 연동하여 변화하고 있고 현대 미혼남녀의 혼례의식에 있어서 중매혼이 당사자의 의지를 배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기회의 경험을 위해 혼인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결혼중개업체를 찾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혼중개에 대한 사적 고찰을 토대로 하여, 현재 그 중개를 이어가고 있는 결혼상담원의 활동사례를 살펴보기 위하여 질적연구를 시도하였다. 2016년 10월25일부터 11월 5일까지 서울 강남구청에 등록·신고된 결혼중개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결혼상담원 중에 2년 이상부터 19년까지 현장경험을 가지고 있는 12명을 심층으로 면접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필사한 후 주제별로 현상학적 내용분석을 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상담원의 직무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직무 스트레스는 근무시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고 평일과 주말까지 연장되는 상담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했으며, 예약 후 사전 연락도 없이 오지 않는 노쇼(No Show)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담과정에서 고객과 의사소통이 안 될 때 감정을 억누르는 과정에서 감정노동을 경험한다고 했으며, 매칭을 전담으로 하는 경우 미팅이 원활하지 않아 고객으로부터 컴플레인을 받을 때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여성의 고학력 및 고 연봉으로 인해 남성과 미팅을 잡을 수 없을 때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결혼상담원의 자질과 역할에 관련하여 대부분의 결혼상담원들은 인성과 따뜻한 성품, 배려심 등을 갖추어야 하며, 정직, 책임감, 진정성, 공감, 끊임없는 자기관리, 품격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MBTI 성격유형 검사 결과 결혼상담원들은 주로 외향형이며, 감각형, 판단형의 성격이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리기능 상 ST유형이 8명으로 상담 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의 Needs를 알아차리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고객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경청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하였다.

셋째, 결혼상담의 성공적인 사례는 나이가 많아 결혼이 안 되는 만혼자의 성혼이나 나이차가 많은 연령차를 극복한 성혼과 드라마 같은 성혼, 재혼커플의 성혼을 들었고, 실패 사례로는 고객의 요구가 맞지 않을 때 혹은 의도적으로 불량고객(Black Consumer)으로 돌변하는 경우나 고객의 높은 결혼이상형에 대한 요구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의견 불일치로 인한 상담 실패를 사례로 들었다.

넷째, 결혼상담원들은 당면한 문제로 상담원의 비전문성과 상업적 중매행위, 결혼 상담에는 소홀하고 仲媒에만 치중하는 점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에 기인하는 일반인의 낮은 신뢰도 등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기존 결혼상담의 제 문제점을 해결하고 동시에 결혼 상담을 보다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결혼상담원 교육이 필요하며, 관련 지식과 상담기술을 기르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결혼상담원들의 긍정적 활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감정노동자로서의 결혼상담원에 대한 고객들의 인식변화와 더불어 제도적인 뒷받침과 상담업무의 전문화, 정규직화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몇 가지의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장서량이 많은 국회도서관, 국가전자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과 성신여자대학교 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이용하여 학위논문, 학술지자료를 검색하였으나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모든 자료를 망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둘째, 혼례의 變遷過程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 일간지 중 부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만을 검색하였기 때문에 타 일간지에서 기사화 한 정보를 검색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셋째,婚禮에 관한 모든 時代的인 상황과 쟁점을 파악하기 보다는 결혼중개에 대해서만 考察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넷째, 결혼상담원 12명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시도하여, 각 상담원의 내면적인 직무상 스트레스와 갈등을 파악했으나, 사례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결혼상담원의 일반적 상황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2.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를 통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을 일찍 하는 게 '덕목'이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결혼을 늦추는 추세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서울 남성과 여성의 초혼연령은 33세, 여자 30.8세로 모두 30세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불안이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오히려 상류층은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한 불편함으로 인해 결혼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활문화가 변화하면서 결혼문화도 많은 변화를 겪는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의례는 어떻게 변해

가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결혼 적령기의 미혼남녀들을 대상으로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결혼 상담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연구 필요가 필요하다.

넷째, 양적팽창으로 인해 포화상태인 결혼시장이 결혼중개를 단순히 상업적으로만 운영하는 데에 따르는 고객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질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 해결책으로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결혼적령기의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결혼 전·후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과거와 다르게 결혼을 했어도 이혼하는 경향이 많아지면서 배우자 선택에 신중을 기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따르는 결혼 전·후 교육은 미비한 상태이다. 결혼 상담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의 주요 제한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결혼상담원들의 직무·직무스트레스, 자질·역할,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당면 문제를 현상학적으로 탐색한 첫 연구라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앞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한 후속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禮記』

『朱子家禮』

『四禮便覽』

『家禮輯覽』

『增補四禮便覽』

한국일생의례사전(2014), 국립민속박물관

강옥수(2006), 朝鮮時代 儀禮書에 나타난 冠·계禮 연구 : 『家禮輯覽』
과 『四禮便覽』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은숙(1981), 서울시와 제주시의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정림(2001), 한국사회 변동과 혼례문화의 변화-1940년대~1990년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구영분(2007), 한국 차 의례에 대한 사적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가족
문화 소비자학과 박사학위 논문.

국사편찬위원회(2005), ‘혼인과 연애의 풍속도’, 서울;두산동아 p.259

고부자(2003), 우리생활 100년·웃, 서울; 현암사

고영진(1989), 15·16世紀 朱子家禮의 施行과 그意義,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_____ (1995), 조선사회의 정치·사회적 변화와 시기구분, 『역사와
현실』 18).

권광욱(1994), 육레이야기-관혼상제,향례,상견례-, 서울; 해돋이

- 권용규(2005), 『家禮輯覽』을 통해 살펴 본 동춘고택의 造營과 공간 이용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선강·어성연(2013), 30대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대한 경제자원의 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17(1).
- 김경민(2013), 한국의 도시지역 생활문화공동체 공간에 관한 연구- 수도권 지역의 자발적 소규모 공동체 공간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아(2016), 고객의 성격유형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Executive floor 서비스 요인의 중요도 인식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 김경일(2012), 근대의 가족· 근대의 결혼, 푸른역사.
- 김균원(2016), 유아특수교사의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수준 및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도기(1981), “혼례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두현(1980),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명나(1998), 도시주부의 혼례의식. 혼례행동 및 혼례만족-신혼기 주부와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모란(1993), 한국사회의 혼인거래관행에 대한 연구; 도시중산층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숙(2014), 한국 생활문화 교육을 통한 이주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해소 방안,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자(1982), 한국의 복식-개화기의 복식, 한국문화재보호협회, p. 407.
- 김상진(2001), 조선전기 주자학의 보급과 혼인제도의 변화,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기(2003), 沙溪 金長生의 學問과 禮學思想 研究,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시덕(2003), 家庭儀禮準則이 현행 상례에 미친 영향,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사.
- 김수산나(2007), 문화간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의 생활문화 교육 방안 연구-서양어권 초급학습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현(2005), 외국인을 위한 문화 교육으로서의 한국어 교재분석과 교재 구성의 방향, 한국어교육, 제16권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영천(2016), 질적연구방법론, 경기;아카데미프레스
- 김용갑(2014), 沙溪 金長生 禮學思想의 철학적 이해,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정(2011), 18세기 禮學 연구: 洛論의 禮學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애(2012), 인물 캐릭터를 활용한 <임진록> 교육방법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의숙(1989), 한국민속제의의 형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인옥(1997), 전통제례에 관한 생활 문화적 고찰과 현행제례의 실태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7), 가정의례연구, 경기;한국학술정보(주)
- 김정규(2010), 朝鮮時代 婚禮儀式에 관한 研究-女子婚禮服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욱(2015), 항공객실승무원의 감정노동이 직업윤리에 미치는 영향- 소명의식과 사회적 교환관계의 조절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종진(2005), 가례백과, 서울; 은광사
- 김지유·조희선(2014), 대학생의 이성 관련태도 및 결혼가치관과 결혼
이미지가 결혼기대연령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9(2).
- 김지영(2007), 연애라는 표상, 서울; 소명출판.
- 김지혜(2015),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소비경제생활문화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춘남(1997), 『한국사』, 서울;삼광출판사.
- 김향숙(2015), 畿湖士林 禮書의 書誌的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희자(2008), 전통혼례 의식절차에 관한 소고, 국제차문화학회 전주차
심포지엄 요지집.
- 남상민(2003), 한국전통혼례-전통혼례·폐백례·궁중가례의 진수, 서울;
도서출판 예학.
- 노주연(2001), 조선시대 궁중과 사대부의 혼례 절차와 혼례복 연구- 女子
服飾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선희(2012), 미혼여성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결혼의향과 기대
결혼연령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7(3).
- 문형은(2011), 보육교사의 직무특성과 생활문화 탐색, 고신대학교 교육대
학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 민속학술자료총서(2003), 禮 家禮.婚禮 7, 서울; 도서출판 우리마당 터
- 민속학술자료총서(2003), 禮 冠婚喪祭 7, 서울; 도서출판 우리마당 터
- 박경변(1989), “주희가례의 실천적 도덕성이 한국에 미친 영향”, 영남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동철(2006), 청운마을 혼례문화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명덕(2013), 17세기 전반 『朱子家禮』 실행 논의와 그 특성,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문기(2012), 결혼정보회사 브랜드 가치 높이기, 한국마케팅연구원, 마케팅 제46권 제4호 통권519호
- 박미선(2015), 朝鮮時代 國婚儀禮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병희(2015), 여성 기독교상담 전문가의 부부갈등에 관한 현상학적연구,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선영(2011), 미용서비스 종사자(헤어)의 성격유형별 서비스 지향성과 고객 지향성의 관계-MBTI를 중심으로, 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경(2016), 최근 결혼트렌드와 결혼전략, 한국소비문화학회 춘계학술대회.
- 박순진(2012), 임진왜란기 청도 의병진의 조직과 활동-悌友堂 朴慶傳의병진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양례(2005), 조선시대 사대부의 관혼상제의 다례와 복식: 『주자가례』와 『사례편람』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숙(2011), 서울시 웨딩 업체의 입지 패턴에 관한 연구-청담동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순(2003), 한국어교육으로서의 문화 교육에 대하여, 이중언어학 제23권.
- 박예경(2005), 『禮記』의 體制와 禮論 研究,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은경(2012), 조선후기 왕실 가례용 병풍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인덕(1993), 전문결혼상담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인수(2014), 생활문화 교육을 통한 결혼이주 여성의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 방법, 동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숙(2004), 개화기 이후 한국 혼례복식의 변천동인과 미적특성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정혜(1996), 한국고대혼속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혜인(1979), 서류부가혼속의 변천과 그 성격-조선시대 가족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14
- 박혜인(1983), 모처부처제 혼인거주규칙의 ..-서류부가혼속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17
- _____ (1990), 한국 전통 혼례의 창조적 개선과 건전 혼례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방안 연구, 정책자료, 90-5
- _____ (2005), 혼인풍속 ‘婿屋’ 기록과 삼국사기 초기 사례를 통해 본 고구려의 혼인 및 처가방문생활, 역사민속학 제18호.
- 배경숙(1981), 한국혼속의 변천에 관한 연구-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혼인 습속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6
- 배상현(1993), 기호예학의 성립과 발전, 역사학논총.
- 배재원(2011),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육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미옥(2007),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생활문화와 한국어의 통합 교육 연구-초급 단계 학습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서갑주(2016). MBTI 성격유형과 U&I 학습성격유형에 따른 학업 성취도의 탐색적 분석,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원혁(2013), 사계 김장생의 예학사상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화숙(1998), 전통혼례에 비취본 현대식 혼례의 문제점, 서울; 한국일보사.
- 손승영(1996), “혼례문화의 상업화와 가부장적 특성”, 한국가족학회
추계 학술자료, 가족과 혼인문화.
- 송영희(2005), 조선후기 가족제도의 변화,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정희(2013), 혼례문화 및 혼수한복에 관한 고찰,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재용(2007), 한국 의례의 연구, 서울; 제이앤씨
- 송재용 외10명(2013), 일생의례로 보는 근대 한국인의 삶-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편, 서울;채륜.
- 신백훈(2015), 『禮記』 「禮運」篇의 大同思想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명희 외(2014), 교육심리학, 제3판, 서울: 학지사.
- 신상욱(1997), “전통혼례의 고찰”, 오늘의 혼례문화 그 진단과 방향 모색.
- 신수현(2007), 혼인 의례의 변화에 따른 예식 시설 실내설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요원(2012), 부부 MBTI 성격유형과 기질의 일치여부에 따른 결혼
만족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순희(2006), 초등학생들의 생활문화 의식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 안정희(2013) 혼례문화 및 혼수한복에 관한 고찰, 대전대학교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안혜숙(2010), 한국사회의 산업화 이후 혼례관행 변화에 관한 연구-1960
년대~200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3).
pp.87-108

- 楊志剛, 박미애(2010), 중국 명·청대 『주자가례』의 보급과 정착 과정, 국학 연구, 16, 141-181.
- 원아름(2015),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광수 외1명(2003), 한국전통문화의 이해, 서울; MJ미디어
- 유덕선(1996), 관혼상제대전, 서울; 도서출판 신나라
- 윤단우.위선호(2010), 결혼과업, 30대 여자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 경기;모요사
- 여탁림(2014), 결혼정보서비스 사이트의 고객가치와 구전의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중국시장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세현(2013), 「조선중기의 ‘斯文’ 과 文章 四大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 빅토리아(2012), 방문취업제도 CIS 동포 근로자 대사의 한국어와 생활문화 통합적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가(2011),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 생활문화교육에 관한 교수모형-초급유학자를 대상으로-, 대불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학위논문.
- 유가효(2007), 해방 이후 혼전 교제와 배우자 선택과정의 변화, 한국학 논집, 제34집(2007년6월) pp.319~346, 계명대학교한국학연구원.
- _____ (2008), 일제 강점기 결혼결정과정을 통해서 본 결혼문화의 비교, 한국학논집 36. pp.417-450, 470-471.
- 유승현(2004), 거주자 생활문화를 통해 본 MBC ‘러브하우스’에 관한 현장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정희(2009), 여성들의 웨딩 코디네이션 선호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옥(2010), 결혼생활 만족도 증진을 위한 신혼기 부부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희경(1980),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자대학 출판부, p.613~614.
- 이광혜(2011), 전통혼례중 폐백례의 절차와 복식의 현대화 방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숙 외6명(2009), 결혼의 기술, 서울:도서출판 신정
- 이길표(1983), 家禮를 통해 본 韓國人의 意識構造 研究:婚祭禮를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외 3인(1997), 전통예절,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시민대학
- _____ 외 1명(1998), 주자 ‘가례’와 그에 나타난 혼례에 대한 고찰; 의혼, 납채, 납폐(주자가례) 대한가정학회
- _____ (1980), “우리나라 혼례에 나타난 색배합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연구논문집 제13집.
- _____ (1995), “혼수의 변화”,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논문집 제9집.
- _____ (2000), 朝鮮後期 서울 班家의 昏禮, 서울:한국 전통생활문화학회.
- _____,주영애(1989), “가정경영관과 혼례행례와의 관계연구”, 성신연구 논문집 제29집.
- _____,최배영(1997), “조선후기 규범서에 나타난 여성의 혼인준비 교육”, 성신연구논문집 제35집.
- _____ (1994), 한국의 예속연구, 서울; 서광학술자료사
- 이도현(2014), 결혼정보업체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전략연구-배우자 선택요소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원(1988), 도시부부의 결혼의 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두희(2015), 임진왜란기 신분 변동과 민의 의식 변화,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문희(2014), 작지만 아름다운 혼례문화 확산을 위한 기초연구, 대구 경북연구원.
- 이민정(2016), SNS 사용자의 성격유형 분류를 위한 모바일 서비스 제안 -MBTI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배용(1999), 개화기.일제시기 결혼관의 변화와 여성의 지위, 한국 근현대사 연구 10, 한국근현대사연구학회.
- 이선형(2013), 현대 한국인의 혼인의례 연구-의례과정의 상품화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숙외6명(2009), 실과교육을 위한 생활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실과교육연구 제15권 2호
- 이영미(1981), 우리나라 현행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 이영수(2012),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혼인유형과 혼례식의 변모 양상,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 28.
- 이윤금(1997), “혼례관행에 관한 의식조사”, 오늘의 혼례문화 그 진단과 방향모색.
- 이윤정(2002), 冠禮의 節次·服飾에 내재된 意味,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이화(2005), 한국사 이야기 22-빼앗긴 들에 부는 근대화 바람, 경기; 한길사.
- 이재경(1990), 가족변화와 가족복지, 서울:까치
- 이재룡(1995), 조선 예의 사상에서 법의 통치까지, 서울;예문서원

- 이재은(2009), 전통시대 유가의 혼례에 관한 연구,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덕 외4명(2006), 결혼과 가족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신정
- 이정숙(2010), 조선후기 의례서에 나타난 혼례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연(2012), 한국과 일본의 가정생활문화 UCC 교류수업에 따른 중학생의 문화감수성 변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영(1998), 전통사회 혼례에 관한 대학생의 의식조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곤(2014), 아주 쉽게 보는 관혼상제, 서울; 씨앤틱
- 이창욱(2016), 결혼중개업 이용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자 교육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
- 이태진(1986), 고려말, 조선초의 사회변화, 한국사회사연구.
- 이향숙(2012), 경북지역 혼례문화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향숙(2014) 결혼정보회사와 커플매니저의 현황분석에 관한 연구, 동부산대학교 논문집 제33집 pp.157~174, 2014.12.26 발행.
- 이홍원(2002), 가정보감, 서울; 은광사
- 이희봉(1988), 인간회복의 도시설계를 위한 부분문화 이론과 방법, 대한 국토 계획 학회지, 23권1호.
- 이희재(2007), 한국의 전통의례, 경기;한국학술정보(주).
- 임귀희(2009), 韓國 傳統婚禮의 禮學的 探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민혁 譯(1999), 朱子家禮-유교 공동체를 향한 주희의 설계, 서울;예문서원.

- 임은혜(2015), 웨딩플래너의 개인특성,직무특성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용준(2016), 호텔종사원의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고객대면시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경남(2000), 임진왜란의 문학적 형상화, 아세아문화사.
- 장병인(1993), 조선 초기 혼인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7),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 _____ (2008), 조선중기 사대부의 혼례형태-, 조선시대사학보 45, p.220
- 장성자 외(1990), 『전문결혼상담원 교육프로그램개발사업보고서』, 한국여성개발원
- 장세호(1992), 沙溪 金長生 禮說의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애리(2016), 생명보험사 영업사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철수(1995), 한국의 관혼상제, 서울; 집문당
- 장하경(1996), 한국 사회변동에 따른 혼례관행의 변화, 14권1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pp.147~161
- 전문결혼상담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1992. 사업보고서 300-1.
- 전례연구위원회(1997), 우리의 생활예절, 서울; 성균관출판부.
- 전미경(2011),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안동지역 예술.교육.생활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선희(2014), 문제중심학습(PBL) 모형을 활용한 한국어 현대 의(衣) 생활 문화 교육방안,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경주(2003), 한국 고전 의례 상식, 부산; 신지서원.
- 정병섭(2013), 『禮記』의 成立과 思想體系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현숙 외2명(2003), 결혼학, 서울;도서출판 신정
- 정현정(2013), 朱子 禮學의 구조와 전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주영애(2010), 한국전통혼례의 계승을 위한 혼례절차에 대한 미혼남녀의 인식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14권 1호 p.58.
- _____ (2013), 혼인준비자들의 혼례예절교육 요구도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1권 6호 p.53.
- 조기홍(1996), 예론, 서울;성신여대출판부
- 조미라(2004), 『朱子家禮』의 형성과 조선 수용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양제(1989), 관혼상제, 서울;일신서적공사.
- 조영숙(2004), 사계 김장생의 예학사상 연구: 『家禮輯覽』 「昏禮篇」 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향록(2005),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 교육의 새로운 방향, 한국어 교육 제16권 2호, 국제 한국어 교육학회.
- 진민정 · 조민호 (2016), 항공사 객실승무원 성격, 감정노동, 조직 시민행동에 대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Vol.25 No.2.
- 차강출롱 아리옹벌러르(2010), 몽골 유학생을 위한 일상 생활문화 교재 개발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희영(2013), 국내결혼증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
- 최경숙(1995), 결혼의례절차와 물질적 재화 교환의 관행에 대한 연구-도시중간 계층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훈(2009), 朝鮮時代 刊行의 朱子 著述과 註譯書의 編纂,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배영(1998), 家禮書를 통해 본 「婚禮」 觀 研究: 『嘉禮』 · 『家禮輯覽』 · 『四禮便覽』,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배영(2013), 조선시대 혼례문화콘텐츠, 이노books
- 최백만(2015),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체계별 성향에 따른 생활문화 적응 실태연구, 서울벤처.
- 최영성(1995), 한국유학사상사 3, 아세아문화사 p.147
- 최윤석(1980), 관혼상제전서, 서울;동양서적
- 최은옥(2008), 생활문화콘텐츠의 OSMU(One Source Multi Use)형 프로그램 개발 연구, 동신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준식(1998), 한국문화 그리고 한국인, 어떻게 연구 할 것인가?, 한국 문화와 한국인;사계절
- 최정운(2010), 심리검사의 이해, 서울; 시그마프레스
- 최지환,김중인(2014), 은행영업점 고객접점직원의 Big 5 성격이 감정노동에 미치는 영향 : 감성지능, 성별 및 직급의 조절효과, 마케팅논집,
- 최현정(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문화 내용 분석, 순천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호원(1983), 혼인의식에 나타난 배우자선정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 한경순(1986), 혼 · 상 · 제례 의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 한경진(2009), 전통생활문화교육 및 전통복식문화에 대한 인식과 학교 적응 (광주광역시 여중생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한만영(1999), 조선시대 혼례제도의 변천과 성격-혼례 절차상 친영례와
 서류부가혼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상권(1983), 16세기 對 中國 私貿易의 전개, 김철준박사 회갑기념사학노총.

한상진(1999), 조선시대 관혼상제(I) 관례.혼례편, 경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홍경희(2006), 초혼과 재혼의 결혼조건 차이와 미래 가족관에 대한 연구:강남
 지역 거주 초·재혼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은정(2003), 거주자의 생활문화를 통해 본 경기 전통민가 연구-안성시
 덕봉리 민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경애(1994), 혼례행례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황미숙(2012), 朝鮮 初期 婚姻儀禮 變化에 대한 고찰:世宗代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영환(1995), 朝鮮朝 禮書의 發展에 관한 研究:특히 ‘家禮書의 發展系統’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영환(1995), 한국 家禮書의 발전계보에 관한 서지적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황패강(1991), 한국문학의 이해, 서울;새문사

인터넷자료

국립민속박물관. www.nfm.go.kr.

국립중앙박물관. www.museum.go.kr.

여성인력개발센터. www.vocation.or.kr

한국고용정보원. www.keis.or.kr

에세스타 www.assesta.com

한국MBTI연구소. www.mbti.co.kr

신문기사

결혼정보업체 소비자 피해주의' 민생침해 경보 발령[전자자료]/서울특별시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2015.3.10.), 결혼식장 등 계약 시 해지 규정 꼼
꼼히 살펴봐야:결혼중개업체 피해 민원은 부실한 소개와 신상정보
제공이 주원인.

1927년 4월 21일 동아일보 전옥의 중매로 출옥해야 결혼

1929년 9월 12일 동아일보 며느리구하는 마음

1932년 6월7일 동아일보 다른 사람 선보고 장가갔다 신부뺏겨

1934년 7월16일 동아일보 중매하고 매맞어 생명이 위독

1937년 12월 14일 동아일보 기혼녀를 처녀로 가장 약혼 코 금품편취

1939년 3월 9일 동아일보 엄처시하의 졸장부 살 수 없어 이혼소송

1939년 10월10일 동아일보, 가정고문란 무식한줄 모르고 속아서 결혼
취미가 안 맞아 이혼하겠어요

1954년 9월 1일 경향신문 엉터리 결혼중매-금품을 사취

1955년 6월 2일 동아일보 노총각과 노처녀의 결혼중매대회 성황

1962년 11월 14일 경향신문 결혼상담소의 운영 실태조사

1963년 8월 29일 동아일보 딱한 사연도 가지가지 여성 법률 상담소에
비친 실태

1967년 3월 7일 동아일보 허위결혼중매광고 5천여원 사기 세 명입건

1967년 5월 13일 매일경제 이상기업(I) 결혼상담소 믿음직한 곳은 불과
4,5군데뿐

1967년 5월 18일 동아일보 중매(서근배) 작가의 글

1968년 6월 13일 경향신문 중매혼인이 77%나

1973년 2월 20일 삼릉에 결혼 중매소 백만 독신사원 구제 위해

1973년 5월 18일 조선일보 “결혼상담소 양성화”
1973년 12월 12일 경향신문 구미서 수지 맞는 결혼상담소
1973년 12월 14일 경향신문 이상적 결혼. 중매 절충형 서울시의 조사분석결과
1977년 11월 1일 동아일보 중매결혼이 늘어난다
1981년 9월17일 동아일보 결혼상담소 성업
1985년 7월 3일 경향신문 북한의 결혼 중매 90%
1990년 5월 6일 매일경제 결혼중매 성격진단후 이상형 배우자 찾아줘
1990년 4월 28일 경향신문 결혼정보지 <가교> 창간서두는 美, 加 독신회
한국회장 김정수씨 반려자 찾기 조그만 길잡이로
1991년 6월 21일 한겨레 결혼실패 중매인 책임 없다
1994년 11월 3일 경향신문 중매도 PC통신시대
1999년 4월 12일 매일경제 결혼 중매문화가 최근 들어 전문적인 결혼
정보회사에 의해 주도
1999년 4월 19일 경향신문 결혼정보회사 급성장 지난해 500억 매출.
9년만에 10배
1999년 7월 21일 매일경제 LG텔레콤 휴대폰 중매서비스
2016년 10월 27일 아시아경제 결혼은 미친 짓? 중매업체 찬바람...4년 새
300개 가량 달아

Ashforth, B. E., & Fried, Y. (1988). The mindlessness of organizational behaviors, Human Relations, 41.

Benedict, Ruth(1946),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김육 옮김(1998), 국화와 칼, 서울;정성출판사.

- Brislin, Richard(1990). *Applied Cross-Cultural Psychology*. Newark Park. NJ: Sage.
- Brooks, Nelson(1975), "The Analyasis of Foreign and Familiar Cultures." In Robert Lafayette ed., *The Culture Revolution in Foreign Language Teaching*. Lincolnwood, IL.: National Textbook.
- Brown(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이홍수 외 옮김(2001), <외국어 학습 교수의 원리>, Pearson Education Korea.
- Brotheridge, C. M., & Lee, R. T. (200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emotional labour scale.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76(3).
- Diefendorff, J. M., & Gosserand, R. H. (2003), Understading the emotional labor process: A control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4.
- Ekman, P., & Friesen, W. V. (1971), Constants across cultures in the face and emo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7.
- Fisher, C. D. (2000), Mood and emotions while working: Missing pieces of job satisfaction?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1.
- Fredrickson, B. L. (2004), The 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395.
- Hochschild, A. R. (1983), *The managed heart*.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ulsheger, U. R., & Schewe, A. F. (2011), On the costs and benefits of emotional labor: A meta-analysis of three decades of research.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6(3).
- Lewis, K. M. (2000), When leaders display emotion: How followers respond to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 of male and female leader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1.
- Keirsey, D. & Bates, M. (1984). *Please, Understand Me : Character and Temperament Types*. Prometheus Nemesis Book Co Inc.
- Morris, J. A., & Feldman, D. C. (1997), Managing emotions in the workplace, *Journal of Managerial Issues*, 9(3).
- Muraven, M., & Baumeister, R. F. (2000). Self-regulation and depletion of limited resources: Does self-control resemble a muscle? *Psychological Bulletin*, 126.
- Myers, I. B., MaCalley. M. H., Naomi. L. Q. & Hammer, A. L. (1985). *Manual: A guide to the development and use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Palo Alto. CA:CPP, Inc;
MBTI Form M 매뉴얼.(김정택 외1인) 에세스타, 2013.
- Parasuraman, A., Zeithaml, V. A., & Berry, L. L. (1985), A conceptual model of service quality and its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Marketing*, 49(4).
- Strong, B., & DeVault, C. (1992). *The Marriage and family experience (5th Eds.)*. St. Paul; West publishing Company.

ABSTRACT

A Historical Review and Case Study on Marriage Matchmaking

Moon, Ji Ye

Dept. of Living Culture &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of Sungshin Woman' s University

Marriage is a socially recognized union for a man and woman to begin new chapter of life. Marriage doesn't only mean the establishment of a family but also members of society which offers both personal level of stability and also social productivity and harmony. Furthermore, This union is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and sacred process of life not only as a union of two persons but a union of two families so ancestors called this event major life event.

According to The Book of Rites, marriage is the propriety to take a wife, and this process is also called 昏禮 as most of the ancient marriage were held at nightfall. The characters of “marriage” –”hun”, consists of “female” and “dusk”, which means to get married in the evening. The book of Rites prescribed 納采, 問名, 納吉, 納徵, 請期, 親迎 as traditional wedding rituals known

as Six Rites(六禮), Zhuzijiali朱子家禮 and Saryepyeollam四禮便覽 prescribed Four Rites四禮 of 議婚, 納采, 納幣 and 親迎.

Among ancient books contain traditional wedding rituals, Zhuzijiali朱子家禮 and Saryepyeollam四禮便覽 introduce the first wedding ritual of 議婚(matchmaking). this process was described that wedding matchmaker visits both houses of bride and groom in order to discuss and negotiate the marriage details, and the same form of matchmaking has maintained through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and industrialization.

Ancient people saw marriage as a union of two families and personalities or household etiquettes were one of important quality for them in the process of matchmaking, so there is a procedure called ‘仲媒’ . Both houses must communicate through their matchmaker and groom's house wait for the bride's house to accept the marriage. After matchmaking process is complete, they went to see a fortune-teller to predict marital harmony in general.(folkency.nfm.go.kr). However, it is hard to find this kind of social custom in modern society as people see marriage as a union of individuals, therefore love marriages are more common.

So the process of matchmaking議婚 created an occupational category of matchmaker or so-called 媒婆. And with the changes of the times and living-culture, the role of matchmaker has transformed and positioned as a modern occupation called "couple's manager".

This research explored the first process of marriage, matchmaking 議婚 in the light of history to find meanings of ancient living-culture, and to shed new light on value of matchmaking 議婚 and apply it to the modern marriage. Present state of marriage brokage business and the possibility of improvement in modern society were studied and analyzed. In order to suggest new measures to find healthy and transparent ways to keep family and society together which our ancestors tried to pursue, exploring the process of matchmaking 議婚 carefully will suggest ways to set the value of marriage in present and future.

부 록 목 차

<부록 1> 연구 동의서

<부록 2> 연구 면접 질문지

<부록 3> 혼례에 관한 학위논문

<부록 4> 혼례에 관한 학술지

<부록 5> 17세기~18세기 중반의 禮書

<부록 6> 결혼중개업 법률 주요내용 및 위반 시 제재사항

<부록 2>

면접 설문지

ID No.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본 연구에 참여해 주신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박사논문으로
“결혼증가에 사적 고찰 및 사례 연구”를 위하여 작성된 설문지입니다.

귀하께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의견이나 느낌을 정확하고 솔직하게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귀하의 응답내용은 본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것이며 무기명으로 처리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본 조사에 기여이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2016년 11월

성신여자 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생활문화전공 박사과정

지도교수: 주 영 애

연구자: 문 지 예

I. 아래의 질문에 답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성함은 무엇입니까?

2. 귀하의 성별은? ①남 ② 여

3. 귀하의 나이는? ()세

4. 귀하의 최종 학력은?

5.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

6. 귀하의 결혼 유무는?

7. 귀하의 결혼상담원으로 활동하신 경력은? ()년

8. 귀하가 근무하는 결혼중개업체에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II. 다음은 결혼상담원의 직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문에 답하여 주십시오.

1. 직무특성

- 1) 혼인에 있어서 결혼상담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 결혼상담원의 직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 이 일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4) 이 일은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5) 결혼상담원 직무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2. 직무스트레스

- 1) 결혼상담원 직무 스트레스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어느 정도입니까?
- 2) 직무수행중에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것은 무엇입니까?
 - 2)-1. 상담전 상담중 상담후?
 - 2)-2. 매칭전 매칭중 매칭후?
- 3) 일에 대한 의욕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느끼십니까?
- 4) 스트레스 해소는 어떻게 하십니까?

3. 직무만족

- 1) 결혼상담원이라는 직업이 본인에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2) 일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만족한다면 어떤 면에서 만족하십니까?
- 3)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앞으로 평생 동안 하실 생각이십니까?

4. 사례

- 1) 가장 성공적인 상담 사례는 언제입니까?
- 2) 가장 실패했던 상담 사례는 언제입니까?
 - 2)-1 추가질문 (소비자 피해 경험)

5. 문제점

- 1) 이 일을 하면서 당면하고 있는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자질 · 역량

- 1)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격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3) 업무에 학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자부심 · 당부

- 1) 결혼상담원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으십니까?
- 2) 앞으로 이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부록 3> 婚禮에 관한 학위논문

NO	출간 연도	제목	저자	수여대학	학위
1	1971	家庭儀禮(婚喪祭禮)에關한一研究	홍춘미	梨花女子大學校	석사
2	1974	우리나라婚禮服變遷에關한一研究 : 開化期以後의婚禮服을中心으로	송명견	梨花女子大學校	석사
3	1976	王世子嘉禮研究 : 莊祖獻敬后 「嘉禮都監儀軌」를中心으로	여춘구	梨花女子大學校	석사
4	1985	近代以後韓國의婚禮服에대한研究	한상숙	淑明女子大學校	석사
5	1987	傳統婚禮服의實態에關한考察 :	신경애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6	1988	朝鮮時代嘉禮都監儀軌에나타난班次圖의構造의研究	김정진	淑明女子大學校	석사
7	1995	결혼의례절차와물질적재화교환의관행에대한연구 : 도시중간계층사례연구를중심으로	최경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8	1998	도시주부의혼례의식.혼례행동및혼례만족-신혼기주부와기혼딸을가진 어머니를중심으로	김명나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9	1999	朝鮮時代婚禮制度의變遷과性格 : 婚禮節次上의親迎禮와서留婦家婚을中心으로	한만영	韓國外國語大學 校教育	석사
10	1999	도제공예품인형에관한연구:조선조 후기서민사회의혼례를중심으로	주선영	경희대학교	석사
11	2001	朝鮮時代宮中과士大夫의婚禮節次와婚禮服研究 : 女子服飾을中心으로	노주연	誠信女子大學校	석사
12	2001	한국사회변동과혼례문화의변화 : 1940년대~1990년대를중심으로	강정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13	2001	부산·경남지역주부들의혼례음식인 지도에대한조사연구	김경묘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
14	2001	혼례를위한한과와떡-문헌고찰및상차림재현	조태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15	2002	혼례음식에대한신세대의의식조사연구	김명숙	세종대학교대학원	석사
16	2002	拜禮에關한事例研究 : 충청지방禮文家를중심으로	김순중	誠信女子大學校	석사
17	2003	傳統婚禮服의現地調査研究 : 광주·전남지역鄉校를중심으로	박자명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
18	2003	조선시대신분에따른여자혼례복연구 : 궁중과민가를중심으로	박현미	明知大學校大學院	석사
19	2003	개화기이후한국婚禮服飾의變遷動因과美的特性연구	박정숙	세종대학교대학원	박사

20	2004	傳統婚禮의思想的基船에대한研究	조국선	성균관대학교생 활과학대학원	석사
21	2004	沙溪金長生의禮學思想研究： 『家禮輯覽』 「昏禮篇」을중심으로	조영숙	成均館大學校大 學院	석사
22	2004	朝鮮朝嘉禮都監儀軌의書誌學的研究	송혜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23	2004	傳統婚姻飲食에關한研究： 폐백·이바지음식을중심으로	정승근	成均館大學校	석사
24	2005	1940년대평양지방의혼례복식에관 한연구	임선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25	2005	한국혼례문화변화에따른혼례용주얼 리디자인연구	손유학	단국대학교	석사
26	2005	朝鮮時代儀禮服飾에나타난象徴性研 究	이영임	中央大學校大學 院	박사
27	2005	韓國과中國의傳統婚禮服飾에關한연 구：18~20세기초를중심으로	신혜성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28	2006	현대혼례에나타난전통혼례복의변천 과실태	김소은	성신여자대학교	석사
29	2006	혼례음식에대한인식도조사와이용실 태비교：서울·경기지역중심으로	김준희	경기대학교	석사
30	2006	한·중혼례식비교연구	임강	부산외국어대학 교대학원	석사
31	2006	폐백음식의현대화방안에關한연구： 폐백상품의지역간의차이를중심으로	이옥남	경기대학교	석사
32	2006	韓日儀式行事에對한研究： 結婚式을中心으로	이지현	중앙대학교교육 대학원	석사
33	2007	혼례절차에따른한국혼례설화의유형 에대한전승집단의의식연구	홍순래	신라대학교	석사
34	2007	라이프스타일에따른혼례음식의인지 도에關한연구： 부산거주여성중심으로	전혜경	동의대학교경영 대학원	석사
35	2007	李緯『四禮便覽』의昏禮研究	권병숙	성균관대학교	석사
36	2007	韓國의造形美가表現된婚禮服研究： 전통혼례복의요소를중심으로	정경희	弘益大學校産業 美術大學院	석사
37	2008	한·중혼례와혼례음식의비교연구	주녕	부산외국어대학 교	석사
38	2008	조선시대민가전통혼례복에대한지역 별비교고찰	이효선	경성대학교대학 원	석사
39	2008	茶山丁若鏞;嘉禮酌儀;의婚禮에關한 研究	안혜숙	원광대학교	석사
40	2008	혼례용패션명품소비자의라이프스타 일에따른쇼핑행동이재구매의사에미 치는영향	류미애	경성대학교대학 원	박사
41	2009	전통시대유가의혼례에關한연구	이재은	안동대학교대학 원	석사
42	2009	韓國傳統婚禮의禮學의探究	임귀희	성균관대학교	석사

43	2009	『연잉군가례등록』에나타난왕자가례의절차와복식	이주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44	2009	全北地域宗家拜禮에관한事例研究	송남진	원광대학교대학원	석사
45	2010	朝鮮時代婚禮儀式에관한研究 : 女子婚禮服을中心으로	김정규	원광대학교동양학대학원	석사
46	2010	조선후기의례서에나타난혼례연구	이정숙	원광대학교대학원	석사
47	2010	혼례(婚禮)의함보내기외폐백례에관한연구 : 禮書를중심으로	윤진아	성균관대학교생활과학대학원	석사
48	2010	婚姻制度의變遷과眞情性에관한研究	손규하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
49	2010	嘉禮都監儀軌의記錄을중심으로한敎命계재현제작	박선영	용인대학교	석사
50	2010	헌중가례도연구	염세정	목포대학교	석사
51	2011	일제강점기이후한국혼례양상의변화에관한연구	김선령	원광대학교동양학대학원	석사
52	2011	전통혼례식중폐백례의절차와복식의현대화방안	이광혜	한국방송통신대학교평생대학원	석사
53	2011	전통혼례중폐백례의절차와복식의현대화방안	이광혜	한국방송통신대학교평생대학원	석사
54	2011	경북지역혼례문화연구	이향숙	성신여자대학교	박사
55	2011	전통혼례폐백·이마지음식에관한연구	장경자	청운대학교	석사
56	2012	동북아시아혼례문화비교연구	임현정	조선대학교대학원	석사
57	2012	1940~1960년의충남지역혼례문화연구	노영미	성신여자대학교	석사
58	2012	『朱子家禮』에내재된空間秩序에관한연구	지현주	부산대학교	박사
59	2013	혼례문화및혼수한복에관한고찰	송정희	대전대학교대학원	석사
60	2013	전통혼례음식에대한성인미혼남·녀의인지도에관한연구 :	정혜린	경기대학교일반대학원	석사
61	2013	야쿠트와한국의전통혼례비교연구	막시모 바알렉산드라	계명대학교대학원	석사
62	2013	복식고증을통한복온공주혼례친영반차도구현	김아람	단국대학교	석사
63	2014	禮書에나타난儀禮服飾再現 : 사례편람을중심으로	김기상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
64	2015	儒敎의傳統婚禮의理念과展開過程 : 朝鮮中·後期의家禮書를中心으로	서정화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

65	2015	건전한혼례문화조성방안에대한연구 : 국제결혼을중심으로	이병도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
66	2015	朝鮮時代國婚儀禮研究	박미선	高麗大學校大學院	박사
67	2015	陶菴李緯의예학과爲人之道연구 : 『四禮便覽』 - 혼례편을중심으로	짱위자	경희대학교	석사
68	2016	혼례증여음식의교환과그사회적기능	황동이	안동대학교대학원	석사
69	2016	17~18세기경상도북부지역사족의친족관계연구:일기에나타난혼인과제사중심	김정운	경북대학교대학원	박사

<부록 4> 혼례에 관한 학술지

번호	출간연도	제목	저자	출판사
1	1967	韓國의冠婚喪祭가農村生活에미치는影響	都秉權	淸州教育大學校
2	1968	婚禮服에關한實態調査	朴京子	誠信女子大學校
3	1974	濟州島의婚俗	姜榮鐘	濟州大學國語國文學會
4	1977	濟州島의婚俗	高富子	한국민속학회
5	1978	京畿地方과嶺南地方의婚禮現況에關한比較	朴貞順	仁川教育大學校
6	1978	濟州島의婚俗	高富子	서경대학교
7	1981	傳統的婚姻儀禮에나타난韓國家族의性格	朴惠仁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8	1983	家禮를通해본韓國人의意識構造研究	李吉杓	誠信女子大學校
9	1987	朝鮮朝의定婚法制에關한研究	韓福龍	충남대학교
10	1988	韓國의儒敎的傳統婚禮節次에關한考察	李東科	청주대학교
11	1989	家庭經營觀과婚禮行禮와의關係研究	李吉杓	誠信女子大學校
12	1991	古典小說에나타난婚姻儀禮攷	吳出世	동국대학교
13	1992	婚禮의位相定立을爲한小考	김나영	성균관대학교가정관리학회
14	1992	婚禮禮式變遷에대한考察	鄭亨道	慶尙大學校
15	1994	조선후기의혼인습속과혼례절차	이광규	역사문제연구소
16	1996	《儀禮》·〈士昏禮〉篇의人文學的考察	金世煥	釜山大學校
17	1997	조선초기혼례풍속연구	조효순	服飾文化學會
18	1998	주자「가례」와 그에 나타난 혼례에 대한 고찰 (1) - 의혼, 납채, 납폐 -	이길표	대한가정학회
19	1998	韓國人의通過儀禮	康龍權	경상대학교
20	1999	혼례의근본정신과혼례의식의개선	박범수	서울教育大學校學生生活研究所
21	1999	광복이후우리나라혼·제례의변화에關한연구	이광자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2	2000	韓國과 日本의 婚姻義禮에 따른 婚禮服飾 비교 연구	崔仙銀	한국동양예술학회
23	2000	中宗代의 親迎論爭과 朝鮮中期 婚禮制度의 變化	한만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역사문화연구소
24	2000	혼례음식의바람직한실천방안에관한연구	김성미	啓明大學校生活 科學研究所
25	2001	혼례전통, 다바뀐것은아니다	김시덕	실천민속학회
26	2002	한국의전통혼례복식에관한고찰	조선희	韓國儒敎學會
27	2002	한국혼속의통시적고찰	정상진	釜山外國語大學 校比較文化研究
28	2005	혼례 '奠雁禮(전안례)'考	박혜인	국제고려학회서 울지회
29	2005	전통혼례상차림의장식에관한연구	장정희	부산여자대학
30	2005	조선중기혼인제의실상	장병인	한국역사연구회
31	2005	<소현성록>에나타난공주혼(公主婚)의사회 적의미	박영희	한국고전연구학 회
32	2008	조선후기後宮嘉禮의절차와변천	이옥	한국학중앙연구 원
33	2008	『三國遺事』에나타난儀禮의研究 - 冠·婚·喪·祭禮를中心으로	安宰鏞	동양고전학회
34	2008	유교가례의변용과창조적계승	이희재	韓國儒敎學會
35	2009	傳統婚禮儀式節次에관한小考	김희자	국제차문화학회
36	2009	고종및순종연간의혼례복식에관한연구	신혜성	서울시립대학교 부설서울학연구 소
37	2009	釜山과對馬島의婚禮俗비교연구	한태문	한국문학회
38	2010	한국전통혼례문화의계승을위한혼례절차에 대한미혼남녀의인식연구	주영애	한국가족자원경 영학회
39	2010	조선중기이후국왕의혼례형태의변화 -별궁의운영과 "별궁친영례(別宮親迎禮)"의성립-	장병인	조선시대사학회
40	2010	조선중기이후국왕의혼례형태의변화	장병인	조선시대사학회
41	2010	한국사회의산업화이후혼례관행변화에관한 연구	안혜숙	한국가족자원 경영학회
42	2010	『주자가례』의조선시행과정과가례주석서 에대한연구	이문주	성균관대학교유 교문화연구소
43	2011	혼례물목류(婚禮物目類) 고문헌자료를활용한민간전통혼례문화연구	김정녀	한민족문화학회
44	2011	전통혼례의현대적의미	권병숙	성균관대학교유 교문화연구소
45	2011	혼례속에담긴문화요소들과그의미를활용한 한국문화교육방안연구	문형진	한국외국어대학 교역사문화연구 소
46	2011	친영과반친영의문화적습意	송민선	한국역사민속학 회

47	2011	南宋시기婚姻節次의법적효력: 혼인관계의증명및혼약 "	최해별	이화사학연구소
48	2012	다른세계로의이동: 야쿠트와한국의전통혼례의비교	Maksimova Alexandra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49	2012	조선시대국왕嘉禮의절차와규범	임민혁	東洋古典學會
50	2012	경북지역중가의혼례문화사례연구	이향숙	대한가정학회
51	2013	전통혼례(傳統婚禮)에대한반성적(反省的) 고찰(考察)-婚禮의연원淵源과展開過程을 中心으로-	서정화	동양철학 연구회
52	2013	일제강점기혼례문화의지속과변용	이영수	가천대학교아시아문화연구소
53	2013	19세기혼인습속에대한고찰 -친영례및 "친영적의식" 중심으로-	김기림	한국고전여성문학 학회
54	2013	『國朝五禮儀』에규정된大夫·士·庶人の 四禮에관한고찰	장동우	仁荷大學校韓國 學研究所
55	2013	조선후기공주와옹주, 군주의가례(嘉禮)비교연구	임민혁	온지학회
56	2013	『주자가례(朱子家禮)』에내재된방위관(方 位觀)과질서의식(秩序儀式)에관한연구 -통례(通禮) 및관례(冠禮)와혼례(昏禮)를중심으로-	지현주	동양철학연구회
57	2014	한국철학 : 朝鮮中期(조선중기) 傳統婚禮(전통혼례)의理論的(이론적) 展開(이론적전개)	서정화	동양철학연구회
58	2014	일반논문 : 전통혼례(傳統婚禮)에서교배례(交拜禮)로 서의협배의식(俠拜儀式) 속에투영된이념성(理念性)에대한고찰(考 察)	서정화	영산대학교동양 문화연구원
59	2014	한국사상(韓國思想)(사학(史學)) : 한국의전통상례(喪禮)와현대상례(喪禮)의 절차비교연구	박대수	한국사상문화학 회
60	2014	중국후이족의전통결혼습속에관한연구	全英蘭	동아인문학회
61	2014	朝鮮後期 實學派의婚禮論 -李瀼,丁若鏞,許傳을中心으로-	서정화	한국철학사연구 회
62	2014	신라의嘉禮수용과運用	채미하	한국고대사탐구 학회
63	2015	코리언의혼례전통계승과현대적변용	김종균	건국대학교인문 학연구원
64	2015	동암류장원의『常變通攷』를통해본혼례연 구	김길령	국제차문화학회
65	2015	18세기왕녀「가례등록(嘉禮謄錄)」에나 타난왕실혼례용품연구 -동퇴(同牢)를중심으로-	김지연	한국디자인문화 학회(구서울디 자인포럼학회)
66	2015	전통혼례에나타난고유성과외래성	김미영	한국국학진흥원

67	2015	남계(南溪) 「삼례의(三禮儀)」 친석(淺析) (1) - 「관례의(冠禮儀)」와 「혼례의(昏禮儀)」 를 중심으로 -	도민재	한국철학사연구회
68	2015	1749년(영조 25) 和緩翁主와부마鄭致達의가례	이미선	고려사학회
69	2015	영조말들의혼례특징과 『옹주가례등록』의 가치	심승구	국민대학교한국학연구소
70	2015	개화기에서일제강점기까지일생의례연구사	송재용	동아시아고대학회
71	2015	『화순옹주가례등록(和順翁主嘉禮謄錄)』 에나타난가례절차와물목연구	김지연	한국복식학회
72	2016	조선시대왕세자혼례의절차와의미 -1882 왕세자(王世子) 가례(嘉禮)를중심으로-	이육	한국고문서학회
73	2016	『사의(士儀)』를통해본혼례문화연구	최배영	국제차문화학회
74	2016	『주자가례(朱子家禮)』의수용(受容)과한 국전통예법(韓國傳統禮法)의전변(轉變)및 현대적정립(現代의定立)을위한모색	최준하	충남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75	2016	17세기왕자녀가례절차및복식연구	김지연	한국복식학회
76	2016	『오선생예설분류(五先生禮說分類)』의편 차와그의의	정경주	경북대학교퇴계연구소

<부록 5> 17세기에서 18세기 중반의 禮書

No	예서명	저자명	저술년도
1	가례고오(家禮攷誤)	김인후(金麟厚)	
2	가례고증(家禮考證)	조호익(曹好益)	1646
3	가례변의(家禮變儀)	김계운(金啓運)	1909
4	가례보해(家禮補解)	한교(韓橋)	1598
5	가례부록(家禮附錄)	이형상(李馨祥)	
6	가례부채(家禮附贅)	안신(安訊)	1779
7	가례속편(家禮續編)	황간(黃幹)	
8	가례언해(家禮諺解)	신식(申湜)	1632
9	가례요해(家禮要解)	박세채	
10	가례원류(家禮源流)	유계(兪槩)	1711
11	가례원류속록(家禮源流續錄)	유계(兪槩)	
12	가례원류시말(家禮源流始末)	유계(兪槩)	1715
13	가례의해(家禮疑解)	정대원	
14	가례주설(家禮註設)	송익필	
15	가례주해(家禮註解)	이덕홍	1829
16	가례증해(家禮增解)	이의조(李宜朝)	1792

17	가례질서(家禮疾書)	이익	
18	가례집고(家禮集考)	김중후(金鍾厚)	1801
19	가례집람(家禮輯覽)	김장생	1865
20	가례집요(家禮輯要)	정중기(鄭重器)	1752
21	가례집해(家禮輯解)	유치명(柳致明)	
22	가례차의(家禮筭疑)	정만양, 정규양	
23	가례편람(家禮便覽)	編者未詳	
24	가례향의(家禮鄉宜)	조익(趙翼)	1644
25	가례혹문(家禮或問)	정석달	1715
26	격몽요결(擊蒙要訣)	이이	1577
27	가의보편(家儀補編)	권벽(權馥)	
28	개장비요(改葬備要)	정만양, 정규양	
29	결송장(決訟場)	이상정	
30	결송장보(決訟場補)	이병원(李秉遠)	
31	경국대전(經國大典)		1460
32	경례유찬(經禮類纂)	허목(許穆) 編	1882
33	경서변의(經書辨疑)	김장생	
34	계사왕복서(癸巳往復書)	유상기 · 윤증	1718
35	고금상례이동의(古今喪禮異同議)	김집	
36	광례람(廣禮覽)	권혁수(權赫洙)	1884
37	관례고정(冠禮考定)	서창재(徐昌載)	1830
38	國朝寶鑑監印廳儀軌	鑑印廳(朝鮮) 編	1783
39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洪啓禧 等奉教編	1758
40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英祖(朝鮮) 命編	1744
41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신숙주 등	1475
42	국조오례의고이(國朝五禮儀考異)	신숙주 등	1475
43	근재예설(近齋禮說)	박운원(朴胤源)	18世紀
44	기우제의(祈雨祭議)	河東縣(朝鮮) 編	1704前
45	남계선생예설(南溪先生禮說)	박세채(朴世采)	
46	덕행교범(德行教範)	閔丙奭 編	1892
47	독례록(讀禮錄)	申錫愚 편	1848년
48	독례수초(讀禮隨鈔)	金尙憲 編	17世紀
49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文集)	이규보(李奎報)	
50	동자례(童子禮)	김성일(金誠一)	1910
51	명재선생언행록(明齋先生言行錄)	尹光紹 編	
52	명재선생유고(明先生遺稿)	윤증	1800년
53	봉선잡의(奉先雜儀)	이언직	1550
54	사례문답(四禮問答)	김응조(金應祖)	1656
55	사례상변통고(四禮常變通攷)	이상정(李象靖)	
56	사례요의(四禮要儀)	황덕길(黃德吉)	
57	사례정변(四禮正變)	김경유(金景游)	1836

58	사례집요(四禮輯要)	이진상	1906
59	사례집의(四禮集儀)	박문호	1922
60	사례집설(四禮集說)	장유(張瑠)	
61	사례찬설(四禮纂說)	이혁(李赫)	1867
62	사례책제(四禮策題)	장유(張瑠)	
63	사례축식(四禮祝式)	송병순<宋秉珣)	1893
64	사례태기(四禮汰記)	장석영(張錫英)	1926
65	사례편람(四禮便覽)	이재(李緯)	1844
66	사례훈몽(四禮訓蒙)	李恒福	1674
67	사례홀기(四禮笏記)	編者未詳	
68	사명양선생문해(沙明兩先生問解)	편자미상	연기미상
69	사의(士儀)	허건	1870
70	삼례록(三禮錄)	趙時範 等編	1903
71	삼례의(三禮儀)》	박세채(朴世采)	1711
72	상례요람(喪禮要覽)	장유(張瑠)	
73	상변통고(常變通攷)	유장원(柳長源)	1830
74	상례고증(喪禮考證)	저자 미상	19世紀末
75	상례고증(喪禮考證)	유성룡(柳成龍)	
76	상례참고(喪禮參考)	정경세(鄭經世)	
77	상례초(喪禮抄)	이정암	
78	상례비요(喪禮備要)	신의경	1620
79	상례비요보(喪禮備要補)	박건중(朴建中)	1645
80	상례편람(喪禮便覽)	김정주	1891
81	상정고금예문(詳定古今禮文)	최윤의(崔允儀)	1234
82	상제유초(喪祭類抄)	황필수	1916
83	상제례초(喪祭禮抄)	編者未詳	朝鮮後期
84	星湖先生家禮疾書	이익(李瀾)	
85	성호잡저(星湖雜著)	이익	
86	성학집요(聖學輯要)	이이	
87	연평문답속록(延平問答續錄)	이상정(李象靖)	
88	예기상례분류(禮記喪禮分類)	정구	
89	예감(禮鑑)	유환권	
90	예경고(禮經考)	최좌해	
91	예기대문연속(禮記大文焉續)	朝鮮政府	1767
92	예기보주(禮記補註)	김재로(金在魯)	1758
93	예기유편(禮記類編)	최석정(崔錫鼎)	1693
94	예기의(禮記疑)	안정복(安鼎福)	
95	예기정해(禮記正解)	심대윤(沈大允)	
96	예기집설(禮記集說補)	안정복(安鼎福)	
97	예기잔견록(禮記棧見錄)	권근(權近)	
98	예서유편(禮書類編)	손여제(孫汝濟)	

99	예서차기(禮書筓記)	남도진(南道振)	1888
100	예설류집(禮說類輯)	박성원(朴聖源)	1783
101	예의류집속편(禮疑類輯續編)	吳載能(朝鮮) 編	1812
102	예의문답(禮疑問答)	宋來熙	1890
103	예의보유(禮儀補遺)	정묘(鄭昴)	
104	예의속집(禮疑續輯)	편자 미상	1890
105	예의유집(禮疑類輯)	박성원(朴聖源)	1783
106	예의유집속편(禮疑類輯續編)	박성원(朴聖源)	1812
107	예의총화(禮疑叢話)	유치명(柳致明)	
108	예홀(禮笏)	송재규	1945
109	오례의초(五禮儀抄)	編者未詳	
110	오례통고(五禮通考)	만사동(萬斯仝)	
111	오복명의(五服名義)	유언집(兪彦鍊)	1876
112	오복연혁도(五服沿革圖)	정구	1629
113	오복편람(五服便覽)	權埭(권구)	1929
114	오선생예설분류(五先生禮說分類)	정구(鄭逌)	1629
115	육례의집(六禮疑輯)	박세채(朴世采)	
116	의례구선(儀禮九選)	조진구(趙鎭球)	
117	의례경전통해속(儀禮經傳通解補)	한원진(韓元震)	
118	의례문답(疑禮問答)	윤광소(尹光紹)	
119	의례문답(疑禮問答)	이유태	
120	의례문해(疑禮問解)	김장생	1646
121	의례문해속(疑禮問解續)	김집	17世紀
122	의례문해습유(疑禮問解拾遺)	김장생	
123	의례유설(疑禮類說)	신근(申近)	1792
124	의례집전(儀禮集傳)	장석영	1917
125	의례집록(疑禮輯錄)	編者未詳	英祖
126	의례집설(儀禮集說)	장유(張瑠)	
127	의례통고(疑禮通攷)	정규양(鄭葵陽)	
128	의례편고(疑禮便考)	정만양, 정규양	
129	이례연집(二禮演輯)	禹德麟	1831
130	이선생예설(二先生禮說)	이유장	
131	제의(祭儀)	장유(張瑠)	
132	조선연혁풍속고이(朝鮮沿革風俗考異)	김성일	1589
133	주서절요집해(朱書節要集解)	정중기	
134	죽교편람(竹僑便覽)	韓錫敷 編	1849
135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弘文館 編	1908
136	증보사례편람(增補四禮便覽)	黃泌秀(朝鮮) 編	1900
137	창해가범(滄海家範)	王德九	
138	춘관통고(春官通考)	柳義養 編	1788
139	퇴계선생 상제례문답	조진(趙振)	16세기

140	여유당 전서 -방례초본(邦禮艸本) -상의절요(喪儀節要) -경세유표(經世遺表) -상례사전(喪禮四箋) -예전상구정(禮箋喪具訂) -예전상의광(禮箋喪儀匡) -기해방례변(己亥邦禮辨) -제례고정(祭禮考定) -상례외편(喪禮外篇) -상례절요 -예의문답 -관례작의(冠禮酌儀) -혼례작의(婚禮酌儀) -가례작의(嘉禮酌儀) -소학주관(小學珠串)	정약용 (1762-1836)	1934~1938
141	사계전서(沙溪全書, 51권 24책) -상례비요(喪禮備要) -상례언해(喪禮諺解) -의례문해(疑禮問解) -경서변의(經書辨疑) -가례집람(家禮輯覽) -전례문답(典禮問答) -가례집람도설(家禮輯覽圖說) -근사록석의(近思錄釋疑) -의례문해습유(疑禮問解拾遺) -상제례답문변의(喪祭禮答問辨疑) -의례통해(疑禮通解)	김장생(金長生, 1548~1631)	1620, 교정본 1648
142	율곡전서 (栗谷全書) -격몽요결(擊蒙要訣) -동호문답(東湖問答) -만언봉사(萬言封事) -성학집요(聖學輯要) -경연일기(經筵日記) -사서언해(四書諺解) -서원향약(西原鄉約) -해주향약(海州鄉約)	이이(李珣)	1814年

<부록 6> 결혼중개업 법률 주요내용 및 위반시 제재사항

[시행 2016.3.2.]

- (제1조) 이 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결혼중개업의 정의 (제2조)

○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 결혼중개업을 행하는 것

- 결혼중개업 규율 형태 (제3조 및 제4조)

○ 국제결혼중개업은 시·도지사에게 등록

* 등록기준: 교육 수수료,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예치금 예치, 중개사무소 확보등

○ 국내결혼중개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 법 시행당시 결혼중개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부칙)

- 신고 또는 등록기한: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9월 16일까지)

- 교육기한: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12월 15일까지)

- 결혼중개업자의 자격제한 및 겸업금지 (제6조 및 제7조)

○ 「형법」(영리 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자격 제한

○ 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 해외이주알선업과의 겸업금지

- 결혼중개업자의 의무 규정 (제8조 내지 제14조)

○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의 게시

○ 명의 또는 상호 대여의 금지

○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보존 및 허위·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 외국 현지법령 준수

○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및 거짓정보제공 금지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한 부당한 사용 금지 등

- 결혼중개업 관리감독 (제15조, 제17조 내지 제19조, 제26조, 제28조)

○ 신고 및 등록관청의 조사검사, 영업정지등록취소폐쇄조치,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법령 위반시 제재사항

구 분	영업정지 / 등록취소			과태료	형사처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미신고 영업 (국내중개)	(폐쇄조치)	-	-		2년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
• 미등록 영업 (국제중개)	(폐쇄조치)	-	-		3년이하 징역 / 2천만원이하 벌금
• 거짓·부정 신고 (국내중개)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1년		2년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
• 거짓·부정 등록 (국제중개)	등록취소	-	-		3년이하 징역 / 2천만원이하 벌금
• 변경사항 미신고 (국내중개)				300만원	
• 변경사항 미등록 (국제중개)				300만원	
• 미신고 휴업·폐업 ·영업 재개				100만원	
• 결격사유 해당	(국내)영업정지 1년 /(국제)등록 취소				
• 겸업금지 위반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국내)영업정지 1년 /(국제)등록 취소	200만원	
• 신고필증 등 미제시				100만원	
• 명의·상호 및 신고 필증·등록증 금지 위반	(국내)영업정지 1월 /(국제)등록 취소	(국내)영업정지 2월	(국내)영업정지 3월		2년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
• 서면 계약서 미작성	영업정지 1월	(국내)영업정지 2월 /(국제)등록 취소	(국내)영업정지 3월		
• 계약서 기재사항 누락 또는 계약서 미교부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 계약서 보존 위반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구 분	영업정지 / 등록취소			과태료	형사처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계약서 거짓 기재 또는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 작성	영업정지 3월	(국내)영업정지 6월 / (국제)등록취소	(국내)영업정지 1년		
• 외국 형사법령 위반 통보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 허위·과장된 표시·광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국내)영업정지 6월 / (국제)등록취소		2년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
• 거짓된 정보 제공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국내)영업정지 6월 / (국제)등록취소		2년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
• 개인정보 보호 위반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국내)영업정지 6월 / (국제)등록취소		2년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
• 장부·대장 비치 위반				100만원	
• 보증보험 미가입 또는 예치금 미예치	(국내)영업정지 3월 / (국제)등록취소	(국내)영업정지 6월	(국내)영업정지 1년		
• 자료 제출·보고 거부 또는 거짓 보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200만원	
• 조사·검사 기피·방해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200만원	
• 시정명령 위반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국내)영업정지 6월 / (국제)등록취소		
• 폐쇄조치 영업지속					3년이하 징역 / 2천만원이하 벌금

※ 위반단계별 조치사항 : 시정명령 ⇒ 영업정지(등록취소) ⇒ 폐쇄조치 ⇒ 형사처벌